Daily **The Korea Times Toronto**

No. 723—724 1982년1월16일(토), 18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4 Saturday. 16. Monday. 18. January 1982

EAST ASIAN LIBRARY JAN 20 1982
UNIVERSITY OF TORONTO LIBRARY
130 St. George Street
TORONTO, CANADA M5S 1A5

한국일보 토론토

토론토발행인 : 김 명 규
편 집 인 : 이 석 현
광 고 부 장 : 송 광 호
편집자문위원 : 윤 방 헌

워싱턴 다리에 비행기 추락

80명의 피로 물든 얼음의 강

살신성인(殺身成仁)의 50대 영웅도…

(워싱턴) 80명의 귀중한 인명이 혹한으로 강과 다리 위에서 참변을 당한 비행기추락사고가 미국 수도 워싱턴 한복판에서 일어났다. 12일 하오 79명의 승객과 승무원을 태우고 워싱톤 내셔날공항을 떠나 플로리다 템파로 떠나던 에어·플로리다 소속 보잉747기는 이륙한지 수초후 백악관에서 5km 떨어진 지점에서 퇴근길의 교통혼잡을 이룬 다리위의 자동차들을 깔아 뭉개고 빙판의 포토막 강에 처 박혔다. 이 사고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오직 5명뿐.

탑승객중 이름이 알려지지 않은 50대의중년신사는 구출반이 헬리콥타에서 내려보낸 구명대를 다른 사람에게 전하고, 자기 목숨을 버린 영웅도 있었다.

이 사람은 얼음물 속에서도 옆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사람들의 생명이 더 위급하다고 판단, 구명대를 그쪽으로 전하고 다음 구명대를 기다리고 있었다. 구조반의 윈저씨는 헬리콥타가 다시 그 현장에 돌아왔을때는 이미 그 영웅은 보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 참변속에서 살아남은 승객중 한사람인 직업조종사 조셉·스틀리씨는 두 다리가 부러진채 구출된 후 병원에서 "활주로를 벗어나는 순간 정상이 아니라는 것을 바로 알았다. 비행기가 정상적 고도를 유지 못한채 이륙했다."고 말했다.

정확한 사고원인은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워싱톤과 버지니아 주를 연결해주는 14번가 다리위에서 비행기에 깔려 죽은 사람만도 6명이다.

사고직후 12명의 의사와 간호원으로 조직된 특별구조반이 워싱톤과 버지니아에서 구성됐다.

구조반은 얼음위에 보트를 띄우고 헬리콥타를 통해 구명대를 내려보냈으나 혹한으로 얼어붙은 강에서 속수무책이었다.

승무원중 유일한 생존자인 한 스튜어디스는 얼음물 속에서 허우적대다가지나가던 용감한 시민 마틴·스커트닉씨에 의해 구조됐으나기장 래리·위튼등 나머지 4명의 승무원은 사망했다.

이번 참사에서는 승객뿐 아니라 다리위의 자동차에 탄 사람들도 사망한것으로 알려졌다. 희생자는 더욱 늘어날 것같다.

이 공항은 다운타운에인접, 미국하원과 주민들로부터 시끄럽다는 원성을받아왔다. 조종사들도 활주로 사정이 나빠 비행을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었다. 이 공항은 이륙직후 백악관을 피해 왼쪽으로 급선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다.

한편 미연방항공국(FAA)은 관제사 부족으로 인한 사고는 아니었다고 강력히 부인했다.

미국은 작년 7월 시작된 관제사들의 파업, 해고로 인한 관제사 절대수 부족으로 곤란을 겪어왔다.

◇얼음물 속에서 구조반 헬리콥터가 내려준 구명정에 의지한채 생의 몸부림을 치고 있다.

◇에어 플로리다 소속 보잉 737기는 혹한으로 얼어붙은 얼음장을 깨고 강물 속으로 처 박혔다. 이 사고로 다리위를 달리던 자동차들이 참변을 당해 십여대의 차가 뭉그러졌고, 6 명이 사망 했다.

13일, 워싱턴 최악의 날

철도사고, 3명 사망

(워싱턴)80명의 인명이 희생당한지 1시간도 못돼 폭설과 폭풍으로 인한 철로탈선으로 철도 중간에있던 콩크리트벽을 들이받아 3명이 죽고, 16명이 중경상을 입는 참사가 또 일어났다.

워싱턴 교통본부의 여자대변인 더키스양에 따르면 사고는 12일 하오5시경바로 비행기사고가 난 내셔날공항을 떠난 열차가 스미소니언 박물관 정류장을 지난 직후 일어났다.

열차가 터널사이의 중앙벽을 받은 후 무너진 벽이 열차를 덮쳐 대부분 창가에 있던 수많은 승객을 회생시켰다.

이날 워싱턴의 날씨는강풍과 폭설로 대부분 공무원들이 일찍 퇴근, 열차는 대만원이었다.

골프인구 증가

불황에도 불구

(서울14일=연합)작년도에 한국의 총23개 골프코스를 사용한 골퍼들의 수는 855,474명으로 80년도보다 약14% 늘었다고 한국골프협회가 13일 밝혔다.

이 숫자중 56,256명은외국인으로 전해보다 13,510명이 늘었다.

일시해고 연장

GM회사 3500명

크리스마스에 2주간 일시해고(lay-off)당했던 캐나다 G.M자동차 3,500 명 근로자들은 이달말 또 2주일 동안 일시해고 된다.

오샤와에 공장을 갖고있는 G.M은 이번 일시해고는 25일부터 시작되며 중간크기의 신형 프론트·휠 드라이브(front wheel-drive) 자동차 시보레·셀리브리티(Celebrity), 올즈모빌, 시에라(Ciera), 폰티액6000및 뷰익센튜리(Century)를 만드는 A공장의 근로자들이라고 밝혔다.

1주일 일시해고에서 돌아오고 있는 G.M트럭 공장의 2,300명 종업원들도 2월8일부터 일주일간 다시 임시해고를 당한다.

지난주 G.M의 발표에따르면 170명이 무기한 일시해고, 530명이 잠정 일시해고를 당했다.

긴축정책 계속

금년중반 세계경제 회복

(오타와)연방정부는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 세계경제가 금년 중반쯤 개선되지 않는한 타이트한 반인플레이션 정책을 계속할 수 밖에 없다고 앨런·맥케큰 재무상이 13일 말했다.

노바·스코시아은행의 창립기념일 축사에서 맥케큰 장관은 세계적 경제불황이 캐나다에 미친 타격은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덜한편이며 멀지 않아 경기가 풀릴 것으로 전망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금년 중반쯤 미국및 유럽의 경기가 호전 될것이며 일본이 고집 하는 강경책 역시 캐나다상품의 경쟁성을 지켜줄 것으로보인다고 말했다.

서방국과 대화용의

「폴」군부 나토성명 반응

폴랜드 군정부는 13일서방 강대국들과 대화를 갖자고 제의해왔다.

이같은 요청은 12일 북대서양조약기구 국가들이 성명을 발표,폴랜드군정이 국가 정상화를 꾀하도록촉구한데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폴랜드 국가주석 헨릭·자블롱스키는 "폴랜드의진상을 알고 싶어하는 사람들과 언제든 대화할 태세가 돼있으며, 서로 오해를 풀고 국제간의 협조를 증진해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르샤바 TV방송은 보이첵·야루젤스키 장군 휘하의 군사정부가 솔리대리티 노조원들에 국가의 정치, 경제상황에 관해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소작농가 인정

농지법 개정예정

(서울 14일=연합) 한국정부는 소작농을 인정하는 관계법 개정을 고려하고있다.

14일 농수산부 관리들은 49년에 공포된 토지개혁법은 소작농을 금지했으나80년에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위탁이나 임대된 토지에 농사지을 수 있게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정법안은 9월 정기국회때 상정, 승인받을 예정이다.

한편 작년에 전국적으로 11,300농가를 대상, 조사 작성된 공식통계에 의하면 70.8%가 자작농, 22.5%는 일부자작및 일부소작농 6.7%는 완전소작농 이었다.

우유소비 감소

가격인상에 불만

온타리오의 어린이들은 종전과 같이 우유를 많이 마시지 않는다. 중요이유의 하나로는 그들 부모가 마시지 말라고 하기 때문.

이같은 사실은 온타리오 우유시장위원회를 위한 연구에서 밝혀졌다.

81년 온타리오주의 우유소비량은 1.3% 떨어졌는데 이같은 우유소비 감소의 일부원인은 부모들이우유값이 오르는 것을 불평한 뒤에 이들 10대들이 우유를 마시지 않는 결과라고 이 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말했다.

한국일보 · 토론토
구독은
533 2361

SUNLIFE
백 용 빈
생명보험, 주택보험
R. R. S. P.
사업보험, 상점보험

B) 497-3800
R) 284-90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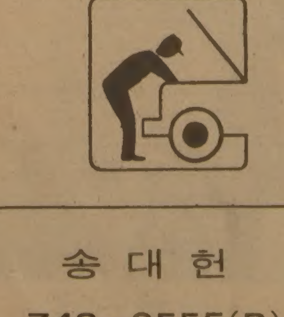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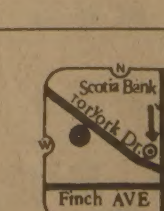
여러분의 단골백화점 미도파로 오십시요.
미도파백화점
B) 536-1692
R) 245-3539
454 BLOOR ST. W. TORONTO. ONT.

강학수 종합보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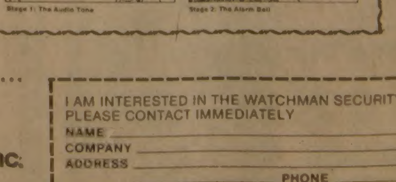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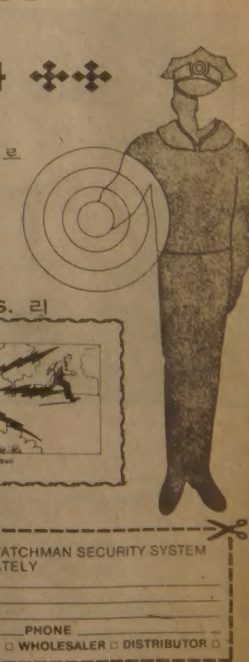
Canada Life 15년근무
상점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화재보험
R. R. S. P 은퇴연금
B) 868-0922
R) 622-5147

은하 보석상
ROLEX
가장믿고 살수있는
「로렉스 지정판매 대리점」
B) 534-7791, 534-9977
653 BLOOR ST. W(한국관

캐 나 다
외환은행
364-2890
2 FIRST CANADIAN
PLACE SUITE 1140

NORTH YORK AUTO BODY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교포우대
송 대 헌
749-0555(B)
881-4053(R)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WATCHMAN™
PATENTED SECURITY SYSTEM
도둑을 방지합시다
(도난방지기 세일)
당신의 재산을 보호하고, 어느 장소나 아름다운 현대식 모양으로 특별한 도구나 기술없이도 장치가능합니다. 이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요.
PHONE NOW (416) 661-3161
사 장 : 쌘 디
한국인 : MRS. LEE
AFTER HOUR(EVENINGS)
742-2421 MRS. 리



Manufacturer's suggested list only $299.95
coltron International Inc.
864 Alness St., Downsview (Toronto), Ont., Canada, M3J 2H5
I AM INTERESTED IN THE WATCHMAN SECURITY SYSTEM
PLEASE CONTACT IMMEDIATELY
NAME
COMPANY
ADDRESS
PHONE
TYPE OF BUSINESS: RETAILER □ WHOLESALER □ DISTRIBUTOR □

2ND CLASS MAIL NO. 5246 MAILPERSON : PLEASE DO NOT DELAY. THIS IS A DAILY.

East Asian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투자케이스에 영주권

78년6월1일이전 신청자에게

(LA지사)지난78년 6월 1일 이전에 투자케이스로미국영주권을 신청한 사람은 모두 영주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런 조처는 레건대통령이 지난 12월29일 이민법수정안에 서명함으로써 이루어졌다.

「HR 4357」로 불리우는 이 수정안은 이미 12월16일 하원에서 통과됐었는데 이 수정안은 비우선순위인 투자이민 케이스를 통한영주권 취득을 비롯, 현행 이민법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여러 내용을 담고 있다.

이중에는 매년 1월 실시했던 외국인등록을 폐지하고, 시민권 신청시 2명의 증인 출두조건 폐지, 입양아 연령 대폭확대(14세 에서 16세로)등이 포함돼 있다.

미법무성 이민국의 듀크오스터 공보관은 이 수정안이 레건대통령의 서명으로 즉각 발효하게 됐음을 밝혔는데, 그는 이 수정안의 발효로 78년6월1일이전 미국에 상당한 금액을 투자했고, 78년6월1일 이전에 이민국에 영주권신청을 제출했고, 직계가족 이외의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1명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람은 우선순위에 관계없이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이 안의 통과로 투자이민 케이스는 미국의 고용증대를 위해 상당한액수를 투자하고, 이상의 요건을 갖춘 사람에게 영주권을 주는 특별케이스라고 했다.

이번 발효되는 수정안에는 78년6월1일 이후 투자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또한 투자액수에 관한 언급이 없는데 종전법에는 4만달러 이상으로 밝혀졌다.

정초에 이혼신청 급증

여권갱신기해 위장결혼 인듯

(뉴욕지사)교포여권을비롯 재외국민의 여권을 전면 갱신발급한다는 한국정부 방침에 따라 4일부터신여권 갱신발급을 시작한뉴욕총영사관에 뜻밖에 이혼신청자가 줄을 잇고 있어 뉴욕한인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혼문제 전담영사인 임홍재 부영사는 6일 하루만에 8쌍의 이혼신청 방문을 받고, 이들중 세커플은 즉석에서 이혼이 성립됐으며, 나머지 커플은 서류보완을 위해 되돌아갔다고 밝히면서 이런 추세라면 1월한달동안에 전년도의 총계인71건을 돌파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81년 누계인 71건은 80년도의 50여건에 비해 완만한 상승을 보인 것으로 인구비례로 따질 때 그리 심각한 편이 아니었다고임영사는 말했다.

그러나 작년말 여권갱신이 발표되면서 이를 이용해 합법적 여권을 취득하려는 법정체류기간 만료자들의 이혼신청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

친지방문이나 상용등 3개월 이내의 단기여권으로 미국을 방문했다가 체류기일을 넘긴 이른바 불법체류자들인 이들이 합법적여권을 얻는 길은 영주권자와의 결혼이 가장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영주권을 위한 이혼"이 주를 이루는 것이라고 임영사는 설명했다.

작년 8월부터 11월까지 4개월간을 합쳐 9건의 이혼이 성립됐으나 여권갱신에 관한 발표가 있은 작년 12월 한달동안에 9건을기록하는 급증을 보였다.

새해들어 쇄도하는 이혼신청자들로 "구비 서류가 완전 바닥이 나 긴급주문을 했다"는 영사관측의 설명은 사태의 심각성을 단적으로 나타내 주고 있다고 임영사는 말했다.

본국의 처와 어떤 묵계가 있는지 모르나 이들 체류기간 만료자들의 일방적 이혼신청은 일단 접수가거절되지만 정상이 참작될때 영사관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조처로 미국에 현재 체류하고 있는 일방의 이혼의사는 영사가 문서로 확인시켜 주는 것이다.

활개치는"쿵록"갱단

중국인가 중심 암약

홍콩에 거점을 둔「쿵록」갱단은 토론토에 약 300여명의 단원을 가지고 불법도박장 운영및 강제탈취등으로 독버섯처럼 번성하고 있다고 전 홍콩경찰관이었으며, 현재 메트로·토론토 경찰관인 카지미되즈·콘커순경이 폭로했다.

이 비밀조직은 주로 중국촌에 사는 나이 먹은 사람이나 교육정도가 낮은사람들을 공갈 협박, 공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콘커 순경은 음식점 경영자들이 흔히 그들의 착취대상이 되며, 교육을 못받은 청소년들이 이 갱단에 가입하도록 유혹당한다고 법정에서 진술했다.

그는 또 홍콩에서는 일단「쿵록」갱단에 발을 들여 놓으면 빠져 나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나 이곳은아직까지는 뿌리가 깊지 않다고 말했다.

혼다 자동차

녹슨 차체 무료수리

73~79년에 제작된 혼다자동차 소유주들은 차체가 녹스는것에 대해 무료로수리받을 수 있다.

캐나다혼다회사는 약 십7만5천대로 추산되는 혼다자동차에 대해 무료견적과 수리를 해주겠다고 발표했다.

75~79년 사이의 모델들은 펜더(Fender)도 새로 교환받을 수 있다.

이번 혼다회사의 무료견적, 수리는 약 1년동안 계속될 것으로 혼다회사는차한대당 평균수리비를 200달러로 보고, 총 3500만달러가 소요될 것으로 내다봤다.

마가렛 제2자서전 출판

니콜슨등과 정사, 마약복용등 밝혀

◇그녀가 쓴 새책<결과들>

〈Beyond Reason〉이란책으로 백만달러이상을 번것으로 알려진 마가렛·트루도는 오는 1월30일 시판될 새 저서〈결과들〉(Consequences)에서 트루도 수상이 경제적 자유를 허락하지 않았으며, 별거이후 잭·니콜슨, 크리스토퍼·리브(수퍼·맨)을 비롯한 유명한 연예계 인사들과 정사를 가졌음을 폭로, 다시 한번 매스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선」이나「스타」등 신문들은 11일부터 일제히 새로 나올 책의 내용을 발췌, 매일 연재하고 있다.

이책에서 그녀는 트루도수상은 마가렛이 자신의옷이나 경력을 위한 지출에는 인색, 경제적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별거의 필요성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마가렛은 수상과 헤어진후 뉴욕의 스투디오 54등에 등장, 많은 사람들과어울렸고, 특히 배우 잭·니콜슨은 그가 사귄 많은 남성들중 트루도 수상의 라이벌이 될만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한편 오타와의 트루도수상 대변인은 관례대로 수상으로서는 개인적인 일에 관해서는 노·코멘트라고말했으나 마가렛이 노골적으로 수많은 남성들과 섹스관계를 가진 것과 마약, 환각제 복용등이 폭로된 데 대해 트루도가 "발끈"한것으로 알려졌다.

◇디스코를 즐기는 마가렛·트루도

뉴메씨홀 개명

「로이·톰슨·홀」로

서터가에 신축, 오는 9월 13일에 개장 예정인 뉴매씨·홀의 이름은 이 건물에 450만달러를 기증한 신문왕 톰슨가의 총수 이름을 따라 "로이·톰슨·홀"로 불려진다.

매씨·홀관리위는 12일표결에서 지난 크리스마스직전 450만달러 기증,부친 고로이·톰슨 업적을 기념했으면 한다는 케네스·톰슨의 제의를 정식 수락했다.

작년 여름 테리·팍스가 사경을 헤맬 당시 건물이름을 테리·팍스·홀로 하자는 여론이 많았었다.

톰슨가는 토론토태생으로 영국, 미국, 캐나다등 전세계에 수많은 신문을소유했고 한때 세계적 권위지 영국의The Times를 운영하기도 했으며, 헛슨·베이등 백화점 체인도 소유하고 있다.

「섭생법 12계명」창안

날씬이 모델들, 흰고기를 먹어라

고급모델 크리스티·브링클리, 베로니카·해멜, 린다·에반스등 날씬하고도 멋장이 아가씨들이「섭생법12계명」을 고안해 냈다.「2주간의 다이어트」라는 부제붙은 12계명은

ㅇ야채샐라드를 먹을 때 마요네스 버터, 마가린, 식용유등을 넣지 말라.

ㅇ붉은 색의 고기를 먹지 말라.(생선, 닭고기등 흰색의 고기를 대신 섭취할 것)

ㅇ음주량을 줄여라.하루에 2컵 이상의 와인은 절대 금기.

ㅇ매일 8~10컵의 물을 마셔라.

ㅇ배고파 게걸대지 말고 식사시간을 절대로 지켜라.

ㅇ2주에 하루씩 굶어라.

ㅇ하루에 1온즈 이상의 치즈, 반컵 이상의 커테지치즈를 먹지 말라.

ㅇ일주일 세번씩 적어도 30분간을 쉬지 말고 운동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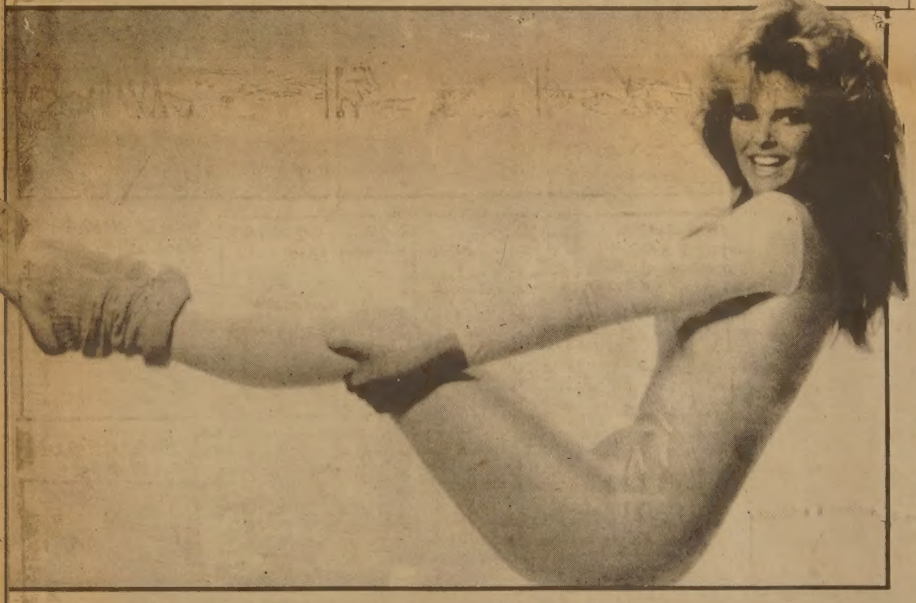
ㅇ캘로리가 높지않은 음료수를 선택하라 (예:레몬이나 다바스코를 곁들인도마도 쥬스)

ㅇ소금대신에 후추를 넣어라.

ㅇ싫으면 절대 먹지 말라.

ㅇ요리할 때 주접대고싶으면 대신에 슈가레스 껌을 씹어라.

ㅇ어느 섭생법이든지 의사와 먼저 상의하라.


◇12계명의 저자중 하나인 크리스티양이 날씬해지는 멋진 운동을 소개하고 있다.

교민의 벗
한국일보·토론토
구독은
533 2361

교민동정

◆김조자(미용실경영): 딕슨과 키플링의 로마노미용실을 경영해 온 김여사는 새해들어 이승자씨가 경영하던 헬렌미용실(알비용과 이슬링턴)까지 인수, 눈코뜰새없이 바쁘다. 비지니스가 이렇게 확장된 것은 그동안 협조해 준분들 덕분이라는 김여사는 앞으로도 교민들에게 염가봉사할 것을 다짐했다. 로마노 미용실은 전화 248-2957, 헬렌미용실 741-7829.

◆강선희(콜트·론 회사 근무): 도난방지기 제조 전문회사 콜트·론(Coltron)회사의 리셉셔니스트로 1개월째 일하고 있다. 회사의 취급분야가 새로와 퍽 재미가있어 문의상담 에도 응하고 있다. 이 회사는 "워치맨(Watchman)"이라는 도난방지기로 특히 유명하다. 전화: 661-3722.

〈제 언〉

한약의 효능

서 춘 봉

(필자: 전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서춘봉씨

한약으로 각종암, 당뇨병 정맥염, 성쇠약증, 반신불수등 난치병을 완치할 수 있다.

한의약은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옛날 원시사회로부터 우리 조상들은한약으로 병을 예방하고, 통증을 치료하였다.

현재 중국이나 일본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한약으로 무서운 질병들을 치료하고있다. 각종암, 정맥염, 당뇨병, 성쇠약증, 반신불수등 난치병들이 한약으로완치되고 있으며, 마취약을쓰지 않고도 침으로 신경을 마취시켜 대수술을 하고있다.

암으로 죽어서 무덤으로 갈 불행한 사람들도 한약으로 완치되었으며, 정맥염으로 다리를 잘라야 할 사람들이 한약으로 다리를자르지 않고도 완쾌된 사실, 당뇨병으로 매일 주사맞던 사람들이 한약으로 완치되었다. 무서운 병이나 수술할 병도 한약으로 완치되는 사실이 많다.

중국에서는 의과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한의대학에가서 다시 공부를 하게돼 있다. 한의, 양의를 공부한 사람만이 중국의사로인정된다. 우리 한국에서도한의학을 많이 연구하고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귀중한 한약으로 사향, 노루가 멸종되어 국내에서는 사향을 구할수 없는 실정이다. 범, 곰이 멸종상태여서 호골과 웅담을 구할수 없어서 치료에 곤란을 갖고있다.

그런데 홍콩시장을 통하여 사향, 웅담, 호골이 대량으로 들어오고 있다.

세계 어느나라나 사향노루, 범, 곰이 많이남지 않았다. 그런데 이 많은 수량의 사향, 웅담, 호골이 어디서 오는지 의문이다.

사향노루 한마리가 죽어야 사향한개가 나오며, 범을 잡아야 호골이 나올수 있으며, 곰을 잡아야 웅담이 나올수 있는데 산범에서 호골을 빼낼수는 없다.

그런데 이 많은 한약재가 어디서 흘러들어오는지 독자제위는 상상하시기 바란다.

한약에는 참으로 좋은약이 많다.

많은이가 한약을 복용하며 일부 한약은 끓여먹는데, 최근 중국의 연구에 의하면 끓이지않고 복용하는것이 더 효과적이라 한다.

어떤 약은 오래끓이므로써 좋은 성분이 파괴되기 때문에 생약으로 복용함으로써 더좋은 효과를 보고 있읍니다.

한약은 정확한 한의사의 진단을 거쳐 복용하여야한다. 동맥경화증, 고혈압환자가 보약으로 녹용을 내복하는 분들이 있다. 이것은아주 위험한 일이다. 이런병자가 녹용을 복용하면 머리가 아프며 모세혈관이 파열되어 죽거나 반신불수로 병신이 될수있다.

돈을 주고 보약을 살것이 아니라 독약을 산것 과 같다. 그래서 한의사의 정확한 진단을 거쳐 일반한 약이나 보약을 쓰기를 권한다.

매년 보약을 정확하게쓰면 건강할뿐 아니라 인간 순명을 10~15년 연장할수있다.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에도 한약복용이 가장 좋다. 돈을 벌려고 과로한 정신노동생으로 인하여 신경쇠약과 성쇠약환자가 많다. 남자들의 성쇠약으로여자들이 성적만족을 못 느껴 부부간 애정이 벌어지고, 아름다운 가정이 파괴되어 불행을가져 오게 된다.

한약에 좋은 처방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고 한의사를 찾으시라. 한약을 잘 쓰면 성기능이 회복되며,더 왕성해지며, 사랑하는 부인도 만족을 느끼게 될 것이다.

한약이 새로운 방법으로 사람들의 고통을 제거하며 무서운 난치병을 완치시키는 놀랍고도 새로운 시대가 왔다.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한의사들의 정확한 진단과 정확한 한약 처방이 중요하다. 그리고 가짜가 아닌 진짜 한약을 써야 한다. 이 세상에는 하도 人造(가짜)사향, 우황, 웅담, 호골등의 한약이 많으니 잘 선택하여야 하겠다.

이 상 배
—서울 미조리 화식부 4년
—서울 일력 화식부 5년
—서울 프라자호텔 화식부 4년
—조선호텔 화식부 5년
—국제호텔 화식부 주방장 재직중
캐나다 뉴서울에 취업이민
스시바 써비스 오후6시~새벽1시까지

뉴—서울
●음식맛이 좋아졌읍니다.
●서울에서 일류요리사 고용
●국수계의 일류요리사 전 서울집
정현기씨 뉴서울로 오다.
529 BLOOR ST. W.
533—1500

✣오리엔탈 EXPRESS(주7일공연)
매 일—오후8시30분~새벽1시까지
일요일—오후8:00~오후11시까지

THE KOREA TIMES is the only Daily(Except Sundays) serving the Korean-Canadians Fri. & Sat. issues printed together. Established 1974. Subscription $99 yr. $9 mo. 구독료(선금)연 $99 월$9, 영구구독 $500, ISSN03192962, 2nd Class Mail 5248. (416) 533-2361~4

실협뉴스

— 온타리오한인실업인협회 제공 —

실업인협회
20 MOBILE DR.
TOR. ONT.
M4A 1H9
☎ : 752-7771

1982년도 제1차정기이사회

지난 1월7일 6시부터 Inn on the Park호텔 새톤홀에서 개최된 82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는 많은 관심을 끌었던 이사장 선출을 무사히 끝내고 장장 6시간의 진지한 회의를 끝냈다.

이사전원 참석의 놀라운 참석률

이 날 저녁 6시 이전에 이미 협회이사로 활동하게 될 1년조 구이사 16명과 2년조 신임이사 25명, 당연직 이사 3명, 합계 44명전원이 출석하는 놀라운 열의를 보였으며, 회장단 자문위원 4명중 멀리 교외에 있는 김영대 전회장만 불참하고, 김정곤, 이형인, 이근우 위원이 참가 했고, 집행부 임원8명, 그리고 해밀톤지역 지부설치에 참여할 한인회장 이영구씨외 3명등 60여명이 서로 반가운 인사를 교환한 후 디너를 나누었다.

이번 모임의 분위기는함께 나눈 저녁식사로 서로가 협회발전의 기틀이 되려는듯 무척 진지한 열기가 보였다.

8시에 디너를 마치고 자리를 옮겨 볼 룸에 마련된 회의장에서 제1차 정기이사회의 개회가 선언되고, 이어 집행부 대표이며 당연직이사인 차선겸 회장의 인사가 있었다.

차회장은 "지난 11월 총회이후 여러 업체대표들과 도매상들을 접촉하여 보니 역대회장들과 집행부의 활약으로 K.B.A의 성가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아쉬운 것은 그들의 인식이 결코 실력단체로 인정치않고 있음을 발견하고, 앞으로 2년간 이 점에 중점을 두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인데 이사 여러분의 적극협력없이는 도저히 불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이 협회사업에 깊이 관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고 인사한 후 집행부임원, 자문위원및 이사들을 한사람씩 소개했다.

임시의장에 최고 연장자 이국영 이사

이어 이사장선거를 집행할 최고연장자 이국영이사(전임 선거관리 위원장)를 임시의장으로 추대, 사회를 맡게 했다.

이사장선거는 후보를 무작위 무기명투표로하여 다득점자 3명으로 후보를 정하고, 결선투표를 하는 것이 가장 공평하다는 동의안이 채택되어, 임시의장이 지명한 박경택, 조정대, 유영갑(Young) 3명의 이사가 선거관리위원이 되어 투표를 실시한 결과 후보에 김태진, 전윤식씨가 동점, 그리고 조정대, 이춘수, 백경락 이사의 3명이 동점이 되어 5명의 후보를 놓고 결선투표를 했다.

44명 투표자중 28표를얻은 전임 이사장 김태진 이사가 이사장에 다시 선출되었다.

이사장에 김태진씨재선

재선의 영광을 차지한김태진 이사장은 간단한 취임인사와 함께 임시의장으로부터 사회를 이어 받아 다음 의안을 진행했다. 부이사장은 관례에 따르기로 하여 이사장이 차기 이사회에 지명, 인준받기로 하고, 투표를 생략했다.

선거관리위원 선출은 구두로 호선하여 7명을 후보로 하여 무기명투표 결과 유영갑(Young), 박경택, 박찬도, 이춘수, 이국영이사의 5명이 선출되었다.

역시 감사위원 선출도 5명을 구두호천하여 후보들 세우고, 무기명투표를 실시하여 고정배, 서동준, 백경락 이사의 3명이 선출되었다.

보장된 사업계획서및 추정예산안

사업계획서에는 선거공약사업의 실현을 위한 계획이 반영되어 기획조사사업, Complain 상담사업, 협동조합추진사업, 권익옹호사업, 그리고 대내, 대외사업으로 짜여진 것들로 이미 전 주에 이사회에 상정될 안건으로 발표 소개된 바 있는 그대로였다. 이러한 사업들을 추진하려면불가피하게 예산의 조정이있어야 하므로 이를 추경예산으로 제출하여 심의를거의 끝마쳐 가다가 회칙개정으로 인한 회계년도의착오로 인하여 차기이사회까지 가예산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조건을 붙여 계수정리를 다시 하여 인준을 받도록 하자는 동의안에따라 다시 심의하기로 결정되었다.

이사회 직책의 임기 문제로 장시간 논란

기타사항 토의에서 조정대이사가 "이사회 기구 의 직책들 즉 이사장 각 분과위원장들의 임기가 1년인가? 2년인가?"라는 질의가 제기하여 여러 이사들과 자문위원들의 보조발언까지 청하면서 진지하게토론을 전개, 장시간 논란 되었으나, 결국 전년도 회의록을 참조하여 회칙개정및운영내규제정위원회에서이사회 내규를 들어 임기를 결정하고, 동시에 폐회하자는 문영환 이사의동의안이 채택되어 오랜시간의 회의가 폐막되었다. 회의가 끝난시간은 밤1시7분이었다.

제1차 이사회는 구이사 16명, 신임이사 25명, 당연직이사 3명등 총44명의 모든 이사들이 이사수락 확인서에 자피로 싸인을 함으로써 이사직을 전부 수락 하였으며, 즉시 위임장이 증여될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에 의하면 이사회의 기구를 조속히 설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하여 1개월 이내에 차기정기이사회가 소집될 것으로 알려졌다.

집행부 임원인준

그후 이사회의 인준을기다리던 새 집행부 임원의 조직을 브리핑·차트로 설명 들은 후 회장단의 선거공약 실천을 위해 새로 신설 확대된 조직기구를 수정없이 승인하였다. 이사회의 인준을 받은 임원진은 아래와 같다.

회 장 : 차선겸
부회장 : 김이열 (Complain 상담실 담당)
부회장 : 조기연 (기획조사실 담당)
기획조사실장 : 여문석
상담실장 : 미정(Part time 채용예정)
「실협뉴스」편집실장겸 재무 : 정상우
총무 : 김풍수
재무 : 정상우
섭외및 봉사부장 : 이홍규
협동조합추진부장 : 심태섭
홍보부장겸 편집위원 : 이정구
제1사업부장 : 이양주
제2사업부장 : 최봉식
제3사업부장 : 강경하
제4사업부장 : 미 정

업무의 분담과 분업을강력히 실시하기 위하여 사업부를, 제1사업부에서 Milk, Icecream, Grocery, Bread. 제2사업부에서 Beverage, Chips, Magazine, Cigarette. 제3사업부에서 Gift, Hardware, Variety, Card. 제4사업부에서 Cash Register, Insurance, Pest Control, Maintenance 등등··.

이상과 같이 업무를 세분하여 담당하도록 승인이 된 것이다.

— 집행부 동향 —

1. 1월4일(월) : O.K. bread와의 협상 Salesmaneger R. 윌리암슨과 16온즈빵 69¢ 씩 Promotion 에 대한 협상을 함.
2. 1월6일(수) : Metro news부이사장 A. Petraitis와 T. Muatt 와의 회담(김이열부회장 출장) 현재 메트로 뉴스가 주 1회 배달하면서 2회분 딜리버리 차지를 하는문 제에 항의하고 즉시 수정을 강력히 촉구함
3. 1월11일(월) : General Bakery 의 R. T맥카이네 W. 맥크린과 만나 16온즈빵 69¢ 로 Promtion협상.
4. 1월11일(월) : 담배와 Cat food Promotion 에대한 협상을위해 Komadian사및 Sincere Trading 대표와회담

회원투고 환영

협회는 지난제1차 정기회에서 집행부의 조직인준을 받고, 그 사업활동의 강화를위해「실협뉴스」편집실을 설치하고, 회원들의 투고를 적극 장려하게 되었다.

이는 앞으로 회원들의 여론수집과 정보교환의 매개체로서의 확대하기 위한 조처인데, 편집실의 진용은 실장겸 재무담당의 정상우씨가 언론인출신의 경험을 살려 활약하게 될 것이며, 홍보부장겸 편집위원으로 신진 이정구씨가수고하게될 것이다. 그러므로 회원들은 건설적인 제언, 의견, 새로운 경영 아이디어, 알리고싶은 유익한 미담등을 간략하게 400자원고지 5매정도로 써서 협회로 우송해주면, 편집실에서 문안을 보충하여 게재할 것이다. 관심있는 회원들의 참여와 많은 투고를 환영하며, 편집실에서 기대하고 있다.

멀티·메디아(Multi — Media) 잡지회사와의 협상

지난연말「멀티·메디아」(Multi—Media)회사 와의 협상이 진행중이라는 기사에 대하여 약간의 물의가 있어 협회 실무자는 오해없기를 촉구하고 있다. 즉 멀티 메디아사는 포켓북을 공급하는 회사로서 본협회와 협약을 맺고, 기존 경쟁업체보다 유리한 할인제도를 실시하여 고객을 확보하려는 의도에서 교섭을청해왔던 것이다.

따라서 1차로 협회회의실에서 면담, 대강의 이야기를 교환하고, 정식 수속을 진행한후 다시 만나기로 약속하고 회담을 마친바 있었다.

그런데 일부 기존고객으로 거래하고있는 회원들이 오해하여 협회와의 딜이완결된 것으로알고, 그 디스카운트를 보다더 유리하게 확보하라는 여론을 제기해왔으며, 일부 멀티·메디 아세일즈맨들의 불분명한 언질에 물의가 야기되어 잘못된 루문이 있었다.

협회의 당무자는 아직교섭중에있는 딜에대해 오해없기를 바라며, 결코 회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알아주길 바라고 있다.

〈문예작품공모 입선2등〉

이민, 구멍가게 그리고 조그만「나」

김영희 작

몇시간 수고끝에 겨우 들고간 온전항아리를 놓고 개운치 않아할 그 도둑씨를 생각하니 쓴 웃음이 나왔다. 계속되는 시누이의 말인즉, 밖에 나갔다 오니온 집안이 그꼴이라서 멍하니 모두들 앉아 있는데 문쪽에서 찰그락 찰그락하드니 문이 소리없이 열리며 키큰 흰둥이가 허피같은 머리를 길렀는데 방으로 쑥 머리를 디밀다 사람이 있는걸 보고 줄행랑을 치더라는 것이다. 이 벼락맞을 도둑이 아무리 생각해도너무 억울(?)했던지 아니면 섭섭해서였는지 재차 되돌아와 큰 돈뭉치하나를 기어이 찾고야 말겠다는 심뽀였나보다. 원래부터 부잣집에 도둑이 드는것인데 우린 부자도 아니면서 몇번이나 맞아야 되는 영광(?)을 차지했으니 도둑과 인연이 있는것임엔 틀림이 없었다.

6) 세번째의 변

이쯤되면 내 나름대로의 강도식별법, 도둑방지법을 알만 했으니 엉뚱한 면에 전문가가 돼버린 셈이었다. 또 다음해 12월이 접어 들었다. 신문에 잡지에 12월은 강도, 좀도둑이 날치는 시기니 요조심하라는 경고가 계속 나왔다. 또 당하지 않기 위해 오후엔 막내 시누이가 퇴학후 항상 나와 같이 있게 했다. 난 상점문 가까이 서서 하나 하나 들어오는 사람의 식별을 했고, 시누이는 Cash를 보았다. 만약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경우 내가 뒤에 있어야만 행동을 빨리 할 수 있을것 같아서였다.

〈계 속〉

한국관
연중무휴
오전11시 새벽1시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회의실 마련
봉사합니다.
최고의 음식, 저렴한 가격, 성심성의껏, 염가로
단체손님 환영,
결혼피로연등 회의실 60석, 각종회의석 준비,
531 0277
대표 나옥녀
한국관

한국일보 광고 문의처 533-2361

三國志 292

글·高羽榮·그림

O.K. Auto Body
Call 251-9889
Hee-Sam Kim Res. 242-4551
138 SIXTEENTH ST.
M8V 2K1
WE ACCEPT ALL INSURANCE WORK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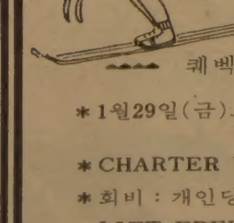
謹賀新年

교민 여러분께 새해인사 드립니다. 그동안의 지도편달에 감사 드리오며, 과거와 같이 계속 저희 미용실을 애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로마노미용실 / 헬 렌미용실 김조자

로마노 : 248 — 2957
헬 렌 : 741 — 7829

스키강습
접수마감 박두
선 착 순



퀘벡주의 가장 큰 명산 "세넹"으로

* 1월29일(금)오후6시정각출발(브랜돈 스포츠사 앞)하여 31일(일)귀환(2박3일)
* CHARTER WAY 버스여행 7시간
* 회비 : 개인당 $180(개인별로가면 $280 소요), 11세미만어린이 $50
* LIFT FREE, 강습료 FREE 이외에 스키대여료는 별도(하루$10정도)
* 일류 콘도미늄으로 부엌시설 완비(단 음식은 각자 지참해야함. 쌀, 밥솥 기타)
* 방은 3BED ROOM UNIT 사용할 예정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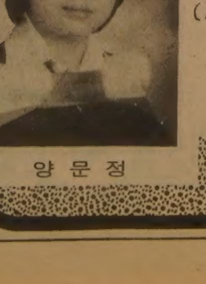
※자세한 문의는 : 598 — 3732(이건영), 533 — 2361(송광호)

주최 : 브랜돈스포츠사 · 한국일보 사

약국개업
WILLER'S PHARMACY

한국인 여자약사 탄생 : 양문정

★토론토대학 약학과 4년졸업.
★1년간 실습을 통해서 약국을 개업.
* 한국교민들께는 특별 가격으로봉사하겠읍니다.


양 문 정

1148 DAVENPORT RD.
(At Ossington Ave.)

전화 : 656 : 3351
656 — 3247

延着寒波…全國이 "꽁꽁"

「겨울속의 봄」 奇襲

서울中部 오늘 零下13~16도

내일 下午부터 서서히 풀려

내무부、각市道에 凍害예방 非常근무령

이상난동(暖冬)끝에 기습한파가 몰려왔다。거의 한달가량 봄날씨처럼 따뜻했던 우리나라의 날씨는 12일상오부터 갑자기 떨어지기시작、서울지방이 영하12·5도를 기록하는등 전국이 모두 영하권으로 곤두박질했다。

중앙기상대는 이번 한파가 동부 시베리아쪽으로 내려오던 북극기단이 몽고지방에있던 한대기단과합류하면서 북서계절풍을타고 갑자기 우리나라에 밀려왔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추위는 13일까지 계속、서울중부지방의 기온이 영하13~16도까지 떨어지고 濟州를 제외한 전지역이 계속 영하권에 맴돌겠다고 예보했다。

12일의 서울최저기온 영하12·5도는 예년보다 3도가 낮은것으로 濟州(영상2·3도) 釜山(영상2·4도) 忠武(영상1·7도) 麗山(영상0·6도)을 제외한 전국이 영하권에들었는데 겨울속의 봄같은 날씨끝에 이날 갑자기닥친 한파는 시민들의체감온도를 크게떨어뜨려 한층더 추위를느끼게 했다。

특히 기상대는 13일 서울지방의 최저기온을 영하6도로예보했는데 11일밤사이 고처 예보를하지않은채 12일상오부터 기온이 급강하、시민들을 당황케했다。

그러나 기상대는 13일 하오부터는 추위가 서서히 풀리기 시작、14일아침 최저기온은 예년과 비슷한 영하10도가 되겠다고 전망했다。

중앙기상대는 12일 상오10시를 기해 동해중부해상및울릉도 독도근해에 발효중인 폭풍경보를 폭풍주의보(예상최대풍속 남서~북서풍、14~20m、파고3~5m)로 바꾸고 남해중부해상에 발효중인 폭풍주의보를 이날 하오1시를 기해 해제했다。

한편 내무부는 영하10도이하의 한파가 계속될경우 수도관동파등 한파피해가 날것으로보고 동파예방을위한비상근무령을 전국시·도에내렸다。

◇나들이 할머니도 "호…호…"

봄같이 따스한 날씨가 오랫동안 계속되다 하루아침에 강추위가 몰아치자 시민들은 더욱 추위를 느끼는듯 중무장을하고 거리에 나섰다.

美선 영하53度

유럽엔 暴雨·海溢도

【뉴욕·런던11日UPI聯合】미국및 유럽은 11일 지난주말이래 계속되고 있는 최저섭씨 영하53도라는 전대미문의 한파로 최소한 59명이사망하고 일부지역은 폭설로교통·통신이 완전히 두절되는등 막심한 피해를 내고있으며 캐나다에서는 40여년만에 최악의 해일이 발생하는등 美대륙및 유럽지역의 기상이변은 날로 극성을 더해가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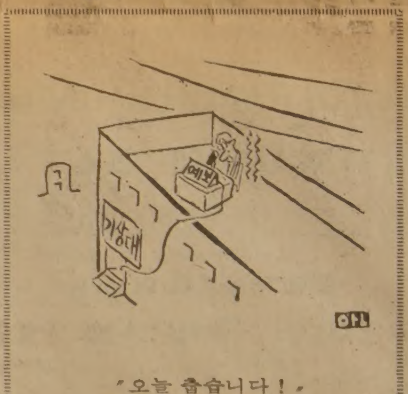
상황인데 당국은 이날까지 강추위에 27명이 사망했다고 집계했다。

유럽의 경우 폭설을 동반한 한파로 영국에서 14명、벨기에서 7명、네덜란드에서 1명이 각각 사망한것으로 전해졌으며 이밖에도 西獨 아일랜드 프랑스및 오스트리아등지에서는 공항이 폐쇄되고 철도·통신등이 마비되는등 소동을 빚었다。

계엄령이 선포돼 있는 폴란드도 이상폭우로 곳곳이 범람하고 있으며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정부가 재해대책위원회를 긴급구성하는등 비상대책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캐나다에서는 지난 40년래 최악의 해일이 발생、뉴펀들랜드 남부연안의 경우 평상수준보다 무려3·6m나 높은 파도가 해안지역을 강타했으나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는것으로 알려졌다。

社会漫評



"오늘 춥습니다!"

韓美문화交流委회의 25일開幕

워싱턴서 사흘간 「修交百年」 기념事業등 토의

韓美문화교류위원회 제1차회의가 오는25일부터 3일간 워싱턴에서 개최된다고 12일 서울과 워싱턴에서 동시발표됐다。

韓美두나라간의 기존문화교류와 80년대의교류幅을 더욱 확대하기위해 개최되는이번회의에는 정부측에서 盧載源외무부외교안보연구원장을 수석대표로하는 7명의 대표가、美側에서는 찰즈·위크국무성국제교류처장(次官級)을 수석대표로한 9명의 대표가 각각 참석했다。

이번회의는 지난해2월 韓美頂上회담에서 채택된 공동성명 합의사항(제11항)과 같은해 4월 盧信永외무장관과 글라이스틴前駐韓美대사간의 각서교환에 따른것으로 특히 韓美修交1백주년을 맞는 올해를기해 첫회의가 열린다는 점에서 중요한의의를갖는다。

따라서 이번회의에서는 修交日인 5월22일을 전후해서 집중거행될 양국수교 1백주년기념사업의 주요내용이 토의될 예정이며 이밖에▲韓美문화교류위원회의 목적과 기능▲학술교류▲문화교류계획등도 논의될 예정이다。

학술교류로는▲미국내 한국학진흥▲한국내 미국학진흥▲인사교류방안등이 거론되며 문화교류 방안으로는▲공연예술▲전시회및 박물관▲스포츠교류 증진등이 협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

韓美문화교류 위원회는 양국정부와 非정부기관대표로 구성되며 양측은 내년까지年1회、그 이후부터는 상호협의에 따라 수시로 정기회의를 개최토록 각서를 통해 합의한바있다。

이번 1차회의에 참석할 양측대표는 다음과 같다。

▲한국측=盧載源외교안보연구원장(수석대표)、盧昌熹駐美공사、崔淳雨국립박물관장、兪泰完駐뉴욕한국문화원장、玄鍾敏한국정신문화연구원교수、高範俊産學협동재단사무총장、金圭澤韓美수교1백주년기념사업 민간추진위사무국장

▲美側=찰즈·위크국무성국제교류처장(수석대표)、로버트·잉글랜드 서울=桑港자매결연위원、윌리엄·힐즈前레이건 대통령취임준비위원(女)、어렌느·퍼킨스、프레스턴·롱(공화당원)、프랭클린·폴로크(〃)、리처드·L·슈나이더前駐韓美대사、로버트·타이슨前레이건대통령취임준비위원、제임즈·보스前韓美경제협의회美側의장

ICAO議長에 全대통령이勳章

全斗煥 대통령은 12일하오 訪韓중인 국제민간항공기구(ICAO)理事會의 아사드·코타이테의장(레바논人)을 접견하고 修交훈장 光化章을 주었다。【사진】

離任 印尼대사接見

全대통령은 이에앞서 카하루딘·나수티온 駐韓인도네시아대사의 離任예방을받고 환담했다。

대통령영부인 李順子 여사도 같은시간에 나수티온대사부인의 예방을받고 환담을나눴다。

한반도有事時 美·日협력

스즈끼 消極자세

【東京12日=宋孝彬특파원】스즈끼일본수상은 12일 美日안보협의회에서 연구검토키로 합의한 극동유사시에 대비한 대책에 언급、이또(伊藤)방위청장관에게『이에관련된 입법은 외무성을 비롯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중히 하라』고 지시했다。

스즈끼수상의 이와같은 지시는『극동유사시 즉 한반도 유사시에 필요한 美日간의 협력문제에 있어 필요하다면 立法을 고려하겠다』는 이또장관의 적극적인 자세를 견제하기 위한것으로 풀이된다。

스즈끼수상은 또 일본은 해양국가라는 점에서 고슴도치식 방위정책에 알맞게 해상및 항공자위대를중심으로 방위력을 증강해야한다고 강조했다。

對蘇·波政經제재不辭

나토、史上 첫非常외상會談서 警告

【브뤼셀11日AP聯合】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는11일 폴란드위기가 소련의 책임이라고 비난하고 만약 폴란드의 군사탄압이 완화되지 않으면 소련및 폴란드에 대한 정치적·경제적 제재조치를 취할것이라고 경고했다。

폴란드사태를 토의하기위해 브뤼셀에서 나토33년사상 처음으로 비상회의를 개최한 나토15개국외상들은 이날 이틀동안의 회의를 마치고 발표한 16개항의 폴란드에 관한 선언에서 폴란드에 대한 소련의 직·간접 압력을 중단토록 요구하고 상품구매를 위한 앞으로의 對폴란드상업차관제공을 중단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한국統治죄악상 첫 폭로

日TV「日帝36年」시리즈 放映

【東京12日=聯合】작년말 한국의 문화방송(MBC)이 일본의모습을 비교적 사실대로 소개하는 프로를 방영함으로써『사상 처음으로 일본을 칭찬했다』고 일본에서 화제를 불러일으킨바 있으나 이번에는 일본TV가 일본제국주의의 한국통치와 관련된 죄악상을 파헤치는 프로를 방영하여 관심을 끌고있다。

일본TV는 11일밤 36年、한국과 일본이라는 1시간짜리 다큐멘터리 프로를 방영、강제연행과 노동、關東대지진당시의 대량학살、한국인징용·징병및 정신대동원、창씨개명등 일제의 비인간적 잔학상과 이에 희생된 한국인의 비참한 모습등을 생생하게 소개했다。

「식민지시대 36년의 역사·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진실」이라는 부제가 붙은 이프로는 한국과 일본의 생존해있는 희생자들의 증언을통해『지금까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감추어온 韓日간의 진정한 역사를 부각시키기위해 제작했다』고 방송측은 설명하고있다。

일본TV는 앞으로 5회에걸쳐 이프로를 시리즈로 방영할 예정인데 베를린올림픽마라톤에서 우승한 孫基禎선수가 한국인임을 강조하는 내용과 망향의 한을달래고 있는 사할린교포들의 모습도 포함돼있다고한다。

民社와 合黨문제

黨論결정안돼

李 新政사무총장

李沅衡 新政黨 사무총장은 12일하오 民社黨과의 合黨문제에 관한 성명을 내고『그간 民社黨과의 合黨교섭은 상호의견을 절충하는데 있었고 黨論으로 결정된바 없으며 금명간 중앙상임위원회에서 당의 운영과 진로에 대해 의결을 거쳐 결정、추진될것』이라고 밝혔다。

李사무총장은 성명에서『정치 정당은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는것이 민주정치·민주정당이므로 현재 소수정당이 이런상태로 존재하는 것보다 合黨하여 뭉치는것을 국민대다수가 바라고 있는것은 사실』이라고 말하고 최근 일부前·現職간부들의 탈당과관련『당내일부의 탈당소동은 경솔한 처사이며 이미 탈당한 몇사람의 선동에의한 행위이므로 중앙당으로서는 조금도 동요되는바없다』고 덧붙였다。

경기浮揚策 토의

어제黨政협의회 民正、代案제시

정부와 民正黨은 12일상오 중앙청에서 黨政협의를 갖고 경기부양책등 당면경제정책에관해 협의했다。

이날 黨政협의에서는 새해 각출범에 따른 경제정책방향과 주말께 정부가 발표할 경기부양대책등 종합적인경기활성화방안에관한 시행과 그대책이 폭넓게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權正達사무총장은 이날모임에서 民正黨은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관해 代案을 제시했으며 특히 안정기조를 지속하면서 경기를 활성화하는 정책이 강조됐다고 말했다。

정부측은 이날 民正黨과 협의한 결과를 토대로 경기활성화대책을 마련、고위층의 재가를 얻는 대로 금주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중앙청 후생관에서열린 이날 모임에는 民正黨에서 權正達사무총장、羅錫昊정책위의장、李鍾贊원내총무、黃炳晙정책연구소부소장이、정부측에서는 金俊成부총리、羅雄培재무、徐錫俊상공、金宗鎬건설、鄭宗澤정무제1장관이 참석했다。

動資部 자문위원 5명 追加로위촉

동자부는 朴鳳煥、柳陽洙、梁潤世전동자부장관、劉珏鍾전동자부차관、黃基燁씨(漢大교수)등 5명을 정책자문위원으로 11일 위촉했다。

이에따라 동자부정책자문위원은 78명으로 늘어났다。

한국化學연구소장 蔡永福박사를任命

과학기술처는 12일 제3대 한국化學연구소장에 蔡永福박사(사진·45·한국과학기술원응용화학연구부장)의 선임을 승인했다。

구독신청은 533-2361

地平線

서울의 洞名이 바뀐다。행정편의 위주로 숫자나열식이던 서울의 洞名이 각지역의 옛이름、하천·산등 지형지물의 명칭、그고장출신위인의 아호를 따라 새로 제정된다는것이다。

洞은 원래 空、또는 洞穴을 뜻했다。나중에 里、村과 같은 마을의 의미로 쓰이게되었고 골짜기를 말하기도 했다。▼서울의 洞은 1894년 甲午改革이후 漢城府에 5署47坊288契775洞을 둔데서 行政區域으로 처음쓰였다。지금의 洞은 옛날 洞보다는 坊에 가깝다。이번에 서울시당국이 시민생활편의와 행정혼란을 덜기위해 만든 洞名改編案에 따르면 新林本、1~11洞은 옛이름인 蘭谷등의 이름을 되살리고 奉天本、1~10洞은 殷川、南龍같은 옛하천이름을 활용한다는것이다。1394년 李太祖가 한양에 성을쌓고、성안을 都城、성밖10리까지를 城底로 삼았을때를 생각하면 지금의 新林·奉天洞은 城底보다 더 먼 고장이었으니 서울이 그만큼 커진 것을 알수있다。城底에서는 나무를 베거나 埋葬이 금지되었는데 말하자면 지금의 그린벨트인 셈이었다。城底 10리선에는 돌표지를 세웠고 5리에도 定界標가 있었다。貞陵의 淸水莊 근처에서 5리石標가 발견된 일도있다。▼東署의 城內坊은 蓮花、昌善、建德、崇信、崇敎가 속했고 城外坊으로 崇信、仁昌坊이 있었다。崇信은 城內와 城北坊이 따로있었다。西署엔 城內에 仁達、餘慶、積善、養生、皇華、城外에 盤松、盤石、龍山、西江、中署엔 瑞麟、堅平、慶幸、澄淸、壽進、長通、貞善、南署엔 廣通、會賢、明禮、太平、薰陶、樂善、誠明、明哲이 城內에、漢江、屯芝、豆毛가 城外였다。그리고 北署엔 順化、俊秀、通義、觀光、安國、鎭長、嘉會、陽德이 城內、城外엔 常平、延恩、延禧坊이 속했다。▼일제시대에 들어가 京城府로 불릴때 성내엔 동서남북중 5部를 두었다。성밖은 龍山、西江、崇信、豆毛、仁昌、恩平、延禧、漢芝 8面으로 나뉘었다가 일부만 京城府에 편입하고 나머지는 高陽郡으로 이관됐다。서울에 洞名대신 町이니 丁目이니하는 일본식이름이 한때 붙여졌다。1943년에 이르러 部가 區로바뀌고 다음해 연희면이 마포구로 편입됐다。해방후에 町이 없어지고 洞이 되살아나면서 [illegible]·숭인면·은평면·시흥군의 道林里·番大方里·九老里가 새로 서울에 들어왔다。▼우리의 옛이름을 살려 洞名을 찾자는 洞名改編작업이 1洞이니 2洞이니하는 것보다 훨씬 부드럽고 외기쉬워 주민들의 환영을 받을것은 당연하나 그뜻과 내용을 널리알려 단계적으로 차분히 [illegible] 여유가 있어야 효과는 클것같다。뒤늦게나마 행정당국이 우리 옛이름찾기에 [illegible] 반갑기 그지없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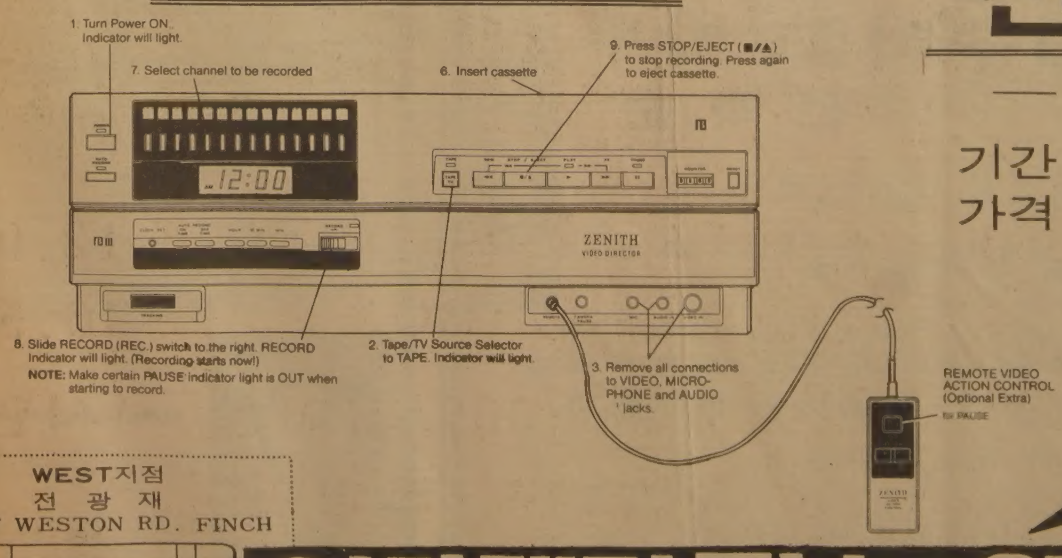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신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제니스 비데오



신년세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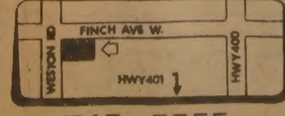
— 제니스 비데오 —

기간 : 82년 1월말까지

가격 : $969.00(REMOTE CONTROL 포함가격)

ZENIT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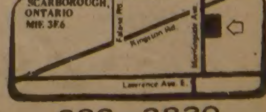
WEST지점
전광재
3467 WESTON RD. FINCH



745-5555

아카데미 T.V.& STEREO CO.

EAST지점,
김정운, 전병걸
255 MORNINGSIDE AVE.



282-2820

中共、폴란드軍政 支持

黨中央委"중요敎訓연구"권장

"帝國主義가 사태악화" 對波경제援助도 계속

自國內의「자유勞組病」확산우려 日 共同통신보도

【北京11日UPI=聯合】중공은 폴란드정부의 자유노조탄압을 지지하면서 폴란드정부에 경제원조를 제공하고있다고 日本 共同통신이 11일 보도했다。교오도통신은 이날 중공당중앙위원회가 고위및 중견관리들에게 배포한 폴란드사태에관한 한 문서를 인용, 이같이 말했다。

이 통신은 黨중앙위문서가 당원들에게 폴란드사태를 중요한교훈으로 연구할것을 권장하고 있으며 폴란드정부에 경제원조를 계속하고 있음을 시인했다고 말했다。

이 문서는 또 폴란드사태의 원인으로 뇌물수수와 경제실책을 지적하면서 국제제국주의자들이 사태를 악화시켰다고 말한 것으로 교오도통신은 덧붙였다。

중공당국은 폴란드의 계엄선포이후 내정간섭을 원치않는다는 이유로 폴란드사태에 대한 공식성명에서 신중한 중립자세를 유지해왔다。

중공은 자유노조의 활동을 지지할 경우 중공내의 노조활동이 활성화돼 폴란드에서와 같이 공산당의 통제력이 약화될것을 우려하고 있는것으로 믿어진다。

◇설탕값 引上시위…불타는 수단市街
설탕값 62·5%인상에항의, 시위가벌어진 지난3일 남부 카르툼소재人民市場이 불타고있다。이화재로 2백개의 상점이 불타고 그밖에많은상점들이 약탈당했다。오른편연기속의 표시는 수단통신의 직인이다。【카르툼11日AP電送=聯合】

蘇、자유노조 解體촉구

波에 38억弗 借款조건

【본11日AP=聯合】소련은 폴란드에 추가경제원조를 제공하는 전제 조건으로 자유노조의 해체를 폴란드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서독의 게네랄·안차이거紙가 11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익명의 서독정부소식통들을 인용, 소련이 폴란드에 38억달러의 차관을 제공하기앞서 자유노조의 해체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신문은『이 사실이 본에서는 아주 신빙성있는 정보로 여겨지고있다』면서 소련의 이러한 요구가 사회적 타협을 모색하려는 폴란드정부에게 큰 압력이 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은 자유노조가 해체된 것이아니라 단순히 활동정지상태에 들어간것이며 계엄령해제후에는 자유노조가 다시 활동할 여지가 있을것이라고 말한것으로 인용 보도되어왔다。

對臺灣 最新무기제공 拒否

美國務省성명

【워싱턴11日AP=聯合】레이건美행정부는 對臺灣무기판매에 따른 미—중공관계의 악화를 우려, F16·F5G機등 최신형 전투기를 제공해달라는 臺灣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국무성이 11일 발표했다。

앨런·롬버그국무성부대변인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레이건행정부가 오랫동안 對臺灣최신형전투기판매의 타당성여부를 검토한 결과『臺灣에 이같은 최신형전투기를 제공해야할 군사적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臺灣정부의 판매요청을 거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롬버그 부대변인은 그러나 臺灣이 美노드롭항공사와의 합작으로 국내에서 F5E機를 계속생산할수있도록 허용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美행정부가 臺灣이 자체방위력을 유지하기에 충분한 군사장비를 제공한다는 기존의 정책에 높은 가치를 부여해 왔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臺灣의 자체방위력유지에 필요한 군사장비를 계속 판매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레이건 대통령이 지난80년 대통령선거 유세당시 親臺灣공약을 내걸었음에도 불구、臺灣의 미제최신형전투기판매요청을 거부한것은 對臺灣관계보다 새로 정립된 미—중공유대관계를 더욱 중시하고있음을 對내외적으로 보여준것으로 평가되고있다。

第3국서 구입할듯 臺灣、美拒否결정에

【臺北12日UPI=聯合】자유중국관리들은 12일현재 臺灣에 최신제트전투기판매를 거부키로한 레이건 미행정부의 결정에 대해 아무런 공식반응도 보이지 않고 있으나 정통한 소식통들은 자유중국정부가 미국이외의 다른나라들로부터 최신예항공기를 구입할지 모른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들은 미국의 이같은 결정으로 자유중국이 이스라엘이나 프랑스로부터 제트전투기를 구입하는 문제를 신중하게 추진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나는 이렇게 生還했다

飛機추락 말聯外相 추위·허기에떨며 30시간 버텨

【콸라룸푸르12日AP합동=聯合】비행기 추락에서 극적으로살아남은 탄·스리·가잘리·샤피에 말레이지아 외상(60)은 비행기가 땅에 곤두박질하는 순간 재빨리 안전벨트를 푼 다음 비상구를열고 정글속으로 뛰어내렸다고 밝혔다。

샤피에외상은『구름사이로 나무들이 눈앞에 나타나는순간 나는 머리를 앞으로쳐박고 두손으로 감쌌으며 이젠 죽었구나 생각했다』고 추락순간을 말했다。

『추락당시 아찔했으며 마음속에는 오직 탈출해서 구조되었으면 하는 생각뿐이었다』고 그는 덧붙였다。

그는 수리한 세스나기의부조종사가 사고직전 비행고도문제를 놓고 의견충돌을 일으켰다고 말한것으로 콸라룸푸르의 신문들이 12일 보도했다。

추락사고 발생30시간만에 경찰구조대에의해극적으로구출된 샤피에외상은 사고당시 세스나206기를 조종하던 자신은 비행기의 고도를 1천50m로 잡는것에 반대했으나 비행교관이며 부조종사인 베르기스·차코가 이를고집, 조종간을 잡았다고 밝히고 그로부터 수분후 구름사이로 정글의 상단부가 갑자기 나타났다고 말했다。

◇추락機서 극적 구출…말聯 外相
지난10일 콸라룸푸르근교 정글지역에서의 비행기추락사고후 극적으로 구조된 가잘리·샤피에말레이지아외상(중앙)이 헬리콥터편으로 콸라룸푸르에 도착 마중나온 사람들의 부축을 받으며 내리고있다。【콸라룸푸르11日AP電送=聯合】

나의 이력서

〈題字 元一漢〉

元一漢 ㉜

해밀턴 캠퍼스 時節

미국대학에서는 무슨 과에 다니냐고 묻는다면 대답이 곤란하다。해밀턴의 경우 졸업하기까지 1백17～18학점을 따도록돼있다。이중 전공과목은 24학점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교양과목이다。크게는 인문사회계·자연계·언어계로 나누어 1·2학년때는 각계열에서 반드시 한과목이상을 이수해야하고 3·4학년때는 두계열에서 과목을 택하도록 돼있다。그러므로 무슨科를 전공했느냐는 교수에게 해당될뿐 학생이 무슨科를 졸업했다고는 말할 수 없다。전공과목은 있으되 科졸업은 아닌 것이다。

나의 전공은 교육학이다。그렇지만 延禧전문학교에서는 영어강의를 주로 맡았다。

우리학교에서의 시험은 철저히「HONOR SYSTEM」으로 무감독제였다。

감독없이 시험을 치러도 커닝하는 학생은 한사람도 없었다。무감독시험제로 내 스스로「커닝을 하지않는다」와「다른 학생이 커닝할 경우 이를 보고한다」는 의무가 주어져 있었다。이 두가지 의무는 잘 지켜졌다고 볼수 있다。

어느학기엔가는 라틴어와 희랍어가 얼마나 어려운지 그만 학점을 따지 못해 외가가 있는 미시건주에가서 여름학교에 다닌일이 있다。

이때 잊혀지지 않는 일은 외사촌과 밤에 킹스턴 변두리 호수에 나가 개구리잡던 추억이다。호수가 갈자리에 많이 모여있는 개구리들은 플래시만 비추면 꼼짝못해 잡기가 매우 쉬웠다。

개구리를 다 잡고나서 나는 외사촌형의 부인과 먼저 집으로돌아와 요리할 준비를 하고 형을기다렸다。그러나 막상 잡은개구리를 차에싣은 외사촌형과 그의친구는 여러시간 지나서야 돌아왔다。

그들의 이야기는 나와 형수는 개구리 고기를 먹을것 같지 않아 다른데가서 요리해 먹고 오는 것이라고 했다。그때는 개구리요리를 먹지 못한 것이 퍽 분하게 여겼었으나 지금까지도 나는 개구리요리를 입에 댄 일이 없으니 한편 다행스러웠다고 생각하고 있다。

내가 다닐때의 뉴욕 해밀턴대학은 남자만 뽑을때였다。여자만 다니는 대학은 우리학교와 80㎞가량 떨어져 있었다。단체미팅이 있을때는 그곳까지 원정을 가야했다。

커닝 전혀없는 無監督試驗

◇해밀턴 캠퍼스의전경。맨왼편 가운데에 기숙사가있고 위편에 보이는 것은 커클런드여자 대학校舍。내가 다닐때는 없던 건물이다。

당시는男學生뿐…미팅땐 80㎞떨어진 女大까지 원정

해밀턴대학을 세운 사람은 미국북장로교 커클런드 목사였다。18세기 말엽에 이지방 인디언들을 교육시킬 목적으로 설립했다。정식대학으로 출범한 것은 1812년의 일이다。물론 그때부터 인디언아닌 일반공모로 학생을 뽑았다。

알렉산더·해밀턴은 미국독립운동에 큰공을 세운 사람이고 재정책임자였다고 한다。캠퍼스 중앙에는 그의 동상이 세워져 지금도 전해내려온다。

실제 설립자인 커클런드의 이름을 딴 학교는 제2차 세계대전후 여학생만 모집하는 학교로 해밀턴 캠퍼스내에 세워져 15년가량 유지되다가 해밀턴 대학으로 흡수되었다。이때부터 해밀턴대학은 남녀공학이 됐다고 볼수있다。

내가 다닐때의 학생수는 5백명가량이었는데 지금은 1천5백명가량이고 남녀 비율이 꼭 절반씩이라고 듣고있다。

지금 학생들은 80㎞떨어진 거리까지 원정을 가지 않아도 될것 같다。그러니까 해밀턴 대학은 설립 1백50년 가까이 돼서야 남녀공학이 된 셈이다。

나는캠퍼스안에서만 지낸 우물안 개구리였지만 대학입학해서 처음맞는 1월1일 새벽을 뉴욕시 중심가인 타임스퀘어 광장에서 맞이한 일이 있다。

다른때 같으면 가족들끼리 조촐하게 아니면 예배당에서 맞이했을 것이나 이때만은 친구들과 어울려 타임스퀘어 광장에 나갔다。0시 정각이되자 광장에 나와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일제히 만세를 불렀다。

수십만명이나된 무리속에 섞인것은 처음이고새해를 뉴욕 한복판광장에서 맞이한 것도 처음이었다。

性教育 지침서 마련

교복 自律化따라 바른異性觀 심게

서울시교위는 증가추세에 있는 성비행(性非行)을 방지하고 학생들에게 性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어 자연스러운 이성교제가 이루어질수 있도록 하기위해 교사용「성교육 지침서」를 만들기로 했다。

11일 시교위에 따르면 이번 성교육지침서 제작계획은 내년까지 학생들의 두발및 복장이 완전자율화됨에 따라 남녀학생간의 교제방식도 크게 개방되고 교제횟수도 빈번해질것에 대비、이들의 이성관을 올바른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 세워진 것이다。

이에따라 시교위는 서울교육연구원의 연구진과 일선학교 교도교사 교육학자 의학자등 전문가로 제작팀을 구성、중·고생들에게 맞는 지침서를 연내까지 만들어 복장까지 자율화되는 내년 신학기부터는 각학교에서 특별활동시간등을 통해 학생들에게 일관성 있는 성교육을 시킬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적설기 雪嶽山 산악인 超滿員

【東草=聯合】연초 3일간 평균 30㎝의 눈이내린 국립공원 雪嶽山에 한국등산학교를 비롯한 15개팀 2백42명의 산악인들이 찾아와 적설기등반으로 은령을 누비고 있다。

대한산악연맹의 겨울등산학교(교장 權孝燮)가 9일문을 열고 산악교육에 들어간 것을 비롯, 弘益大산악반(22명)、釜山카메라트(11명)등 경향각지의 15개팀 2백42명의 산악인들이 때맞춰내린 눈속에서 땀을 흘리고 있다。

이들은 大靑峰(해발1、708m)을 중심으로 土旺城·설악골·權金城등 외설악일대에서 적설기 등반훈련에 열중하고 있는데 특히 겨울등산학교에는 올해 처음으로 자유중국에서 온 알피니스트 지망생 10명이 참가、한국의 산과 겨울을 익히고있다。

◇30㎝의 적설량을 보인 설악산에는 경향각지의 산악인 15개팀 2백42명이 찾아와 적설기 동반훈련에 땀흘리고 있다。

메아리

日本TV의 良識

일본의 민간TV방송인「日本TV」가 일제36년의 다큐멘터리·프로를 지난 11일밤 1시간에 걸쳐 방영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충격을 주었다는 소식이다。

이 시간에 방영된 내용은 일제가 우리나라의 청장년들을 강제로 끌고가서 고된 노동을 시킨 사실이라든가 관동지방에 대지진이 일어났을때 우리 교포들을 아무 까닭없이 닥치는대로 대량 학살했던 비인간적인 만행을 비교적 정확하게 담고 있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우리 청년학도들을 그들의 침략전쟁을 위한 총알받이로 내몰았던 학도병과 또처녀들을 정신대라는 미명으로 일선지구 위안부로 동원했던 사연이며 우리말과 글을 빼앗고 심지어는 성씨까지도 이른바「창시개명」케 했던만행을 샅샅이 파헤쳤다 한다。

이제 우리는 일제의 발굽아래 있었던 세월보다도 더 오랜시간이 흐른 오늘날까지도 결코 나라를 빼앗긴 쓰라린 역사의 치욕을 저버려서는 안되고 또 거기서 얻은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퇴색시켜서도 안되나 그렇다하여 너그러움을 베푸는데 인색해서는 더더욱 안된다는것을 누구나가 다 알고있다。

그런데도 정작 일본에서는 그 프로의 부제처럼「식민지시대 36년의 역사—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았던 진실」에 대해서 이제야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점에 우리는 주목하지 않을수 없다。

그 프로를 방영한 방송국측이「지금까지 일본에서 의도적으로 감추어 온 한일간의 진정한 역사를 부각 시키기 위해 제작했다」고 설명한것이나 또 방송도중 해설자가「이처럼 비인간적인 죄악을 저지른 것이 먼 옛날의일이 아니며 바로 우리네 아버지세대가 한짓」이라고 말한데서 우리는 일본의 당대사회가 보여준 그 스스로의 역사에 대한 객관적인 개안에 관심을 갖게된다。

특히 일본 각급학교의 교과서마저 이같은사실을 일부러 외면하고 있는 풍토 속에서 일본안의 한 민간방송회사가 보여준 식견과 양심은 우리에게 보다도 되려 일본 사회에 대해서 그들안의 도의적인 복원력이 잠재해 있음을 보여주었다는데 더 큰 뜻이 있다 할것이다。

인사이드

美고위층 SOS默殺 통신체제「완전한구멍」

푸에블로號사건 부커艦長

"당시 軍法會議 바랐다"

◇부커前함장

지난68년 北傀에 나포됐던 美해군 푸에블로號의 로이드·부커함장은 사고당시 백악관과 미군부지도층의 구조작업이 실패로 끝난데 미심쩍은 부분이 있는것으로 보고 이를 규명하기위한 공개군법회의 소집을 원했었다고 11일 밝혔다。

부커전함장은 군법회의가 열릴경우 자신이 元山灣에서 푸에블로호가 북괴군함들에 의해 궁지에 빠져있다는 타전을했을때 미군통신체제에「완전한 구멍」이 뚫려있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밝혀낼 수 있을것이라고 주장했다。

부커씨는 사고당시 구조요청을 한직후 오끼나와(沖繩)주둔 美공군사령관은 북괴전함들을 공격하기위해 F5전투기 1개편대를 출격시켰었다고 회고했다。

『그러나 전투기 편대가 재급유를위해 한국에 착륙했을때 기지귀환명령이 떨어졌다』고 그는 지적하면서 귀환명령은 최고위층에의해 이루어졌으며 그중에는 백악관및 합참본부인사들이 포함돼있었다고 주장했다。【포웨이=UPI】

지난 8일로 80回 생일 한때 스탈린後繼者지목

蘇말렌코프…記憶밖의人物 쓸쓸한 餘生

◇말렌코프

◇몰로토프

◇카가노비치

요즘 모스크바의 강변을 거닐다보면 퉁퉁한얼굴과 작고 단단한 몸집의 낯익은 노인을 종종 만나게된다。

게오르기·말렌코프。한때는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의 후계자로 지목됐던 그는 25년전 흐루시초프와의 권력투쟁에서 밀려난뒤 세인의 기억속에 묻혀버린채 지난8일 80회 생일을 맞았다。

말렌코프는 수상겸 외상이었던 비체슬라프·몰로토프、중공업상을 지냈던 라자르·카가노비치와 함께 스탈린을 보좌하는 3인조를 형성하고 있었다。

몰로토프는 금년 91세。나이에 비해 아주 정정한 것으로 알려진 그는 크렘린근처의 지방에서 편안한 여생을 보내고 있으며 지난 30년대 국가건설계획에 숨은 브레인으로 크게 활약했던 카가노비치는 무더운 여름날 저녁이면 때때로 모스크바에 있는 그의 아파트에서 나와 이웃들과 함께 도미노게임을 즐기며 소일하고 있다。

그의 나이는 금년 89세。

모스크바당국은 과거와 현재를 통해 국가에 공헌한 공직인사들에 대해 그들의 10단위생일때마다 관영언론에 찬사를 게재하는 것을 관례로 삼고있다。

그러나 지난80년 몰로토프의 90회생일을 맞았을때 당국에서는 이에대한 아무런 공식언급도 하지않았으며 지난 8일 말렌코프의 80회생일때도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이들 세사람은 모두 정부가 지급하는 평균연금액인 4백루블(5백64달러)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지급받고 있는것으로 알려지고있다。【모스크바=聯合】

삼복식품 ❀ 신년세일

● 경기미 쌀(20kg) $22.50
● 전감(통태, 1BOX) $25.—
● 한국산참기름 $ 7.99
● 사꾸라 우동 1BOX $12.95
● 물오징어 1BOX $16.50

※이외에 100달러이상 사시면 5% 할인해 드립니다.

2437 FINCH AVE. W 전화 : 743—8270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連載漫畫

"그 허브·우들리란자가 날 약올렸어!" "자기가 나보다 돈을 더 많이 버는척 하잖아!" "하지만 사실 그사람이 당신보다 돈을 더벌잖아요" "알아…그게바로 내약을 올린거라구!"

조규력 종합보험
● 자동차보험
● 화재보험
● 상점보험
● 생명보험
233-6236
745-8236

本選진출 24팀확정
유럽13·南美3·阿洲2
월드컵축구

【런던10日聯=韓】오는 6월13일 스페인수도 마드리드에서 개막되는 프로축구 월드컵대회에 출전할 각지역대표팀들이 10일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의 뉴질랜드 선정을 끝으로 24개팀이 모두 확정됐다.

본선티켓을 따낸 나라를 지역별로 보면 유럽13개팀, 南美3개팀, 아프리카2개팀, 아시아·오세아니아2개팀, 北·中美및 카리브海지역 2개팀등 22개팀과 지난78년도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와 주최국 스페인을 합해 모두 24개국이다.

지난2년간 지역별로 실시된 예선경기는 전세계 1백3개국이 참가하여 3백5회의 예선전을 치렀으며 이중 월드컵사상 가장 큰 골차를 기록한 경기는 뉴질랜드와 피지간의 경기로 13대0으로 피지가 굴욕적인 참패를 기록했다.

한편 세계축구무대에 선을 보이기 시작한 中共은 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최종예선전에서 뉴질랜드에 2대1로 패배함으로써 탈락의 쓴 잔을 마시고 말았다.

이번에 처음으로 본선진출권을 따낸 국가는 뉴질랜드를 비롯, 쿠웨이트 알제리 카메룬 온두라스 등 5개국이다.

오는 6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월드컵대회에 출전하는 24개국은 다음과 같다.

▲개최국=스페인 ▲지난번 우승국=아르헨티나 ▲유럽(13개국)=오스트리아 벨기에 체코슬로바키아 英國 프랑스 헝가리 이탈리아 北아이레 폴란드 스코틀랜드 蘇聯 西獨 유고슬라비아 ▲南아메리카(3개국)=브라질 칠레 페루 ▲아프리카(2개국)=알제리 카메룬 ▲아시아·오세아니아(2개국)=쿠웨이트 뉴질랜드 ▲北·中아메리카및 카리브海(2개국)=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스페인으로 옮겨져
3百50만달러의 純金「월드축구컵」

【마드리드9日AP=聯】시가 3백50만달러상당의 순금으로 만든 「월드축구컵」이 9일 지난78년도 우승국인 아르헨티나에서 금년도 개최국 스페인으로 옮겨졌다.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의 비토·토르토렐리씨는 이날 우승컵을 스페인보안경찰에 정식 인계했는데 경찰당국은 이 트로피를 대진추첨이 실시되는 오는16일 하루만 일반에게 공개한뒤 월드컵대회가 끝날때까지 스페인 은행에 보관시킬 방침이다.

우승트로피는 이날 마드리드에 도착한 후 곧 기자들에게는 잠시동안 공개가 됐다.

금년도 월드컵축구대회는 오는6월13일부터 7월11일까지 한달간 각지역예선을 거쳐 올라온 24개국의 강호들이 참가한 가운데 마드리드에서 열리며 우승팀에게는 환·카를로스국왕이 직접 대망의 「월드컵」을 수여한다.

冬季國體스키 2월18일부터

대한체육회는 제63회 전국체전 동계스키대회를 오는 2월18일부터 20일까지 龍平스키장서 갖기로 12일 결정했다.

한편 86년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한 연수교육이 18일부터 주4회에걸쳐 매일 하오5시부터 1시간 동안 실시된다.

영어와 불어등 두 종류의 외국어 연수교육은 대한체육회와 가맹 경기단체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된다.

海外유학생 6명 省谷재단서 선발

省谷言論文化재단은 운영위원회를 열고 82~83년도 제17기해외유학생 6명을 선발, 발표했다.

▲美國(콜롬비아大및 미주리大)=姜相潤(코리어·헤럴드 경제부차장) 崔東祐(聯合通信 체육부장) 李仁珩(釜山日報 외신부장) ▲홍콩(홍콩大學)=韓德燦(大邱MBC방송위원) ▲프랑스(파리大學)=趙鏞守(KBS국제국해외부차장) ▲日本(慶應大學)=馬貫彦(朝鮮日報사회부장대우)

87년 世界卓球 서울誘致

崔元碩 대한탁구협회 회장은 오는 87년 제39회 세계탁구선수권 대회를 서울에 유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崔회장은 12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1월 국제탁구연맹 사무국에 이미 세계대회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으며 내년4월 東京에서 제37회세계대회와 함께 열리는 국제연맹총회에서 최종 결정이 내려진다고 말했다.

87년대회개최후보지로는 서울외에 印度·英國·헝가리등이 있으나 85년대회가 스웨덴 고텐버그에서 열리게돼 대륙간격년제개최의 전통에따라 87년대회개최지로 서울이 가장 유망하다.

印度는 77년 이미 세계대회를 유치, 한국에 87년대회개최권 양보를 시사한바 있다.

崔회장은 또 금년2회째를 맞는 서울오픈대회를 12억원의 예산을들여 8월25일부터 31일까지 잠실종합체육관에서 열며 2월중에 국제연맹등록 1백26개 전회원국에 정식 초청장을 발송하겠다고 말했다.

서울 오픈대회는 남녀단체전(4단1복식) 개인단식、복식·혼합복식의 7개종목 경기로 진행되며 총상금 5만달러(한화 약3천5백만원)가 걸려있다.

崔회장은 86년 아시안게임과 88년 서울올림픽에 대비해 협회기구를 강화하고 금년초 중학선수로 남녀20명씩의 상비군을 구성, 합숙훈련을 실시하며, 올림픽개최전까지 1백명의 국제심판을 확보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崔회장은 88년 올림픽에는 개인단식은 물론 단체전을비롯한 탁구의 전종목이 채택되도록 힘쓰겠다고 말하고, 특히 국산용구(탁구대·공)로 국제대회를 열수있도록 생산업체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행정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24일來韓…邦畵출연
「전투」의 不死身 분대장 빅·모로

◇「전투」의 빅·모로가 邦畵「아벤고 공수군단」에 출연하기 위해 24일 한국에 온다。

「전투」의 불사신 분대장 빅·모로(53)가 한국영화출연을위해 24일내한한다. 宇進필름이 6억원을들여 제작하는 동시녹음 대작전쟁영화 「아벤고 공수군단」(감독 林權澤)의 부대장 알렉산더 대령역을 맡아 출연한다.

날카로운 눈매와 오뚝한콧날, 잔인한 일면까지 보이는 빅·모로는 국내팬들에게는 낯익은 미국배우. 75년 KBS TV를통해 방영된 TV시리즈영화 「전투」에서 용맹스러운 손더스중사로 분했고 「뿌리」에서는 노예감독역을맡아 국내에도 얼굴이 소개됐다.

빅·모로의 영화출연은 오는26일부터 20일간으로 예정돼있는데 부인과 개인비서이자 여배우인 마러·스미드、매니저가 동행한다고. 출연료는 본인의 요청에따라 극비에 붙여졌다.

그가 출연하는 邦畵「아벤고 공수군단」(Avengo)은 6·25당시 仁川상륙작전을 은폐하기위해 元山위장공격을 맡았던 특수부대의 활약을 그린 실화. 「아벤고」는 부대장인 알렉산더대령、벤타폴소령, 우리나라 高중령의 이름 중 첫자를 따낸 부대명이다.

제작사인 宇進필름은 당초알렉산더대령역으로 앤터니·퀸을 내정, 출연교섭을 벌였으나 너무나 많은 개런티를 요구해와 결렬됐었다. 그후 리처드·위드마크등에게도 출연을 제의했으나 이뤄지지 않았다.

한편 한국영화출연은 물론 처음으로 한국을 찾는 빅·모로는 현지에서 『한국에 가는 것은 처음이지만 한국을 어느정도 알고있다. 특히 한국전쟁은 영화와 전사를 통해 많이 알고있다.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마음가짐으로 영화에 출연하겠다』고 밝혔다.

李永河 대회新 수립
會長旗氷上 대체로 記錄부진

◇여중 5백m에서 崇義中 金英玉이 골인지점을향해 대시하고있다。

제12회 회장기쟁탈 전국남녀 빙상경기대회가 12일 태릉국제스케이트장에서 개막, 첫날 경기에서 노장 李永河만이 대회신기록을 올렸을뿐 전반적으로 기록이 저조했다. 李는 남자일반부 3천m에서 종전기록을 17초96 앞당긴 4분36초07을 기록했으나 지난76년 세계주니어선수권대회서 자신이 수립한 한국최고기록에는 14초29나 뒤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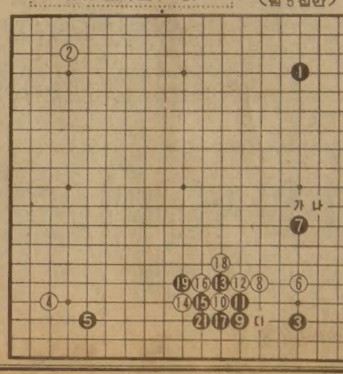
3천m 남대부서는 羅潤洙가 4분39초16으로 1위를, 5백m 여대부서는 李南順이 1위로 골인하는등 몇년간 빙상계를 주름잡던 노장급선수들이 각 종목 선두를 차지했으나 기록은 모두 저조했으며 이렇다할 신인도 등장하지 않았다.

◇첫날전적(종목별 1위) ▲남일반 5백m=任大在(일반) 47초95 ▲동남대=韓明燮(한국체대) 40초90 ▲동남고=朴萬燮(서울고) 42초20 ▲동남중=池鎭赫(휘문) 45초92 ▲동여일반=朴美子(외환은) 48초15 ▲동여대=李南順(강원대) 45초54 ▲동여고=李連珠(유봉) 45초81 ▲동여중=金英玉(숭의) 46초44 ▲여일반 1천5백m=朴美子(외환은) 2분34초69 ▲동여대=金일순(강원대) 2분58초79 ▲동여고=金賢娜(혜화) 2분28초54 ▲동여중=崔銀珠(의정부) 2분41초32 ▲남일반 3천m=李永河(대우) 4분36초07 대회신(종전 4분54초03) ▲동남대=羅潤洙(단국대) 4분39초16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1局第1譜 1~21 (각5시간 덤5집반)

白(5段) 張秀英〈3勝〉
黑(6段) 徐能旭〈3敗〉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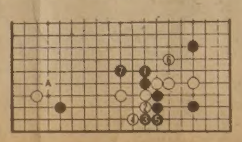
張5단의 3승은 그렇다하더라도 徐6단의 연속3패는 약간 뜻밖이다. 그중 姜勳4단과의 첫판은 너끈히 이길 바둑을 역전당한 것이었기때문에 애석해하는 이가 많은 모양이지만 좌우간 앞으로 1패를 더 하는날이면 애써 지켜오던 名人戰시드組에서 덧없이 탈락할 입장이다. 그래서 이바둑은 중요한 고비가 되는데 張5단에게는 지난해에 첫판을 진바도 있고해서 그 설욕을 겸하여 필승의 결의가 대단해 보였다.

全勝者와 全敗者

張5단은 이에따라 여유있는 자세이고 徐6단인즉 黑1、3에서 「가」혹은 「나」에 中共式을 펴려하다가(?) 一轉하여 黑5로 좌하귀를 걸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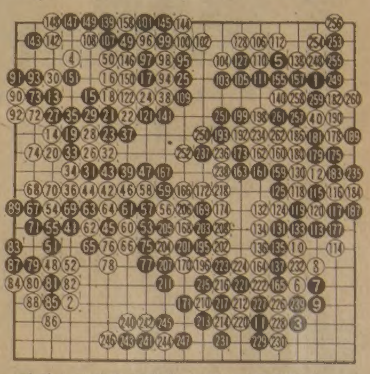
白도 우하귀를 6에 걸치더니 黑7 협공때 11자리에 응하지않고 8. 이럴경우 종전에는 黑9를 「다」의 곳에 한칸 뛰어 두었으나 요즘은 빨리 두게 되었다고 한다. 어렵기 때문이다. 黑9에 白이 다음수 13자리로 거듭뒤면 黑15로서 하변을 커다랗게 차지하는 것이다.

그래서 白10으로 써웠지만 黑은 11、13으로 일전불사의 태도. 이하21까지는 외길인데 白의 다음수가 어렵다. 수순중 黑15는 참고도와같이 黑1에 뻗어 7까지 두는것이 뒷날 黑「A」도 선수가 되어 유리하잖느냐는 평도 있었다. 20…10。【一凡】



第13期 名人戰 挑戰者決定리그

第10局 總譜 263手完 黑不計勝 (각5시간 덤5집반)



白(6段) 徐能旭〈0勝3敗〉
黑(7段) 徐奉洙〈2勝1敗〉

이로써 徐7단은 1승을 보태서 2승1패. 나머지 張秀英5단, 姜勳4단등에 전승하면 도전권을 딸수있게끔 되었다. 그러나 제10국을 끝낸 현재 張5단과 姜4단이 각3승0패로 선두를달리는 중이므로 徐7단은 自力과他力 반반을 기대해야되는 입장이다.

한편 徐6단은 驍將답지않게 3패를 기록하여 시드組 脫落이 문제화했다. 나머지3판은 河燦錫7단 哲民6단 張5단들과 대결하게 되는데 이에 전승하면 혹여 전년도준우승계로 시드組에 잔류할지 모르지만 1패라도 더하는날이면 4년간 걸쳐온 名人戰리그에서 밀려 떨어져야한다. 결과야 어찌됐든지 권토중래를 빌뿐이다.

이 바둑은 승패를 막론코 근자보기드문 力戰의譜, 시종일관 격렬한 대규모 전투로 불꽃 만점이었다. 白26의 缺陷手는 黑31의 好着으로 실패, 이로인해 열세가되었으나 黑은 좌변51、53이 과하여 白56이하93까지 白이 상당히 만회했다. 그뒤 黑97이하 101의 강수가 주효하여 이를 미끼로 우변에서 113이하 137까지 대득을 보았고 특히 139이하는 교묘한 버림돌 작전. 白196으로 201에 두었더라면 黑이 낙관할수 있었던 장면이다. 여하간 徐7단의 여전히 침착, 예리한 면을 보게된 바둑이라하겠다.

197、233…115、126、123、129、185、191、76、188、194、200…122、152、156、96、153、97、209、204、212、210、225、216、263、257。소비시간 黑1 37。白1…【一凡】

徐6段 脫落危機

流星의 賊 <287>
風雅와 策謀 ⑫
李炳注 作 李友範 畵

홍계남을 일본에 머물러 앉힐 수는 없다고 해도 그의 환심을 사두는게 나쁠 것이 없다고 생각한 소로리(曾呂利)는 고니시(小西)의 헌책(獻策)을 들어 히데쓰구(秀次)로 하여금 홍계남을 초청케했다.

정부사의 승낙을 얻어 홍계남이 히데쓰구의 저택으로 가며 히라또에게 물었다.

『히데쓰구란 어떤 자인가』
『풍신수길의 양자요』
『양자라니 어떻게 된 양자인가』
『수길에겐 아들이 없었소. 그래 그의 후계자로서 자기의 누님이 낳은 아들을 양자로 한거요』
『소문에 수길의 첩실이 아들을 낳았다고 하던데』
『그건 최근의 일이오』
『그럼 후계자가 될 수 없는것 아닌가』
『그렇겠지만 수길의 히데쓰구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니 그 권세는 계속 유지할 것이오』

히라또가 말한대로 히데쓰구의 권세는 대단한 것이었다. 그러나 인간으로서 장수로서의 기량은 부족했다. 홍계남은 자기 나이 또래의 이른바 수길의 후계자를 보자 풍신가(豊臣家)의 장래가 그다지 밝은 것이 못된다는 느낌을 가졌다.

히데쓰구의 내력을 대강 적어보면 다음과 같다.

수길의 아버지가 일찍 죽자 수길의 어머니는 지꾸아미(竹阿彌)라고 하는 사나이와 재혼했다. 지꾸아미는 성질이 과격했다. 그래 양부를 싫어한 수길과 그 누님은 집을 떠나버렸다. 수길은 이곳 저곳을 방랑하게 되고 그의 누님 오또모는 야스께(彌助)라고 하는 농부와 결혼했다. 히데쓰구는 야스께와 오또모 사이에서 난 아들이다.

그런데 야스께부부가 관지(關知)하지도 않은 곳에서 그들의 운명이 형성되어가고 있었다. 오또모의 동생 수길, 아명(兒名)을 원숭이라고 한 사나이가 욱일승천(旭日昇天)의 세로 출세했다.

어느날 수길이 야스께를 불러
『자형 대명(大名=領主)이 되시오』
하고 오하리노이누야마(尾張犬山)의 10만석 영주로 만들어버리고 이름까지 『미요시무사시노카미 가즈미찌(三好武藏守一路)』라고 지어주었다.

야스께의 아들 히데쓰구(秀次)는 성인이 되자 가와찌(河內)의 2만석 영지를 받았다. 싸움이 있을때 마다 수길은 이 조카를 동반하여
『열심히 하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하고 격려했다.

수길 주변의 사람들은 앞으로 히데쓰구가 수길의 후계자가 될 것으로 보고 모두들 그를 받들었다.

그런데 히데쓰구는 어떤 전투에서 엄청난 실수를 했다. 수길은 분노를 참지 못해 히데쓰구를 죽일 생각까지 했지만 혈연(血緣)에 약한 그는 히데쓰구를 계속 총애하여 벼슬을 올려주었다.

숙부 덕으로 벼슬이 오른 것을 몰랐을 까닭이 없지만 히데쓰구의 태도는 안하무인격으로 방자하게 되었다.

홍계남이 만났을 무렵의 히데쓰구는 그 방자함이 극도에 이르고 있을 때였다. 히데쓰구는 한칸 높은데 앉아 계남을 인견(引見)하는데 히라또가 계남더러 청하배를 시키려고 하자 계남은 분연 자리를 차고 일어섰다.

『상대방의 관작이 어떻든 나는 청하배를 할수가 없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8>
朴婉緒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⑧

수지네 외가에 머물러있던 친척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 위해 모조리 떠났다. 외가 식구들중에서도 젊은이는 미리 떠나고 외할머니와 수지네 네식구만 남게 되었다. 그렇다고 집이 빈 건 아니었다. 막판에 서울을 비운 피난민들이 물밀듯이 밀려와 남겨놓은 빈 방, 헛간, 추녀 끝 가리지않고 드새고 날 밝으면 떠났다. 외할머니가 끝까지 집에 남아있던 것도 그들 마지막 피난민들로부터 가산과 양식을 지켜보려는 집념때문이었다.

이런 북새통에 수지는 오목이 손목을 잡고 외갓집을 빠져나왔다. 어디나 사람들이 넘치고 있었다. 이고 지고 손수레를 끄는 사람들이 모두 같은 방향으로 끝없이 이동하고 있었다. 마치 격류(激流)처럼 더불어 흐르는 사람들의 방향을 감히 거스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빈사의 늙은이를 남의 집 추녀끝에 남겨놓고 떠난 식구들도 있었다. 엄마의 치마꼬리를 놓친 아이가 목이 쉬게 울부짖어도 한번 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다. 아이를 업고 보따리를 인 여자가 보따리만 이고 진 여자를 보고 무자식 상팔자라고 부러워하기도 했다.

수지는 이 모든 것을 눈여겨보며 오목이 손목을 잡고 자꾸만 집에서 멀어져갔다.

『언니야, 그만 집에 가자 배 고프다』
오목이가 불안한지 보채기 시작했다.
『조금만 참아. 언니가 떡도 사주고 엿도 사줄께』

수지는 오목이에게 살짝 돈까지 보여주며 달랬다. 먹을 것을 사준다는 바람에 마지못해 끌려오던 오목이의 발길이 씩씩해졌다. 그러나 곧 다시 보채기 시작했다.

『떡, 배 고파, 떡 어딨어? 엿장수도 없잖아?』
『조금만 참아. 그런 건 다 시장에 가야 있으니까. 곧 시장이 나올거야』

오목이의 발걸음이 다시 씩씩해졌다. 그러나 곧 또 보채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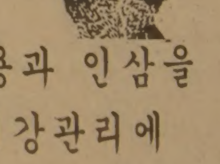
『언니야, 집에 가자. 배 고프고 춥다』

수지는 말 없이 자기가 입고있던 옷도리를 하나 벗어서 오목이에게 더 입히고 장갑까지 벗어서 덧끼워줬다. 그러면서 농촌을 벗어나 그들이 살던 서울처럼 길이 넓고 집들이 들어서있는 대처로 들어서게 됐다. 대처는 그 대처가 생긴이래 그렇게 많은 사람을 받아들여보기가 처음인듯 무질서와 아비규환에 속수무책인채였지만 그런 혼잡과 아우성은 어딘지 내리막길이었다. 왜냐하면 몰려든 피난민들은 잠시도 거기에 머물러있으려 들지않고 앞을 다투어 그곳을 벗어나 더 남쪽으로 내려가려들었고, 빠져나가는 수에 비해 몰려드는 수가 현저히 줄어들고 있었으니 말이다. 남쪽으로 내닫는 피난민들의 발길은 마치 사신(死神)의 차가운 손이 곧 덜미를 잡을 것처럼 황망해져 어떤 일에도 망설이거나 뒤돌아보지 않았다. 설사 피난보따리중 가장 귀한 거, 자기 자식을 빠뜨렸대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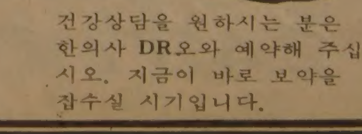
수지는 그 난리통에 식구를 잃은 아이를 여럿 보았다. 대처는 대처답게 그 난리통에도 떡장수도 있었고 엿장수도 있었다. 수지는 떡과 엿을 사서 동생에게 주었다. 오목이는 그것을 마구 먹어치웠다.

수지는 속주머니에서 작은 노리개를 하나 꺼냈다. 은으로 된 작은 표주박 모양에다 칠보를 입힌 것으로 수지가 돌때 찬 수염낭에 할머니가 달아준 서너가지의 노리개중 그때까지 남아있는 단 하나의 것이었다.

大中華藥材行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 ONT.
MAILING : BOX 5181
STN. A TOR. M5W 1A0
☎ : (416) 977-8858-9
10AM → 8 : 3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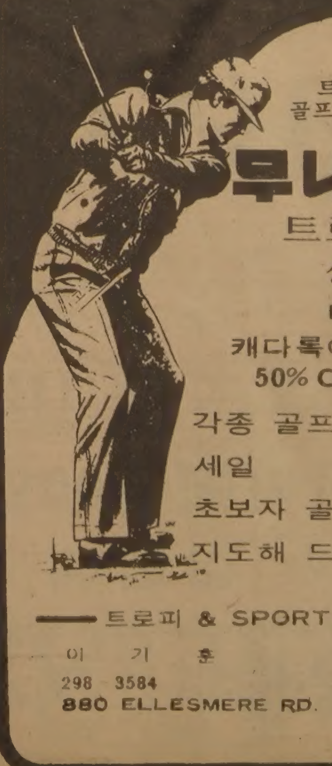


中國良藥 大量供應
녹용과 인삼을 건강관리에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동양인에게는 역시 인삼, 녹용처럼 좋은 약은 없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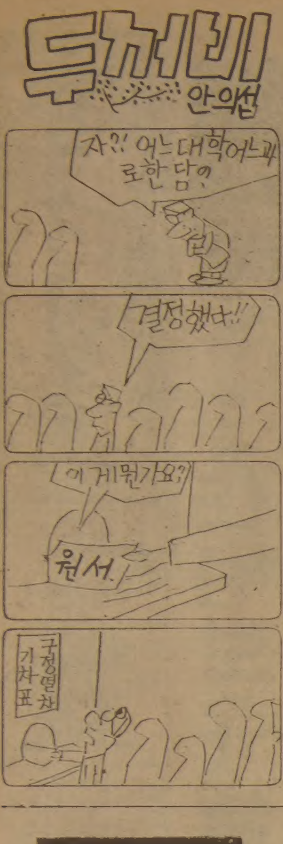


건강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한의사 DR오와 예약해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보약을 잡수실 시기입니다.

주식회사 황용현부동산
HWANG
謹賀新年
지난해 동안 여러분의 성원에 감사드리오며, 부디 여러분과 온가정이 즐거운 성탄 맞이하시고, 보다 밝고 행복된 새해 되시길 하나님께 기도드리 옵니다.
황용현 배
TOM HWANG REAL ESTATE LTD.
REALTOR
101 DUNCAN MILL RD., SUITE G5, DON MILLS, ONT.
TEL. (416) 449-8644, 8645(B), 286-1548(R) M3B 1Z3


트로피 골프 프로샵
무나미
트로피
상패
메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트로피 & SPORTS
이 기 훈
298 3584
880 ELLESMERE RD. UNIT 1

뉴서울
아늑한 분위기와
세련된 서비스
그리고
달콤한 음악은
뉴서울 만의
자랑입니다.
부인 모시고
친지들과 어울려
하루의 피로를 날려 버리세요.
밴드·가수·무용단 매일 공연함
연중무휴
장 소 : 오리엔탈 팰레스2층
주 소 : 529 BLOOR ST. W.
전 화 : 533-3545~6. 533-1500



65歲이상 버스料金 60원

鐵道(特急·보통)·地下鐵도 50%할인

交通部, 市外완행버스·연안旅客船도

65세 이상 노인에게도 오는 2월1일부터 시내버스와 철도·연안 여객선등 각종교통수단의 요금이 50%씩 할인된다.

교통부는 정부의 노인우대시책에 따라 지금까지 70세이상 노인에게만 주어오던 각종 교통요금 할인 혜택을 5세 낮추어 65세이상 노인에게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지금까지 일체 요금할인혜택을 주지않던 시내버스에 대해서도 50%의 할인요금을 적용, 60원씩 받도록 했다.

65세 이상의 노인에게 교통요금의 50%를 할인 적용해줄 교통수단은 시내버스, 시외완행버스·철도의 특급과 보통열차 지하철 연안여객선 등이다.

이같은 요금할인적용은 보사부의 노인복지법 시행령이 통과되는 오는 2월1일부터 실시된다.

교통부는 이와함께 시외직행버스, 고속버스 철도의 우등, 새마을 열차에까지 노인할인요금 혜택을 확대할 예정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인구중 65세이상노인은 3·9%인 1백50만명에 이르고있다.

凶器든 3人組강도와 格鬪

刑事2명 傷害

【大邱=聯】大邱中部경찰서는 12일 강도를 한뒤 경찰관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히는 등 난동을 부린 張재식(35·부산釜山鎭區開琴洞479의5)·金판록(32·경남密陽郡密陽邑駕谷洞709)·裵민씨(23·경남馬山市陽德洞119)등 3명을 특수강도·상해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2일 새벽4시께 釜山鎭區開琴洞 張씨집에 은신해 있던중 大邱중부경찰서 李광우순경등 4명의 형사가 덮치자 각각 칼등 흉기를 들고 대항, 李형사등 2명의 경찰관을 찔러 2∼3주의 중상을 입히는등 20여분동안 난동을 부리다 격투끝에 검거됐다는것.

경찰은 이들이 지난한햇동안 부산을 무대로 7차례에 걸쳐 2천여만원상당의 금품을 턴 사실을 밝혀내고 여죄를 계속 추궁중이다.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 2361

우왕좌왕…올해도 偏重지원현상

—前期大 원서接受 오늘 마감앞두고

미달大學·학과 수두룩 어제까지

窓口앞 苦心…결단 주저

◇마지막 상담 원서마감 하루를앞둔 12일 각고등학교 진학지도교사들은 학생들의 진학상담에 응하고 원서를 써주기에 정신없는 하루를 보냈다. 【12일하오서울Y여고에서】

서울大、자연Ⅰ 38명 어제까지 접수
高 大、하오까지 定員의 절반수준
延 大、19개학과만 간신히 웃돌아

대입원서접수가 13일 하오5시 마감된다. 마감을 하루앞둔 12일하오까지 각대학의지원상황은 서울大、延世大、高麗大등이 모집인원에 미달하고 그밖의대학들도 모집인원을 간신히 넘어서는데 그쳐 아직도 많은수험생들이 대학선택에 결단을 못내린채 진통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이날 각대학의 원서접수창구는 갑자기 몰아닥친 한파탓인지 첫날에 이어 계속 한산했으나 하오부터 지방학생들이 대거 상경、붐비기 시작했고 모집인원의 10∼30%선에서 맴돌던 원서접수율도 단몇시간만에 80∼90%선으로 뛰었다. 그러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수험생들이 일부대학이나 일부학과에 몰리는 심한 편중지원현상을 일으키기 시작、벌써부터 심한 경쟁률을 보인학과가 있는가하면 미달예상학과역시 많았다.

이날 대학관계자들은 금년 입시에서도 대학과학과간에 심한 편중지원현상이 예상된다고 내다보고 세칭 명문대를 제외한 중위권대학들과 인기학과보다는비인기학과사이에서 이같은 현상이 두드러질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관계자들은 접수마감일인 13일 지원율을 끝까지 보고원서를접수시키려는 수험생들이 많을것이나、이같은 눈치작전은 결국 마감직전에 지원율을 크게 높이는결과가 되기때문에 수험생본인에게 자칫 큰손실을 가져오게될것이라고 경고했다.

서울大 서울大는 이날 하오 3시현재 모집인원 6천5백26명에 5천6백12명이 원서를 접수했고 모두 1만7천5백여장의 원서가 팔렸다.

지원율이 가장높은곳은 사회Ⅰ의 경우 모집인원 1백17명에 2백23장이 접수돼 2대1의 비율을 보였고, 가장 낮은곳은 자연Ⅰ로 모집인원 1백56명에 불과 38장이 접수됐다.

이밖에 의예과는 모집인원 2백60명에 2백34장。

하오4시30분현재 모집인원을 초과한 과및 계열은 사회Ⅰ외에 법대3백71장(모집인원3백64명)、약대1백9장(〃1백4명)、사회복지학과 42장(〃39명)등이며 접수율이 낮은곳은 음대 국악과 이론전공이 2장(〃8명)、가정대의류학과19장(〃65명)、농대농업교육과 농촌지도교육전공4장(〃39명)등이다.

모집인원 3백25명인 경영대는 1백57장이 접수됐다. 이날하오 1시30분께는 서울大 一고교생 1백10명이 이태준교사(37)의 인솔로와 교가를부른뒤 단체로 접수시키는 모습도 보였는데 李교사는『학교에서 독자적으로 마련한 기준에따라 진학지도를했을뿐 항간의소문에는 전혀귀를기울이지 않았다』고 말했다.

4시30분현재 서울大 각계열(과)별 원서접수상황은 다음과같다.(괄호안은 모집인원)▲인문Ⅰ 223명(416)▲인문Ⅱ72명(156)▲인문Ⅲ89(104)▲사회Ⅰ 200명(117)▲사회Ⅱ 234명(338)▲사회Ⅲ145명(137)▲자연Ⅰ38명(156)▲자연Ⅱ89명(110)▲자연Ⅲ105명(91)▲자연Ⅳ149명(98)▲경영대218명(325)▲공과대805명(1,033)▲사대교육Ⅰ189명(143)▲교육Ⅱ186명(156)▲교육Ⅲ152명(260)▲법대465명(364)▲약대144명(104)▲가정대221명(195)▲미대250명(182)▲농대480명(819)▲수의대85명(78).

高麗大 하오4시 현재 모집정원 5천6백3명에 2천4백22명이 지원, 정원의 반을 못 채웠다.

공대 산업공학과가 52명정원에 54명이 지원, 정원을넘어섰을뿐 법대 법학과가 3백90명정원에 2백7명, 경영대가 5백20명 정원에 2백23명, 영어영문학과가 2백21명정원에 87명、사회학과가 1백30명정원에 51명、정치외교학과가 78명정원에 43명、행정학과가 78명정원에 75명、경제학과가 1백82명정원에 55명、의예과가 1백56명정원에 48명등으로 나타났다.

延世大 하오 5시현재 모집정원 5천4백60명에 4천7백56명이지원、전체적으로 0·87대1의 비율을 나타냈다.

모집정원 1백4명인 체육교육과에 1백62명이 지원、1·6대1의 지원율을 나타내는등 영문、불문、사학、물리、생물、지질、천문기상、생화학、의예、건축、전자、행정、신문방송、종교음악、수학、原州大경영학·생물학과등 57개학과중 모두 19개학과가 정원을넘어섰다.

梨花女大 4천4백72명 정원에 3천3백55명이 지원했고 정원을 넘어선 학과는 중문、영문、사학、전자계산、피아노、서양화、장식미술、체육、특수교육、간호、약학、식품영양학등 12개학과。그중 서양학과는 모집정원 78명에 1백30명이 지원、1·6대1의 가장높은 지원율을 나타냈다.

西江大 모집정원 1천7백68명에 1천1백73명이 지원。신문방송、정치외교、전자공학、전자계산학과가 정원을 초과했다.

成均館 4천1백73명모집정원에 2천8백86명이 원서접수。정원1백30명인 법대의 경우 49명이 원서를 냈으며 경상대 무역학과는 91명정원에 20명만이 지원했고 조경학과의 경우 78명정원에 1백97명, 산업공학과는 52명정원에 1백47명이 정원 2대1이상의 높은 지원율을 나타났다.

漢陽大 이날하오1시께 工大등 2개 대학이 모집인원의 절반수준에 육박했으며 半月분교의 체육계가 정원1백4명에 89명이접수、지원율이 가장높았으나 法政大는 정원3백64명에 40명만이 지원、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심한눈치현상을 보였다.

慶熙大 정원4천4백46명에 3천5백65명이 지원했다.

법률학과가 정원65명에 7명、행정학과가 정원52명에 10명등으로 저조한 반면 체육대는 78명정원에 2백10명이 지원하는등 비인기학과가 높은 지원율을 보였다.

外國語大 정원 3천3백54명에 1천3백38명이 지원、이중 화란어·일본어과 2개과만이 모집정원을 초과했으며 영어과등 인기학과는 모집정원의 반에도 미치지못했다.

中央大 하오 4시현재 모집인원 4천7백6명에 4천14명이 접수됐으며 崇田大는 모집인원1천9백24명에 8백76장이 접수됐다.

弘大 2천3백27명정원에 3천2백63명이 지원、1·4대1의 지원율을 나타냈는데 정원91명의 서양화과에 3백77명이 지원、4·1대1의 가장높은 지원율을 보인것을 비롯、건축도시、전기공학、건축、전기공학(야)、기계공학(야)、동양화、조소、산업도안、공예、국어교육、역사교육、상경계、경영(야)、무역(야)、회계(야)학과등 16개 학과가 정원을 넘어섰다.

淑明女大 1천7백16명 정원에 1천9백45명이 지원、평균1·13대1의지원율。이중 불문·교육·수학·체육교육·가정관리·의류학·식품영양학·아동복지·정치·외교·약학·제약학·산업미술·산업공예등 13개학과가 정원을 초과했으며 체육교육과는 65명정원에 1백36명이 지원、2대1의 경쟁률을 보였다.

東國大 연극영화학과가 39명모집에 1백5명이 지원、3·6대1로 가장높은 지원율을 보였으며 10개학과가 정원을 넘어섰으나 독문학과의 경우 정원39명에 7명만이 지원、가장 저조했다.

建國大 사학과가 52명 정원에 1백8명이 지원、2대1의 경쟁률을 보였고 16개학과가 정원을 넘어섰다.

世宗大 모집인원52명인 일어인문학과에 1백30명이 지원、16개과 계열중가장 높은지원율을 보였다.

가톨릭의대 모집인원2백8명에 3백5명이 지원、1·5대1의 지원율을보였는데 모집인원 1백30명인 의예과는 2백28명、78명정원인 간호학과에는 77명이 각각지원했다.

國民大 하오4시 현재 모집정원 1천9백89명에 2천8백91명이 지원、1·5대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査定기준 낮춰라 文敎部

문교부는 12일『일선 고교가 터무니없이 높게 책정된 사정기준표로 수험생들을 각대학 학과에 지원시키고 있다』고 지적、최근 시중에 나돌고있는 사정기준표보다 5∼6점정도 낮게 맞춰 수험생들에게 선택에 폭을 넓히고 원하는학과를 진학할수 있게하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문교부 관계자는 이날『지난해에도 입시전문지가 산정한 대학기준표는 실제보다 무척 높게 책정 돼 있었다』고 말하고 올해에도 전반적인 추세가 지난해와 같다』고 밝혔다.

"致死아닌 殺害"

朱永炯등 첫公判 公訴사실是認

◇난폭한 흉악범에게 하듯이 수갑을 찬위에 가죽혁대와 포승으로 허리까지둘러묶인채 법정에나온 朱永炯피고인。시종 고개를 숙인채 검찰측신문에 답변했다.

李潤相군 유괴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구속기소된 전京西중학 체육교사 朱永炯(29)·李모양(18·Y여고2년)·高모양(18·D여고3년)등 3명의 피고인에 대한 제1회공판이 12일 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3부(재판장 申性澤부장판사)심리로 열려 검찰측 신문이 모두 끝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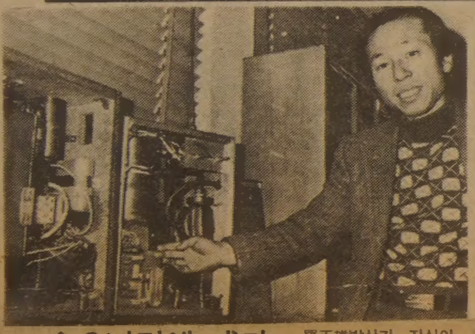
이날 공판에서 朱피고인은 潤相군 유괴、살해、유기등검찰측공소사실을모두시인했다.

특히 朱피고인은『潤相군의 숨소리가 희미하고 맥박도 약해 곧 죽을것같았으나 그냥 방치、숨지게한것은 결국 살해한것이나 다름없다』고 진술、검찰의 공소사실중『치사가 아닌 살해다』는 부분도 시인했다.

李양과 高양도 협박편지와 전화를 한사실등을 모두 시인했다.

"순간煖房" 3坪방 5分이면 "훈훈"

'마이크로' 보일러



◇3년만에 成功 羅正雄박사가 자신이 개발한 마이크로 웨이브 보일러를 소개하고있다。번거로운 배관이 필요없고 3평짜리 방을 덥히는데 5분이면 충분하다.

○○○○○○○

3평크기의 방을 5분안에 따뜻하게 덥힐수 있는 새로운 난방보일러가 개발、실용단계에 접어들었다。「마이크로웨이브(Microwave·電磁波)보일러」로 명명된 이보일러는 한국과학기술원 전기전자공학과부교수 羅正雄박사(41)팀이 지난79년 개발에착수、3년만에 성공한것.

○○○○○○○

科技院 羅正雄박사팀製作

配管없이 필요한 房에설치

전기쓰지만 기름값과맞먹어

물分子에교류 電氣…마찰열

일반에게는 조금 생소한 이름이지만 원리는 현재시중에서 많이 사용되고있는 마이크로웨이브 오븐과 똑같은것.

이 보일러는 전기로 물의 분자운동을 활발하게하는 마이크로웨이브의 특성을 이용한것인데 물분자에 교류전기를 통하면 전기적 분극현상(分極現像)이 일어나게 된다.

이때 분극된 물분자의 전극은 1초에 25억차례나 전극의 방향이 바뀌는 교류전기의 영향으로 이숫자만큼 방향이 바뀌게돼 이때 생기는 물분자끼리의 마찰열로 물의 온도가 높아지는 것이다.

마이크로 웨이브 오븐도 이같은 원리를 이용한것으로 외부에서 가열해 음식을 익히는것이아니라 음식재료자체가 포함하고 있는 수분의 분자에 마이크로웨이브를 작용시켜 재료안에서 순간적으로 발생하는고열로 음식을 익힌다.

새로 개발된 마이크로웨이브 보일러는 마이크로웨이브 발생장치와 유도관및 물통、온도조절및안전장치、물의 순환장치등 크게 4부분으로 구성돼있다.

전원을 연결하면 마그네트론에서、마이크로 웨이브가 발생하게되고 이마이크로 웨이브열에달린 물통의 물에 작용、물이 더워지게되며 일정수준의온도로 더워진물은순환장치를통해온돌의파이프를순환、방안을 짧은시간내에덥히게된다.

내부구조는 이처럼 복잡하지만 겉보기에는 소형스피커크기만하며 온돌의 파이프와 연결하는 그가닥의 파이프가 삐죽히 나와있고 온도조절스위치가 달려있을 뿐이다.

이 장치에서 가장 중요한 부품인 마그네트론이 이미 국내에서 생산되고 있기때문에 실용화도 그만큼 쉬울뿐 아니라 각방마다따로 설치하게 돼있어 사람이 없는 방에 열을 소모하는등 불필요한 에너지낭비를 막을 수가있다.

실험결과 이 보일러에필요한 월간 전기료가 기름보일러 기름값과 비슷하지만 배관시설을통한 기름보일러의 열손실이 30%에달하는 것을 감안하면 열효율이 높고 니크롬선등 전열선을 이용한 전기장판이나 전기난로에 비하면 경제성이 월등히 좋은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을 쉽게 덥힐수있어 방마다 항상 사람이 이용하지 않는 숙박업소나 음식점、군막사등에 알맞는 것으로 평가되고있다.

羅박사팀은 마이크로웨이브가 사람의 몸에 통하게되면 같은 원리로 피가 끓어 죽게되는 등의 위험과 예고없는 단수로 일어날수 있는 부작용등을 막기위한 안전장치등을 고안하는데 시간이 많이걸렸으나 모두 보완、실용화를 서둘고 있다.

羅박사는『현재는 이설비의 전기요금과 기름보일러의 기름값이 비슷하지만 앞으로 발전소가 늘어나게되고 심야전력요금이 싸지면 기름보일러에 비해서월등히 싼 비용으로 일반가정에서도 이용하고 에너지도 절약할수 있을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있다.【鄭秉鎬기자】

KAWAI 피아노
●KAWAI 피아노는 세계에서 가장큰 회사중의 하나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일본 정부에서 그 품질을 보증하는 우수한 피아노 입니다.
●KAWAI 피아노는 캐나다에서 가장 많이 팔리고 있읍니다.
●HILLCREST MALL ☎: 883-9407
●MARKHAM PLACE ☎: 881-8211
대표 : 윤호섭.
세일즈 매니저 : 알렌

SHANGHAI RESTAURANT
메 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 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전 화 : 864-9347

Dukes Computer
SMALL BUSINESS SYSTEMS
— Computer에 관한 일반적인 전화문의 환영 —
●SPECIAL SALE
자녀교육및 Business겸용
Apple II Plus
●SOFTWARE SERVICE
General Ledger
Account Receivable
Inventory Control
Payroll 및 Word Processing
●PERIPHERALS
Printer, Games, Music, Graphics
826 FORESTWOOD DR., MISSISSAUGA, ONT. L5C 1G7
☎: 275-0702 오 영 림

오사까 하우스
각종 술을 써비스 합니다.
값싸고 맛있는 식당(초밥·국수류등)
부디 한번 찾아주세요(쓰끼야끼, 뎀뿌라, 사시미)
※스토아시간 :
월~목 11 : 00AM~10 : 30PM
금요일 11 : 00AM~11 : 00PM
토요일 5 : 00PM~11 : 00PM
일요일 5 : 00PM~10 : 00PM
OPEN 7DAYS
12 TEMPERANCE ST.
☎ : 368-2470
Queen / Bay / Temperance St. / Yonge / King

Grant Brown
쎄일즈·매스터
이 한 구
각종 웨곤(WAGON)
CADILLAC, PONTIAC
BUICK, GMC VAN,
J2000.

1575 WESTON RD. B) 247-7161
WESTON, ONT. R) 977-2731

거구장
회갑, 생일잔치, 동창회 및 각종 피로연 예약 환영.
영업시간 : 매일 오전11시~새벽2시
금, 토 : 오후8시30분~새벽2시
목, 금, 토, 일 : 오후8시30분~새벽1시
가수 : 박 소 영 출연
5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意安飯店
의 안 반 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 4 시까지 영 업
일류 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럽스타, 게, 굴, 해삼, 전복 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 PM~4 AM
토~일 : 12PM
124 CHESTNUT
(171 Dundas St. W.와 Chestnut코너)
☎ 977-9734

코리아 하우스
KOREA HOUSE
한식전문
즉석불고기
정종, 맥주
666 BLOOR ST. W.
TORONTO, ONT.
*536-8666

景氣부양策 週內발표

새經濟長官 첫會議 "安定基調안에서 經濟에活力"

2住宅보유·轉賣금지 緩和
金利 2%線 추가引下키로

住宅자금 3千億원 상환조건 改善
機械의 국산화資金 金利 크게내려
輸出지원、달러當 융자單價등 인상

정부는 안정기조를 해치지않는 제한된 범위에서나마 침체된 경제에 活力을 불어 넣기위한 당면 景氣浮揚대책을 마련, 週內발표 시행할 예정이다. 金竣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을 비롯한 새경제팀은 11일하오 改閣이후 첫 경제장관협의회를갖고 金利인하, 주택을 중심한 적극적인 부동산경기활성화, 소비자 金融확대와 수출금융 융자單價및 비율인상등 內需자극과 수출지원을통한 경기 활성화대책을 폭넓게 협의했다.

이날 경제장관들은 그동안의 물가전망과 국제금리추이에 비춰 2%포인트 내외의 金利추가인하요인이 있다는데 의견을모은것으로 알려졌으며 구체적인 금리인하의시기나 폭은 금융통화운영위원회가 경제동향에맞춰 적기조정、시행토록했다.

內需喚起와 관련산업에의 파급효과등을 감안, 특히주택을 중심한 부동산경기활성화에 초점을맞춰 주택의공급·수요양면으로 금융稅制지원을 강화키로했다.

이날 협의된 주택경기부양대책에는 양도소득세에 탄력세율적용時限 연장과 1가구2주택 보유기간 연장, 당초 1월부터 방출키로했던 주택수요자금용 3천억원을 일반주택자금으로 명칭을바꿔 융자조건(2년거치 1년분할상환)개선, 公共주택의 최초 入住者에대한 轉賣금지기간을 현행2년에서 6개월로단축, 15평이하 국민주택에대한 등록세 취득세면제, 기타 주택자금의 금리인하등이 포함된것으로 알려졌다.

國産기계와 자동차업계 지원등을통한 투자및 애로부문 타개를 위해 기계國産化자금의 금리를 4%포인트대폭인하(현행 16.5%~17.5%에서 12.5%~13.5%)하고 중소기업에대한 오는 6월말시한의 투자稅額 임시控除制를 연장하며 승용차와 家電제품에 대해 실시되고있는 割賦금융대상품목을 트럭·오토바이에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협의되었다.

수출지원을위해 換率의 플로팅을 실세화해나가는 한편 수출금융 달러當 융자單價를 현행평균 5백30원에서 5백80원으로, 융자비율도 77%에서 臺灣수준인58%선으로 인상하는 내용등이 검토된것으로 알려졌다.

주택경기부양을 위해서는 그동안 건설업계가 요청해온 서울 변두리지역의宅地開發, 도시계획구역내 주택지구에 있는 垈地개발활용, 각종건축 허가절차간소화, 민간업자가 짓는 15평이상주택에 대해서도 취득세 등록세를감면하는 방안등이 아울러 검토된것으로 알려졌다.

이와함께 정부公共사업의 집행을 계획대로 1·4분기중 60%이상 집행되도록 조기추진하는한편 당초 예산편성때의 경제성장률전망 8%가 7%로 축소됨에 따라 예상되는 세입결함에 대응、정부의 행정經常費를 과감히축소, 일부 불필요한사업은 내년으로 이월, 均衡재정을 지켜나가기로 했다.

한편 通貨당국은 계절적인 수요등에 따라 신축적으로운용하는 한편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營農자금을 조기방출하고 農閑期소득사업을 적극추진하고 에너지이용 合理化를 위한 시설改替자금규모를 확대하여 금리도 낮춰주는방안등이 아울러 논의된것으로 알려졌다.

정부의 새경제팀은 이날협의내용을 토대로 12일에있을 예정인 총리주재의 경제장관 오찬석상에서 다시 골격을다듬고 13일까지는 고위층의최종재가를거쳐 발표,시행할예정인것으로 알려졌다.

◇새經濟팀、첫會同부터 景氣와씨름 정부의 새經濟팀은 相見禮를겸한 첫 경제장관협의회를 11일하오 경제기획원회의실에서 갖고 실무자들을 전부 내보낸채 은밀하게 당면경제活性化대책을 협의했다。왼쪽부터 鄭재무·무임소、李動資、徐상공、羅재무、金부총리、高농수산、金건설、金청와대경제수석、李내무차관 순으로 자리를 앉았다。

投機낳는 政策안써
住宅조합支援·건축절차 簡素化
金부총리、換率實勢운용계속

金竣成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앞으로 투기를낳는 주택활성화시책은 피할것이며 서민생활과 국민복지를위한 각기관및 기업체직원들의 주택조합을 지원하고 주택건축에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나가는데 主眼을두겠다고 말했다。

그는 金利문제는앞으로 경제동향에 따라 金融通貨위원회가 수시 탄력운영토록하겠으며 환율도 실세운용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金부총리는 통화량、물가、수출목표등 기준경제정책기조는 이같은 안정된정책선택 범위내에서 경기를 自生的으로 활성화하는 방안을 강구해나가겠다고 말했다。

"頂上회담 年內에"
日外相 經協준비회담뒤訪韓

【東京10日=聯】사쿠라우찌(櫻內義雄)日本외상은 10일 60억달러 對韓經協문제에 대한 양국간의 접촉이 진전되면 언제든지 韓國을 방문할 용의가 있다고 말하고 韓日관계는 두나라 정상이 양국관계를 위해 솔직한 대화를 갖는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말해 年內정상회담개최 필요성을 시사했다。

사쿠라우찌外相은 10일 보도된 東京신문과의 단독회견에서 오는14일 서울에서 열리는 韓日외상회담준비예비회담에서 對韓經協문제가 원만히 타결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사쿠라우찌외상의 이같은 발언은 예비회담에서 對韓經協문제에 대한 절충의 실마리가 잡힐경우 3월 자신의 訪韓을 통해 이 문제에 대한 매듭을 짓고 年內에 全斗煥대통령과 스즈끼(鈴木善幸)수상과의 정상회담에서 양국관계를 완전 재정립하겠다는 입장을 밝힌것으로 해석된다。

사쿠라우찌외상은 금년도 日本외교의 역점이 美日관계를 원활히 구축하고 나아가 韓國·中共및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제국과의 관계에 세심한 배려를 하는것이라고 말했다。

"政治活性化위해 자주접촉"
3黨대표會同 難題엔 直接협의키로

民正黨의 李載澄대표위원과 民韓黨의 柳致松, 국민당의 金鍾哲총재등 3黨대표는 11일 저녁 朝鮮호텔에서 모임을 갖고 새해의 국회운영과 각黨간의 협조방안 經濟難局打開策등 國政전반에 관해논의했다。

李대표의 초청으로 새해들어 처음열린 이날회담에서 3黨대표는 對話政治의 活性化를위해 각黨대표들이 자주접촉을 갖고 주요 정치문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기로했다。

이자리에서는 특히 국회운영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다른爭點이 나타날 경우 원내총무등의 수준에서 협의하겠지만 타결되지 않을경우 대표회담으로 次元을높여 해결할수있도록 접촉을 자주갖기로했다。

이날 모임에서는 이달말에 소집되는 임시국회의 운영을 비롯, 금년도 국회운영문제전반에 관해 논의하는 한편 經濟難局打開를 위해 각黨이 협조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담에서 民正黨의李대표는 民韓黨과 국민당에대해 정당後援會를 조속히 구성하도록 촉구했고 柳·金양총재는 野黨의 후원회결성은 기업인들이 가입을 기피하고 있어 어려움이 많으나 조속한 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한것으로 알려졌다。

"情報입수·頭腦銀行 역할을"
國際경쟁력 향상위한 革新기구로
全대통령、產經技硏개원參席

全斗煥 대통령은 11일 상오 서울東大門區 淸凉里洞 한국產業經濟技術연구원 開院행사에 참석, 朴聖相 원장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뒤 『이 연구원은 학문적인 연구보다 실제로 경제성장을위한 산업, 무역, 기술등 관련정보를 입수해 모든 기업에 전달함으로써 이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頭腦은행역할을해야 할것』이라고 당부했다。<사진>

全대통령은 『수출등을위해 필요한 정보와 새로운기술을 연구원과 기업간에 유기적으로 연결시켜주기위해 기업이 필요하면 연락원을 연구원에 파견하는것이 바람직하며 이를위해 연구원도 모든기업이 필요한 정보와 자료를 갖출수있도록 발전돼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이연구원은 연구결과가 기업의 생산성향상, 原價절감등에 직결되어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우리경제발전에 일대革新을 가져올수있는 기구로 발전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全대통령은 또 『지금까지 연구기관과 기업상호간에 유기적인협조가 이뤄지지 않아 국내에있는 기술정보도 死藏되고 소화를시키지못한 실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외국의 것뿐만아니라 국내 각기업의 기술정보도 잘파악해 다른기업들이 같은 기술정보를 중복도입하는일이 없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경제기술연구원은 국제경제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센터를 통합, 이날 開院式을 갖고 발족했다。

英無任所相 접견

全斗煥 대통령은 11일하오 靑瓦臺에서 영국의 험프리·애트킨즈外務담당 無任所相(國璽尙書)을 접견、환담했다。

이 자리에는 盧信永외무장관, 姜英勳駐英대사, 모건駐韓영국대사가 배석했다。

대통령 영부인 李順子 여사도 같은 시간에 애트킨즈 無任所相부인을 접견했다。

驪州·利川·南陽灣·平澤중 擇一
새空港 올着工、91년完工
政府·民正합의
金浦도 확장

정부와 民正黨은 11일 88올림픽에 대비, 현재의 金浦공항을 확장하는한편 금년부터 제2의 국제공항건설에착수, 91년에 완공키로 최종합의했다。

秦赤玩 民正黨 대변인은 이날 새공항건설문제와 관련 ▲현재 金浦공항을 2배로확장하는案 ▲제2의 국제공항건설案등 2가지를 두고 黨과정부가 계속협의한 결과 2가지案을 병행키로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秦대변인은 『현재의 金浦공항은 85년에는여객수용이, 86년에는 화물 처리능력이 한계점에 이른다』면서 『88년올림픽대회에 현 金浦공항이 대비할수없는점을 참작하여 金浦공항확장공사와 새로운 공항건설을 병행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또 『民正黨에선 수도권인구분산과 안보적인 측면을 고려, 서울과는 상당히 먼거리에 새공항을 물색중』이라고 밝혀 공항후보지로서는 驪州、利川、南陽灣、平澤중에서 거리가 비교적 먼곳이 유력한후보지임을 시사했다。

秦대변인은 『새로운 공항 후보지는 기후, 기류, 지형, 건축, 토목, 전자등 8개분야에 걸쳐 검토돼야한다』면서 『금년부터 부지선정등 준비작업에착수하게될것』이라고 밝혔다。

幕오른 大入作戰 保安칸막이 登場

◇57만 수험생의 「대학입시전쟁」이 시작됐다。대입원서접수첫날인11일 대부분의 수험생들은 「어느대학, 어느과를 가야할까」로 진통을겪으면서 선뜻 접수하려하지않았고대학들은 성적분포의 보안을위해 칸막이 분리대를 설치하는등 온신경을 썼다。

【11日하오서울大접수창구】★기사11면

社會漫評

오래간만에 보는「사는맛」!

地平線

폴란드사태도 알고보면 돈놀음의 일종이다。폭탄처럼 터진것같으면서 그렇지못한 이유다。세계금융계가 쉬쉬하고 있어서 정확한 액수를 알수없는 빚더미를 둘러싼 돈놀음이다。폴란드가 서방측에 지고있는 빚은 대체로 2백60억달러로 알려져있다。이중에 1백억달러는 서방각국정부의 보증이 붙어있는것이고 나머지 1백60억달러가 순수한 은행빚이다。

▼폴란드가 빚갚기를 중단한 것은 작년3월26일이었다。수수께끼는 이때부터 시작됐다。이렇게 큰 빚을지고 빚갚기를 중단한것도 세계금융사상 처음이지만、그런데도 불구하고 은행들이 「부도선고」를 내리지않고있는 것도 처음이다。뿐만아니라 서방각국은행들은 이때문에 피해 보고있는 액수가 얼마나되는지 밝히기를 꺼려해서 쉬쉬하고 있는상태다。

▼이때문에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있는게 서독이다。그중에서도 노조소유의 「노조은행」이다。폴란드 수출입은행에 의하면 서독 다음으로 미국 프랑스 영국 일본 오스트리아의 차례로 돼있다。그러나 미국쪽에서는 겨우 12억달러에 지나지않는다는 말도 있다。이 빚더미에 직접 간접으로 관련돼있는 서방측 은행들은 자그마치 5백1개나 된다니까 가히 짐작할 만한 일이다。

▼서방측은행들이 폴란드의 부도를 선언하지않는 이유는 간단하다。결손처분하느니 보다는 받을수 있는 길을 찾는 속셈때문이다。1백50억달러 가까운 큰돈을 꾸어준 유럽의 은행들로서는 섣불리 처리할수없는 짐이나 다름없다。정부보증의 빚중 지난해 갚기로 돼있던 25억달러에 대해서는 8년동안 봐주기로 작년4월 서방15개국 정부들이 합의했다。

▼세계최대의 빚꾸러기 폴란드는 80년 8월 그다니스크사태이래 지금까지 소련으로부터 30억달러가 넘는 돈과 물자원조를 받아왔다。식량·기름 또는 서방측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데 쓸돈을 원조받은 것이다。폴란드는 올해에 서방측에 갚아야될 원리금과 식량·공업제품등을 사들이기 위해 적어도 90억달러가 필요하다는 계산이다。소련이 선뜻 무력개입에 나서지못하는 이유다。

▼미국의 레이건 행정부는 소련에 대해 농산물수출협상중지등의 경제제재를 하겠다고 발표했다。그러나 이것으로 영향받는 수출량은 고작 5억달러에 지나지않는다。미국의 소련에 대한 수출이 80년의 경우 15억달러인데 비해 유럽공동시장(EEC)은 1백억달러가 넘고있다。폴란드를 둘러싼 고 손발이 안맞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소련의 괴로운 입장도 뻔한 노릇이다。결국 폴란드사태는 『미국과 소련의 암묵리의 협조에 의해서 만해결될것』이라고 국제금융가의 한 전문가는 보고있다。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구독신청은
(416)
533-2361

ARIRANG HOUSE
아리랑하우스
중화요리및 한식전문
716 BLOOR ST. W.
(at CHRISTIE)
TORONTO, ONT.
(416) 532-2727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 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 동 산

김 종 조
535-0028
535-7200

SunLife
OF CANADA

김 신 명
● 생명보험
● 연금제도
● 교육보험
● 그룹보험
● 주택, 건물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 R. S. P
922-3111(B)
439-8885(R)

하르빈한약상사
새해교민께특별봉사
● 20년간 한의사경력(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하르빈한의대학 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환자를 완치
● 중국본토의 한약사용
서 춘 봉
643A BLOOR ST. W. (신용조합 옆)
536-6854(B)
743-0752(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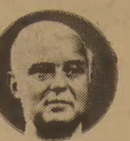
"美、臺灣에 最新무기 販賣안해"

北京방문 홀드리지 레이건決定 전달

波사태 對蘇비난要求

中共선韓國戰거론"對敵"경고

◇蘇外相영접받는 波外相 폴란드 군사정부의 외상 요제프·치레크(右)가 10일 모스크바에 도착, 蘇聯외상 안드레이·그로미코의 영접을 받고있다。폴란드 군사통치가 앞으로 더욱 완화될 것인지는 이번 양국외상회담의 결과에 달려있을것 같다。【모스크바10日AP電送=聯合】



◇홀드리지次官補

【北京11日UPI=聯合】사전발표없이 北京을방문한 존·홀드리지 미국무성동아시아·태평양담당차관보는 11일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계획을 둘러싼 미·중공분쟁을 해소하고 중공이 폴란드에관해 보다 강력한 태도를취하도록 유도하기위해 중공관리들과 회담했다.

보도진에게 전혀 알려지지 않은채 10일하오 北京에도착한 홀드리지 차관보는 미국이 臺灣에대해 신예 제트전투기를 판매하지않는다는 레이건 대통령의 결정을 중공측에 전달할것으로전해졌다.

홀드리지차관보는 이날 중공외무성에서 2~3시간동안 중공관리들과 회담했는데 회담상대는 외상 黃華, 부외상 章文晋등이었던것으로 보인다.

미국및 중공관리들은 홀드리지 차관보일행이 北京에 도착했다는 사실이외에는 그의 방중일정을 자세히 밝히지 않았다.

앞서 레이건행정부는 대만에 대해 9천7백만달러상당의 군사부품판매를 결정했으며 이에대해 중공은 미국을 제국주의자 패권주의자라고 공개비난, 양국간의 의견대립이 첨예화해 왔다.

미 시사주간지 타임최신호는중공이 폴란드위기와관련, 소련을규탄하면 미국은 대만에 F5E기 보다 고성능의 전투기를 판매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중공측에 할것이라고 보도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같은결정은 폴란드 위기에 관한 중공의 침묵때문에 서둘러진것이 분명한데 미국은 우방국과 동맹국을 규합, 폴란드의 군사탄압을 지원하고있는 소련에대해 보다 강경한 입장을 취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있다.

【北京10日UPI·共同=聯合】중공은 9일과 10일 연이틀동안 미국의 對臺灣무기판매계획이 양국관계에 『위기』를 유발할 것이며 최악의 경우 중공이 한국전당시와 같이 미국에 대적할수 있다고 초강경대미비난을 퍼부었으며 최근 폐막된 중공당중앙위실무회의에서는 대미강경대처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외교소식통과 중공소식통들이 전했다.

7艦隊 크루즈武裝
롱司令官 밝혀

【東京10日AP=聯合】미7함대는 빠르면 금년중에 크루즈미사일로 무장하게 될것이라고 미태평양지구사령관 로버트·롱제독이 밝힌것으로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0일 보도했다.

日、국내법改正 움직임

極東유사시 美軍병참支援위해

방위청長官 밝혀

【東京10日=共同聯合】일본정부는극동지역에서긴급사태가발생했을경우 일본이 미군에대해 병참지원을 제공할수있도록 일본국내법을 개정할 계획인것으로 9일 밝혀졌다.

이또·소오이찌로(伊藤宗一郎)日방위청장관은 9일 방영된 일본방송협회(NHK)TV 정치토론프로에 출연, 극동유사시 미일양국의 공동대처방안을 검토할 미일합동연구단체가 미군을위한 일본의 병참지원을 허용하는 긴급법률의 입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또장관은 또 이연구단체가 미래의 일본자위대역할을 위해 긴급법률채택은 물론 국내법의 개정도 검토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또장관은 이어 이연구작업이 일방위청내의 민간관리와 외무성및 일본주재미국대사관관리들에의해 진행되며 필요할경우 현역군인들과의 협의도 이루어지게될것이라고 설명했다.

리비아에 쿠데타 未遂劇

수단通信 政府軍、蘇·東歐지원받아 鎭壓

【카르툼9日UPI=聯合】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 국가평의회의장에게 충성하는 친정부군은 지난주 동부도시 벵가지에서 일어난 유혈쿠데타음모를 소련과 기타 동구군대의 지원을 받아 겨우 진압했다고 9일 수단관영 수나통신이 보도했다.

수나통신은 벵가지에서 돌아온 여행자들의말을 인용, 지난3일의 쿠데타음모 사건으로 쌍방간에 많은 사망자가발생했으며약3백50명의장교들과 민간인 2백80명, 학생 2백명이 검거됐다고전했다.

이 통신은 민간인·학생들이 포함된 쿠데타군이 벵가지의 주요시설물을 점거하고 간선도로망을 장악하게 되자 소련·동독·쿠바·시리아군 부대와 친가다피정부군이 쿠데타군 진압에 전투를 벌였다고 말했다.

나토 創設후첫特別외상회담

波事態관련對蘇·波제재討議

【브뤼셀10日AP·UPI=聯合】나토15개회원국외상들은11일브뤼셀에서 나토창설33년만에 첫 특별외상회담을 열고 폴란드의 국민에 대한 압제와 관련된 對蘇및 對폴란드제재조치를 마련할 계획이며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도 이나토 특별외상회담에참석키위해 10일브뤼셀에도착, 폴란드사태에 관한 서방국가들의 보다 강력한 대응을 촉구할 예정이다.

헤이그장관은 10일 브뤼셀에 도착한후 기자회견을 갖고 폴란드사태에 대해 서방이 강력하고도 단결된 행동을 취할 시점에 이르렀다고 선언하면서 동서관계의 개선여부는 폴란드사태의 해결에 달려있음을 분명히 해야한다고강조했다.

北傀 李鍾玉등 2월 泰國방문

大使館설치등 論議

【東京10日=聯合】북괴수상李鍾玉이 이끄는 20여명의 대규모 대표단이 오는2월초 타이를 방문한다고 日本의 아사히(朝日)신문이 방콕의 외교소식통을 인용, 10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북괴수상의 타이방문이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제국중에서는 최초의 국가가 된다는 사실에 크게 주목하면서 이번 방문에서 北傀와 타이간의 상호대사관설치, 무역·경제교류확대등에 관해 의견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비행기 墜落 사고

말聯外相 극적生還

◇가잘리外相

【쿠알라룸푸르11日AFP=聯合】말탄·스리·가잘리·샤피에 말레이지아 외상(60)은 10일 세스나경비행기를 몰고 콸라룸푸르서 2백60㎞떨어진 쿨라리피스로가던 도중 정글속으로 추락했으나 사고30시간만에 생존한채로 발견됐다.

메아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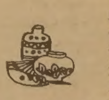
우리나라에서 일본의 귀중한 문화재인 백만탑다라니경이 한 수장가집에서 근자에 확인 발견되어 관계자들의 주목을 받고있다.

서기 764년 일본의 천황이 내란을 평정하고 그것이 부처님의 은혜라 하여 그 보은의 방도로 높이 13㎝의 나무탑을 만들고 탑속에 목판으로 인쇄한 다라니경을 넣어서 10개 사찰에 나누어 주고 잘 간직하게 했다. 이때 만들어진 백만탑다라니경은 오랜 세월이 흐르는 동안 대부분이 풍지박산이 되고 오직 日本의 「호류지」라는 절에만 3백여개가 간직되어 있다.

그런데 오늘날 일본에서 이백만탑 다라니경의 권자본을 중요한 문화재로 귀하게 여기는 까닭은 신앙의 측면에서 보다도 세계에서 가장 오래인 인쇄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1966년 불국사의 석가탑 사리장치속에서 무후정광대다라니경이 발견되고 이가 751년에 제작된것으로 고증 됨으로써 세계인쇄사상 가장 오래된 인쇄물의 자리는 우리에게 돌려주어야 하게 되었다.

외래文化財 보호



그렇다고는 해도 어느 시대 어떤 사연으로 우리나라에 그 백만탑 다라니경이 건너 오게 되었는지, 상세한 내력은 잘 알수 없으나 비록 그것이 일본의 역사적유물이요 또 문화재라 하여도 지닌바 가치가 귀중함은 이를나위도 없다.

지금까지는 우리의 많은 문화재들이 일본을비롯한 외국으로 흘러갔고 그런 가운데서 그 나라의 국보·보물로 지정되거나 보호받게된것도 허다한데 반해 외국의 문화재가, 그것도 지정할가치가 있는 것이 국내에서 발견되기는 지극히 드문 일이다.

아직까지 우리의 문화재행정은 외국에서 전래된 문화재에 대한 조사 지정에 까지는 미치지못하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설사 외국의 문화적인 소산이라 하여도 그지닌바 가치가 중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지정·보호하는데 인색치는 말아야 할것이다.

따라서 이번 일본의 문화재인 백만탑 다라니경의 발견을 계기로 국내에 있는 외국문화재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그중 중요문화재에 대한 지정·보호조치도 강구되었으면 한다.

波、계엄規制 대폭緩和

일부大學개강·記事검열 解除등

야루젤스키·글렘프大主教회담 때맞춰

【바르샤바10日AP·AFP=聯合】폴란드 구국군사평의회의장 보이체흐·야루젤스키장군은 10일 계엄선포후 처음으로 요제프·글렘프가톨릭교대주교와 회담, 폴란드사태『정상화』방안을 논의하는 한편 ▲사전기사검열제해제▲바르샤바등 주요도시내 전화재개 ▲각대사관과 영사관간의 텔렉스교신재개등 계엄선포후 최대의 계엄완화조치를 취했다.

이밖에 계엄선포후 중단돼왔던 석탄및 코크스의 해외수출이 재개되고 그동안 휴업상태에 있던 일부 대학교의 수업도 9일부터 재개됐으며 11일부터는 국영 로트항공사의 해외운항이 재개될 예정으로 있는등 폴란드사태는 계엄선포한달만에 점차 완화되는 조짐을 보이고있다.

바르샤바방송과 관영PAP통신은 야루젤스키수상과 글렘프대주교가 구랍13일의 계엄선포후 처음으로 회담, 현 폴란드사태에 대한 각자의 견해를 교환했다고 보도했다.

"良心유린은 殺人보다邪惡"

敎皇、波人權彈壓강력규탄

【바티칸시티10日AP=聯合】로마교황 요한·바오로2세는10일 폴란드계엄사태후가장 강경한 어조로 계엄령하의 인권탄압을 규탄, 인간의 양심을 유린하는 것은 살인행위보다 더 사악한 행동이라고 비난했다.

교황은 이날 고국인 폴란드사태에 관한 9일간의 침묵을 깨고 이날 성 베드로광장에 운집한 3만여순례자들앞에서 행한 주말미사강론을 통해 『나는 나의 동포들의 양심이 질식되지않도록하기위해 모든 선량한 사람들과 함께 신에게 기구한다』면서 그와같이 말했다.

교황은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의 하나가 양심과 사상의 자유라고 강조하고 양심의 자유를 유린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성에대한 가장잔인한 파괴행위』라고 비난했다.

海外토픽

"오래살려면 적게 먹어라"

日서 長壽者조사

오래사는 비결은 그리어렵지않다。세상사에 구애받지말고, 먹고싶은량의 80%정도만 먹고 과식하지 말며, 가족들과 사이좋게 지내는것이 장수비결의 3대요소이다.

일본 스미또모(住友)생명사회복지사업단은 전국의 1백세이상 장수자 4백97명을 대상으로 장수요인을 조사, 최근 그비결을 밝혀냈다.

「수명은 먹는것에 달려있다」라는 말이있다. 조사결과에의하면 장수자들이 가장 마음을 쓰는것은 『과식하지않고 80%정도만 먹는다』는 식생활 습관지키기, 그다음이 야채를 많이 먹는것과 규칙적인 식생활이다. 세계적인 장수마을 코카서스에도 저칼로리의 식사가 생활습관화 되어있다.

장수자들은 자신의 첫번째 건강비결로 사소한 일에 신경쓰지않고 세상사를 편히 생각하는것으로 꼽고있다. 두번째로는 『행복한 가정에서 살아가는 것』으로 꼽았다. 가족들과 함께 정치 경제등 세상사의 움직임에 관심을 갖고 가족들과 이야기하는 것이 노인화를 방지하는데 최선이라는 것이다.

장수자들의 수면시간은 아침6시40분에 일어나서 하오8시28분에 잠이들어 평균10시간2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잠잘자는 노인도 장수한다.

"戰鬪機조종사 로보트로"

美前太平洋해군사령관 交替촉구

【워싱턴10日UPI=聯合】노엘·게일러 前미태평양지역 해군사령관(67)은 최근 미국과 서유럽동맹국들이 소련의 침공에 대해 적절하게 방어할 능력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전투기와 요격기등의 조종사를 로보트로교체하는 미국의「기술혁명」을 제의한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게일러前사령관은 최근 미국과학발전협회가 주최한 한 심포지엄에서 미국과 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현재 소련등 바르샤바 조약기구군의 침공을 저지할 능력이 없으며 「核공갈」에 약점을 보이고 전쟁발발시 중요한 항로를 지키지도 못할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군이 「기술혁명」을 이룩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소련등의 침공을 저지하는 길은 병력對병력, 탱크對 탱크로 대응하는것이 아니라 미국의 우수한 기술을 응용함으로써 소련을 「능가」하는것이라고 역설했다.

타이·蘇「편지」外交분쟁

駐泰 蘇대사관서 對캄政策비난

【방콕 9日 路透=聯合】소련과 타이는 방콕주재소련대사관이 『가짜』라고 주장하는 한 편지를 둘러싸고 소련대사가 타이외무성에 초치되는등 조그마한 외교분쟁을 겪고 있다.

타이외무성은 8일 소련대사 유리·쿠즈네초프를 초치, 소련대사관정보과 편지지에 씌어져 아룬·파누퐁 타이부외상 앞으로된『무례하고도 비외교적인』서한에 대한 타이정부의 공식항의를 전달했다.

소련 대사관공보 정보과의 한 관리가 서명한 것으로 되어 타이정부기관과 신문들에 부쳐진 이 편지는 타이에 대해 美·中共『제국주의』자들과 공모, 인도 차이나의 합법정부들을 전복하려는 기도를 중지하라고 촉구하고 있는데 타이는 베트남의 캄보디아침공이 있은후 베트남과 친소 캄보디아정부를 모두 인정치 않고 있다.

美 도지어將軍 납치싸고

붉은旅團내분…兩派대립

경찰、據點급습10명체포·武器압수

【로마10日 UPI·國際=聯合】지난해12월 이탈리아의 좌익게릴라단체 「붉은 여단」에 의해 납치된 제임즈·도지어미육군준장사건을 수사중인 이탈리아경찰은 10일 게릴라거점을 급습, 붉은여단지도자를 포함한 10명의 용의자들을 체포했다.

경찰은 9일 이탈리아각계의 지도자들에 대해 암살등 테러행위를 벌여온 붉은여단에 대한 대대적인 수색작전을 벌여 이단체의 이론가이며 이탈리아법무성고문을 지낸바있는 지오바니·센자니전 팔렌체대학범죄학교수(40)등 10명을 체포했다고 밝히고 그밖에도 로마의 게릴라은신처에서 지대공미사일, 바주카포, 대전차포및 기관총등 무기와 「매우 중요한」 문서들을 대량압수했으며 배포되기직전의 홍보자료, 성명및 선언문등 인쇄물들을 압수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붉은여단이 도지어장군의 납치를 둘러싸고 양분됐음이 압수한 문서속에서 나타났다고 말하고 센자니가 이끄는 로마파가 도지어장군을 납치하려는 베로나파 동료들에 불만을 토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압수사진중에는 지난8월3일 2명의 게릴라들이 前붉은여단의 리더인 파트리지오·페시의 동생 로베르토·페시(23)를 살해하는 장면이 담겨있었다고 전했다.

리비아 "虛僞보도"

쿠데타 企圖說부인

【파리10日AP=聯合】리비아는 10일 리비아에서 쿠데타기도가 있었다는 일부 보도가 『전혀 근거없는 허위소문』이라고 부인했다.

파리에서 청취된 리비아관영 자나통신은 수단관영 수나통신으로 보도됐던 쿠데타음모기사가 『미제국주의에의한 리비아비방선전』이라고 비난했다.

아이티에 武裝叛亂

政權전복겨냥 鎭壓

【마이애미11日AP=聯合】미국內 한주유소 주인이 이끄는 일단의 아이티망명분자들이 9일 장·클로드·뒤발리에 아이티 대통령정권타도를 부르짖으며 아이티에서 조금 떨어진 토르투가島를 점령했으나 11일 아이티보안군의공

對臺灣 武器판매에 神經戰

美 2重外交에 中共 안절부절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계획에 대한 중공측의 반발이 최근 점점 거세어지고있다.

대만에 대한 미국의 무기공급문제는 79년1월1일을 기해 美·中共관계가 정상화되던 때부터 분쟁의 불씨로 잠재해왔다.

78년11월 당시 美대통령 카터는 중공과의 국교정상화를 체결하기로 결정하면서 「중국땅에는 오직 하나의 중국만이 있을뿐이며, 대만은 중국의 일부」라는 점을 분명히했다.

또한 54년부터 계속되어 왔던 미국과 중화민국간의 상호안보조약을 폐기했다.

그러나 미국은 한편으로는 소위 「대만관계법」을제정, 대만에 대해 「엄격히 선정된 방어용무기를 제공할수있다」고규정했다.

이에대해 중공은 미국의 對대만 무기공급은 분명한 내정간섭이며 중공은 이를 도저히 묵과할수 없다는강경한 태도를 보여왔다.

중공의 이같은주장은 논리적으로 분명한 설득력을 갖는다.

중공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해놓고 대만에 대해, 그것이 공격용 무기든 방어용 무기든 무기를 공급한다는 사실은 내정간섭이라고 밖에는 해석할수 없다는 것이다.

北京의 외교소식통들은 만일 레이건美행정부가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강행한다면 중공은 「불가피하게 미국에 대한 대응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예상되는 대응조치중 하나는 과거 네덜란드가 대만에 잠수함 2척을 판매하기로 했을때 보였던것과 같은 자국대사소환과 외교관계 격하조치이다.

"中共의 正統性 인정해놓고 臺灣 무기판매는 內政간섭"

美선 鄧의 經濟발전 우선政策 실패우려로 推進

중공이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에 필요이상일 정도로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것은 또다른 이유가 있을 수도 있다.

중공은 국경을 접하고있는 소련의 군사력에 맞서기위한 수준까지 군사력을 증강시키려는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이를 억제하고있다.

하나는 국내적으로 鄧小平정권이 당면하고있는 과제는 낙후된 경제의개발이기때문에 과도한 국방비지출이 불가능하기때문이다.

중공은 이미 GNP의7%가량을 국방비로 지출하고 있어 필요한 만큼의 무기를 도입할돈이 없다.

또 하나는 중공이 미국으로부터현대군사장비를얻어내는데만열을올린다면미국은 오히려 이를 미끼로 對대만 무기공급문제를 흥정할 우려가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미국으로서도 문제는 쉽지 않다. 아직까지미국특히 레이건행정부는 중공을 전적으로 신뢰하지않고있다.

중공의 鄧小平정권이 취하고있는 경제우선정책은 많은 시행착오를 거듭하면서 계속 되고있다.

만일 鄧의 경제정책이 실패한다면 미국이 중공에제공한 군사장비지원은 아무런 효력도 갖지 못한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될것이다.

대만은 베트남에 기지를 둔 소련해군이 극동으로통하는 길목을 견제할수 있는 유력한 『가라앉지 않는 항공모함』이기 때문이다.

미국과 중공은 최근 요동반도 大連港을 7함대기항지로 사용하기위한 협의를 하고있으며 이미 신강성에 對蘇통신기지를 설치하고있다는 보도가 있기도 했다.

미국과 중공은 모두 원칙적으로 이보도를 부인했으나 상당한여운을 남기고 있다.

미국과 중공은 대만에대한 무기판매를둘러싸고 시간을 벌기위한 게임을벌이고 있는 셈이다.【朴永喆기자】

國際焦點

◇論爭부른 거리의彫刻 조각가 카를·헤닝·제만이 최근 西獨의 뒤셀도르프거리에 展示, 論爭을 불러일으킨 문제의 청동조각 작품『事物의분해』。【뒤셀도르프AP=聯合】

◇눈덮인 뮌헨中心街서 스키즐겨 10일아침 금년겨울 최대의 적설량을 기록한 폭설로 뮌헨시의 많은 차량들이 오도가도못하고있으나 스키어들만은 즐거운 얼굴로 눈덮인 뮌헨시가지에서 스키를 즐기고있다.【뮌헨10日AP電送=聯合】

外信안테나 【外紙】

◆蘇아프간에1개師團증파

소련은 최근아프가니스탄에 1개사단을추가 증파, 아프간주둔 소련군의 수는 총1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고 아프간의 압둘·알리공(57)이 10일 말했다.【뉴욕=UPI】

◆이란大統領동생 被襲

호자톨레슬람·왈리·하메네이 이란 대통령의 동생 모하마드·하메네이의원이 10일 테헤란시내의 자택부근에서 일단의 괴한들로부터총격을 받아팔에 경상을입었으며 교와같이 차를타고가던 경호원2명은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런던에서 청취된 이란방송이 보도했다.【런던=路透】

한국일보 가두 판매처

본사는 주3회 각식품점에 신문을 배달, 판매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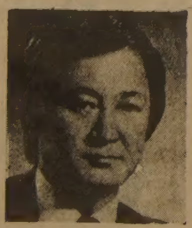
〈본보 취급 식품점〉

- 서울식품 : 367 PITFIELD RD. 291-8317
- 동양식품 : 1662 JANE ST. 248-5131
- 한국식품 본점 : 721 PALMERSTON AVE. 532-2961
  - 〃 동부 : 2810 EGLINTON AVE. E. 261-6111
  - 〃 서부 : 1054 ALBION RD. 742-7711
- 단풍식품 : 712 BLOOR ST. W. 532-1054
- 고려식품 : 680 BLOOR ST. W. 531-2242
- 삼복식품 : 2437 FINCH AVE. W. 743-8270

현재 주3일 배달. 1부당 30¢
※〈주간여성〉도 판매함 $2.00

한국일보 · 발송부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쉬는 비지네스(주5일)
TAKE OUT 카프테리아 SHOP(아침7~저녁5시)
주 매 상 : $5,500 아 스 킹 : $18,950 베 트 : 년 $120,000
렌 트 : $1,000, 리스5년+5년 다운페이 : $150,000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좋은 비지네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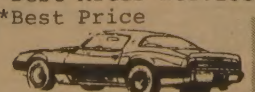
● 도나스 샾
①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9년(옵션가능). 현금 $250,000Down. 아스킹 $385,000
②주매상 $8,500. 렌트 $2,900. 리스9년+5년. 다운페이 $150,000. 아스킹 $295,000
③주매상 $6,000. 렌트 $2,650. 아스킹 $190,000(현금이면 기만불 디스 카운트. 리스20년
④주매상 $8,000이상(시외). 렌트 $1,700. 리스 19년. 현금 12만불 다운페이. 아스킹 $25만

● 버라이어티
①주매상 $8,500. 리스9년+5년. 렌트 $900. 아스킹 11만5천달러(로타리오 인컴 넬1000달러)
②주매상 $13,000. 리스9년. 렌트 $1,850. 아스킹 15만9천달러 (SOLD)
③주매상 $7,000. 리스15년. 렌트 $950. 아스킹 7만5천달러(플라자 내)
● 햄버거 샾
● 드라이크리닝

주소 : 609 BLOOR ST. W.
B) 535-1251 B) 536-4250

MARVIN STARR

〈취급종류〉
소형차 : ACADIAN, PHOENIX SKY LARK, J2000
중형차 : LEMANS, GRAND· PRIX, CENTURY, A6000, FIRE·BIRD RIVIERA
대형차 : 스테이션웨곤. PARI-SIENNE. LESABRE. ELESTRA. PARK· AVENUE. 벤트럭. USED·CAR
*Best After Service
*Best Price



264-2311
(PAUL SHIN)
3132 EGLINTON AVE. E.
(Markham × Eglinton) 신 성 우

나의 이력서

〈題字·元一漢〉

元一漢 ㉛

뉴욕 해밀턴大 入學

4年동안 줄곧 寄宿舍생활

첫해엔 制帽쓰고 通學…항상 時間맞추기 애먹고

내가 미국서 다닌 고등학교는 POLYTECHNIC PREPARATORY SCHOOL로 한국말로 번역하면 종합예과고교다.

이 학교에서는 채플시간에 꼭 외부인사를 초청, 강연을 듣는 전통이 있었다. 한번은 한 생명보험회사의 대표가 연설하는 가운데 너무나 충격적인 말을해서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있다. 『내 강연을 듣는 여러분중에 1년내 한사람은 반드시 죽게된다』고 말한 것이다.

생명보험 가입을 권유하기 위한 충격요법으로 그런 발언을 했는지는 모르나 실제로 그 강연을 들은 학생중 하나가 그가 말한대로 1년안에 세상을 떠났다.

나는 죽음이라는 문제가 그렇게 예고대로 현실로 나타난데 대해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기때문에 그 채플시간을 결코 잊을수가 없다.

대학에 들어가서도 채플시간이 계속됐으나 그같이 꼭 박히도록 잊지못하는 일은 없고 시간에 늦지않으려고 뛰던 일만 생각난다.

내가 다닌 뉴욕 해밀턴대학은 뉴욕중심가로부터 15㎞가량 떨어진 대학촌에 자리잡고 있었는데 나는 4년 줄곧 기숙사 생활을 했다.

채플시간은 1학기때에는 月·水·金요일, 2학기때는 火·木·土요일 아침 8시30분에 시작되었다. 기숙사에서 채플장소까지는 얼마 떨어져 있지 않았지만 시간을 맞추기에 항상 허덕거렸다.

채플이 없는날은 늦잠을 잘수 있었으나 채플이 있는날은 자명종시계를 맞춰놓고 일어나자마자 부리나케 뛰어가는 소동을 빚었다.

한번은 자명종을 듣고도 늑잠을 부리다 그만 잠옷을 벗을 틈이 없어 잠옷 위에 외출복을 걸치고 뛴 일도 있었다.

대학에서의 수업시간도 언제나 시작을 알리는 벨소리의 추억이 지금도 생생하다. 그 벨은 1분동안 5초마다 12번 울리도록 돼 있는데 마지막 벨소리가 끝나기 전에 교실에 도착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석으로 간주했다.

벨소리가 끝난직후에 교실에 들어가더라도 출석으로 인정해달라고 감히 이야기할 수도 없는 분위기였다. 물론 선생님도 12번째 벨소리가 끝나기 전에 들어와야 그렇지않으면 누구나 결강으로 알았다.

그래서 학생들간에는 「Hold The Bell」이란말이 유행어처럼 됐다. 「벨을 붙잡으란」는 뜻이아니라 「벨아 천천히 울려다오」란 뜻이다.

시간에 맞추어 꼬박 꼬박 벨을울리는 일은 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했다. 그학생이야 정확한 초침대로 벨을 정확히 울렸을뿐이나 시간에 대어 교실에 들어가야하는 입장에서는 그 벨이 천천히 울려주기를 고대했던것이다.

미국의 대학은 교복이나 교모가 없다. 그러나 해밀턴의 전통은 1학년에한해 신학년이 시작되는 9월부터 이듬해 부활절까지 모자를 쓰도록 돼있었다.

신입생들의 단결력을 기르기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모자를쓰고 안쓰고는 신입생이 입학한다음 캠퍼스에서 열리는 한가지 행사로 결정된다. 그것은 선배들이 빙둘러 지켜보는 가운데 신입생 전원이 나무위에 매달아놓은 공을 붙잡아 내리면 그해는 착모를 안해도된다. 말하자면 단결력을 테스트하는 셈이다.

그러나 내가 재학하는 동안 그나무위의 공을 끌어내린 기억이없다. 아마 몇10년만에 한번 성공할까.

또는 피라밋식 포개쌓기를 해서 공을끌어내리려 시도했으나 손끝이 아슬아슬하게 공을 스치는것으로 만족해야했다.

선배들이 모자를 안쓸수있는 기회를 주었는데도 이를 달성하지 못했으니 신입생의 단결을 착모로서나마 과시할 수밖에 다른 길이 없었던 것이다.

◇눈에 덮인 해밀턴대학 캠퍼스와 아침 8시30분이면 채플이 열렸던 교내 예배당.

新春文藝당선 時調

江가에 앉아서

석 성 일

작고 큰 소리 멎어
세월잎이 하나 지고
산마다 겉살 속살
지난날로 물드는데
불꽃 안
순백색 가슴
어데로만 가고 있나.

철쭉빛 산 노을이
나룻배에 실려 올젠
훌수로 날던 새도
둥지 찾아 향하는데
동그란
근심 하나는
돌아갈 줄 몰라라.

이 한생 주소 없이
솔빛 길을 혼자 걷다
그 하나 심장쯤을
못 열고 못 닫아도
동트는
내 들녘에 가
벙그르는 꽃 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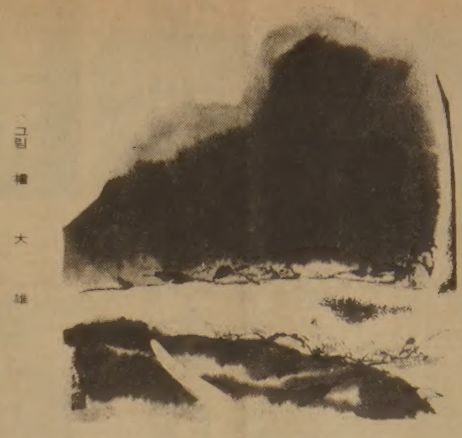


그림 權大雄

審査評

가락에 꿈틀거리는 힘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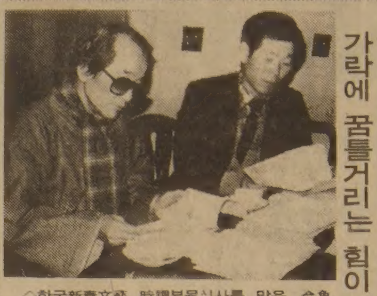
全般的으로 말하면 字數 진하고 보면 늘 傾向의 놀作에서는 벗어나지 않고있으나, 「자기의 가락」으로 肉化하는데는 아쉬운 것이 따랐다. 時調는 많할 나위 없이 정제된 리듬의 美하 혐식이다. 형식을 그냥 物理的으로 지키느냐 서 生命的인것에 이르도록 해야 할것이다. 그것이 미음에서 못벗어나고 만다. 가락에 진실 잡혀다니느냐 자기 호흡에 맞게 잘 다스려 나가느냐의 구별이 時調를 잘 할수 있고 시키되 없고를 가르는 分水嶺이 될 것이다.

당선작으로 뽑은 「江가에 앉아서」는 이런점에서 가락에 꿈틀거리는 힘을 주어 자기의것이 되게하는데 성공했다.

가락만 그런것이 아니고 그 속에 담긴 노래에도 참신한 創意가 있어, 新人의 작품에 맞는 覇氣를 느끼게 하는데 충분했다. 당당하고 우렁찬 그 소리와 가락은 다른 작품을 뒤에 젖히는데 모자람이 없다. 더욱 大鵬과 같이 山野를 주름지고 날기를 바란다. 다만 아쉬운것은 措辭에 치우친 나머지 빛깔을 너무 현란하게 나타내었다는 것이요, 또 「세월잎」 같은 造語는 약간 거슬렸다.

이밖에 아까운 작품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글귀인 「伊의에서 先頭를 뺏긴것으로는 「雲따」 「겨울 京畿」 「가을風景」 「섣…」 「가을山에 다녀와서」 「가을소리」등 이었다. 이작품들은 비록 낙선은 되었으나, 우선 꿋꿋한 우리 時調의 내일을 생각할때 상당한 미래를 약속해주는 것같아 든든하고 흐뭇했다. 문득 時調의 르네상스를 맞는 감회가 있었음을 덧붙인다.

金魚水
朴在森



◇한국新春文藝 時調부문심사를 맡은 金魚水씨(左)와 朴在森씨.

當選所感

네번째 당선소감을쓰면서…

외상으로 방을 얻어 세월보내며 있는 산승이 이런말해서 퍽 송구스럽지만 산문 밖의 피멍져 지나는 한 겨울바람 소밀들으며 일년에 한번씩 뜨거웁게 써보았던 당선소감을 하루해가 모자라 번번이 타살시키고 미쳐서 떠돌다가 지쳐서 차이다가 오늘, 저리도 무섬하게 순수가 내리는 이 대낮 네번째 당선소감의 이유를 조금은 많은 분들께 아뢰올 수 있는 지금 덜 춥고 덜 배고프다.

그래 참좋다. 그런 그렇고, 눈크게뜨고 똑똑히좀 보아라. 아직도 겨울이 끝나지않고 우리 한개의 삶을 실패시켜서라도 완성시키려는 「이야기·이야기」 한층 이렇게 끈질기게 도막내려 들지 않는냐, 했다. 기회가 주어진다해도 맞싸워이겨 승자가되기가 구역질나게도 싫다. 물론 — 하나, 안그렇겠나? 조금은 많이 허무의 씨앗을 가꾸고 허무에 익숙해져서 외롬의 씨앗을 가꾸고 외롬에 익숙해져서 겸손하게 견디고 싶다.

그리고 작은것이라도 하느작이는, 다스운 햇살이 가끔은 좀알좀알대는 버려진 들녘으로 가고 싶다.

그날까지는 어느때이든지 어느곳에서든지 가진것이 없지만 왜,그 당선등도 갖고있는 그것, 그것 하나만으로 견디면서 투쟁하고 또 노래부를 것이다.

◁선성일略歷▷
▲51년=충남 대전 출생
▲70년=순천 송광사 입산
▲79년=불교신문 신춘문예 詩 당선
79년=「現代詩學」 詩추천 완료
▲81년=시집 「사람이그리운 날」 펴냄 승려시인詩낭송회 회원
現=서울시 관악구 남현동57 원각사에 머물고있음〈☎ 6925〉

具常씨 信仰集2권

「그분이…」信仰에세이集펴내
「까마귀」事物 實在다룬 詩集

◇具 常

詩人 具常씨가 지금까지 펴내온 책가운데 신앙을 소재로 한 詩와 에세이들만을 모은 신앙選集 「그분이 홀로서 가듯」과 近業詩集 「까마귀」등 두권의 책을 함께 펴냈다. 「그분이 홀로서 가듯」은 胎中信者로서 60평생을 살아오면서 신앙을통한 實存的 삶을 추구한 신앙시와 신앙 에세이들을 모아, 연작시 「밭日記」「無所不在」등 30편의 詩와 「實存的 확신」 「元曉의 破戒行」 등 41편의 斷想을 엮었다.

그의 두 권의 책에 실린시와 에세이들은 신앙심을 全的인 테마로 삼지 않고, 믿음을 바탕으로 自我와 他人, 自我와 外的 境界의 관계를 살피는 철학적인 모색을 시도한 것이 특징이다. 기독교의 사랑, 佛敎의 自覺, 覺醒, 輪廻등의 테마를 인간의 人情을 포용해서 우리들의 삶아 있는 이야기로 펼쳐 나가고 있다. 인간들의 모양새가 못나 보이면 못나 보이는대로 詩와 산문으로 엮어 놓아, 삶자체가 종교이어야 하며, 종교가 따로 있어 삶위에 놓여 있는것이 아니라는것을 암시한다.

이같은 基調때문에 신앙시와 신앙에세이에서 볼수있는 공허함이 거의없고 한편의에세이를 보는 흥그러운 기분을 잃지 않게한다.

시집 「까마귀」는 그의 다섯번째 시집으로 「밭의 사과 속에는」 과 같이 事物의 實在에 대한 그 나름의 인식을 편 詩, 「신령한 所有」와 같이 존재와 秘意를 파고들어 본 詩, 「드레퓌스의 벤치에서」와 같이 이웃과의 삶속에서 느끼고 생각한 所見들을 쓴 詩등을 엮었다.

시집의 표제로 삼아진 「까마귀」는 10편의 연작시로, 技術주의·물질주의로 치달아 가고 精神이나 內面은 저 뒤에 버려지고 가는 현대사회를 寓話형식으로 連作했다.

具常씨는 또한 하와이大學 極東언어학과의 교수로 초빙돼 20일 출국, 1년동안 하와이에서 머물며 강의를 하게 된다. 그가 강의할 내용은 한국의 傳統文化. 지난70년부터 73년까지 3년간 同大學에서 우리나라 전통문화를 강의한것에 이어 두번째가 된다.

金壽煥추기경 思想강좌

聖바오로修道院 초청,「人間의길」주제

"人間은 科學도 못푸는 神秘한 存在다"

◇「人間의길」을 주제로 강연하는 金壽煥추기경.

金壽煥추기경은 聖바오로女子修道會초청으로 9일하오3시 明洞 성바오로서원에서 토요사상 강좌를 가졌다. 金추기경은「人間의길」을 주제로,자신이 생각하고 느끼는 현대의 흐름에대해 언급하면서「인간에게는 과학으로는 풀수없는 어떤 신비스러운 의미가 있다」는 내용의 강연을 1시간20분가량 했다.그는 「인간이란 무엇인가」와 「인간의 길은 무엇이어야 한는가」한는 두가지 문제를 강연의 주제점으로 제기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는 인류 역사가 있어온 때와 같은시기에, 또 인간의 意識이 움트기시작한 때와 같은시기부터 제기되고 연구되고 논의돼 온 문제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 그 누구도 정확하고 분명하고 뚜렷한 대답을 주어 오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현대에와서는 과학시대답게 인간을 과학적으로 해부하고 분석하고 검증하는것이 보편적인 사조가 되고 있다.

金추기경은 「인간은 生物體인것은 사실이고, 과학에의해 분석되고 해부될수있는 것은 사실이나, 그처럼 과학적방법으로 검증할수없는 어떤 神비한것이 있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그는 「과학자들은 물질을 쪼개고 쪼개 마지막 최소단위인 原子까지 분석해냈으나, 그이상의 것을 알아내지 못했고, 人體도 역시 해부의 메스로서 샅샅이뒤졌으나 그이상은 알아내지가 없었다」고 말하고 『과학도 인간이무엇인가를 대답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金추기경은 인간창조에 대해서도 언급『인간이 무생물에서 진화됐다는것은 논리의 비약』이라고 말하고 『인간이지닌 신비한 성질, 인간이 가지는 畏敬心으로 보아 인간은 어떤 초월적 존재자,즉 하느님의 개입이 있어 이루어졌다고보아야한다』고말하고, 이런 의미에서 『가장 미미한 존재이든, 못난존재이든, 인간인 이상에는 존엄하고 귀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추론에 이어 金추기경은 『인간의 길은 우리를 만든 초월존재를 믿는 길은 믿음과 생명을 사랑하는데 있는 것』이라고 끝을 맺었다.

文化短信

국제 정치학회장 吳淇坪 교수就任

국제정치학회 82년도회장으로 西江大 吳淇坪교수가 지난1일자로 취임했다. 83년도 회장으로는 漢陽大 金洪喆교수가 지난연말 아람문화회관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선출됐다.

한국 政治學會長 韓培浩교수 選任

한국정치학회는 지난연말 정기총회를 열고 82년도 회장에 韓培浩교수(高大),부회장에 朴稚榮(漢陽大),閔丙天교수(東國大)를 각각 선출했다.

女性界소식

「아기보는이」알선 주부클럽 연합회

주부클럽연합회는 그동안 교육을 거쳐 양성한 베이비·시터(保育者)를 희망하는 가정과 연결시켜주고 있다. 탁아모를 신청할 가정에서는 전화☎1573으로 연락하면된다.

史의 名言

佛敎의 開祖, 印度가비라城 정반왕의 太子. 처음이름은 悉達多. 29세에 生死解脫의 法을구하러 出家, 6년만에 正覺을얻어 부처가됨. 이후 46년간 衆生을 濟度.

釋迦牟尼 〈前566~前486〉

나는 다만 毒화살빼는법만 가르칠뿐

너는 毒矢에 맞았는데도 의사에게 毒矢의 本質에대해 해답을 구하는 부상자와 같다. 어떤해답이 주어진들 그것은 너의 苦痛과죽음엔 아무상관도 없는일. 나는 다만 毒矢를 빼는 법을 가르칠뿐이다.

× × ×

阿含經에 나오는 이야기로 어떤사람이釋迦에게 이세상은 無常이냐 常住냐 有限이냐 無限이냐, 生命은 무엇이냐, 肉體란 무엇이냐 이런形而上學的문제를 여러가지들고나와 해답을 구한데대한 대답이다.

佛敎의 思想을말하는 사람은 누구든 一切는 空이라는 空의 思想을 말한다. 사실大乘佛敎思想의 기초가된 가장오랜 經典의 하나인 般若經엔 空觀이란것이있다.

觀이란말의뜻은 佛敎者의 根本의 行爲며 體驗이다. 空의문제에 얼마큼 깊이 들어가 있는가를 自他에 증명하기위해선 自己의 空을 만들어 내야한다.

般若의 유명한 眞空妙有,참된空은 다시없는 有라고하는 말투는 그와같은 소식을 전해주고있는것이다.

釋迦의 哲學的智慧는 모든 哲學的지혜의 例처럼 매서운 否定精神에서부터 시작된것같다.

般若經은 그조감도라해도 될것같은데 그냥 空이라는것으론 모자라 空空이니 大空이니 畢竟空이니 자꾸만 空이란글자를 겹쳐놓았다.

그렇게 겹쳐놓은 空은 有로 轉한다고 말한다.

諸行無常의 思想이 釋迦를 찾았을때 헤라클레이토스는 萬物流轉이란것을 생각하고있었다. 釋迦의 空이란 헤라클레이토스의 불(火) 같은것이었다고 어느 佛敎연구가는 말한다.

헤라클레이토스가 江가에서 노는 어린이에게서 불을 본것처럼 釋迦는 沙羅雙에 空을 보았을것이다. 釋迦에겐 人間을 용서없이 불태워 버리는것이 보였을것이다.

스스로 태워지는것 외에 이에대한 어떤태도도 번뇌라고 그는 결의한것이 아닐까. 마음없는(無心) 불이 그대로 慈悲의 불이돼, 사람의 마음속에 불타지 않는다고 누가말하랴, 그것이 그의 空觀이었다—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것이다.

한국、準優勝

英오픈탁구

【크롤리(英國)9日=聯合】 한국의 盧潤寬·梁英子조는 9일 제54회 英國오픈탁구대회 혼합복식결승에서 中共의 陳新華·陳莉莉조에 21—8、21—16으로 패배, 준우승에 그쳤다. 盧·梁조는 준결승에서 中共의 范長茂·謝小燕조를 2—1로 물리쳤다.

中共은 이번대회서도 7개 종목우승을 휩쓸어 탁구최강의 위치를 고수했다. 한국은 준우승1、3위 3종목으로 스칸디나비아、핀란드 오픈에 이어 英國오픈서도 中共에 참패했다.

流星의 賦

〈280〉

李炳注 作
李友範 畵

風雅와 策謀 ⑪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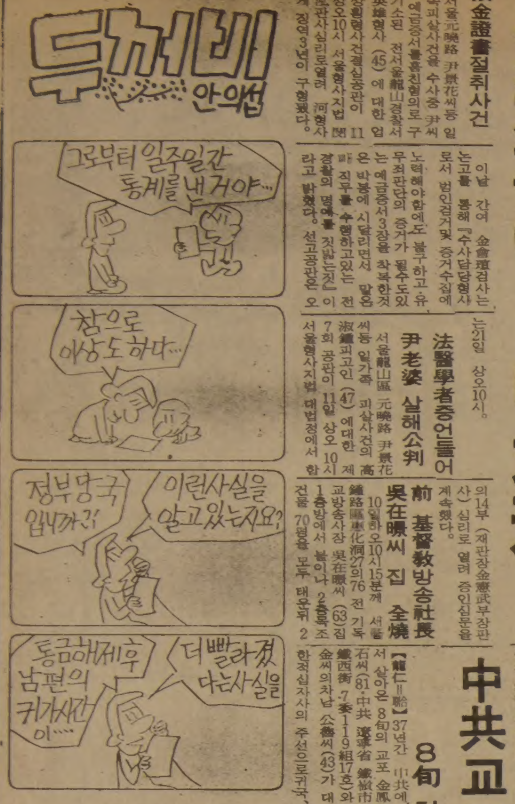
『홍공의 고집도 대단하십니다』
히라또가 두번 말했다.
『내가 무슨 고집을 피웠단 말요』
계남이 반문했다.
『애원하는 미녀의 청을 뿌리치고 이렇게 걷고 있는 양이 고집이 아니고 뭡니까』
히라또의 말에 빈정대는 투가 있었다.
『몇번을 말해야 알겠소. 나는 사신으로서의 책무를 띠고 온 사람이오. 유산겸 소풍하러 온 것이 아니외다.』
그래도 히라또는 지지 않고 말했다.
『망중(忙中)에도 유(遊)가 있는 법이고 임중(任中)에도 한(閑)이 있는 법이오. 활(弓)도 쓰지 않을 땐 시울을 풀어 놓는 법이라오』
『아따, 그 말은 그만 합시다』
계남은 상대를 하고 있으면 끝간데가 없을것 같아 이렇게 잘라 말했다.
한동안 히라또는 잠잠했다.
그러더니 몇걸음을 걸은 즈음에
『아무래도 수길공(秀吉公)의 귀경은 늦어질까 하오. 그러니 그 동안만이라도 여사에서 한숙할 것이 아니라 홍공만이 사관(私舘)을 얻어 한가하게 독서나 하고 무술이나 익히면 어떻겠소이까』
하고 말을 걸어왔다.
아닌게 아니라 정부사간(正副使間)에 매일처럼 언쟁(言爭)하는 꼴을 보며 하는일 없이 울울하게 지내는 것보다 가능만 하다면 혼자 있고 싶은 충동이 없는바는 아니지만 그것이 그렇게 될 까닭이 없는 것이다.
『히라또씨는 내 처지를 어떻게 알고 계시오. 층층시하의 일개 군관에 불과하오. 그런 방자가 어떻게 허용될 것이라고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는 이밤의 소요도 마음 아파하는 바이오』
『홍공의 의사만 있다면 내가 주선하리다. 수길공의 양자 히데쓰구공(秀次公)의 특청이라고 하면 정사께서도 허락이 내릴 것이 아니겠소』
『그런 말은 다시 하지도 마시오. 우리나라엔 우리의 법도가 있고, 예의란 것이 있소이다』
히라또는 그 이상 자극했다간 좋지 못한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짐작하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객사(客舍)에 돌아가니 동쪽 전루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있었다. 그곳은 서장관 허성(書狀官 許筬)의 거처였다. 무슨 일인가 하고 가 보았더니 배반(杯盤)이 낭자한 가운데 허성과 황진이 목청을 돋우어 언쟁을 벌이고 있었다.
황진은 군졸들의 조련(調練)이 너무나 무류하니 내일쯤 교외로 나가 조련(調練)을 하겠으니 그 뜻을 일본에 전하라고 한데 대해 허성이
『감히 그런 망동(妄動)을 어떻게 생각이나 할 수 있느냐』
고 반박한데 싸움의 발단이 있었던 것이다. 황진은 「망동」이란 말에 격분한 모양이었다.
『군관이 군졸을 조련하려는 것이 어째서 망동이냐』
고 허성은 허성대로
『이곳을 한성 서대문 밖쯤으로 생각하느냐』
고 맞섰다.
그러자 차천로가 흥분을 가누지 못하고 외쳤다.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8월16일의 달이 교교히 밝은데 홍계남은 그 달이 부끄러웠다.

아직도 〈한국일보〉를 구독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한국일보〉는 캐나다 교포사회에서의 유일한 일간지이며, 우리 이민생활의 반려자입니다.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며, 교민사회의 거울로 언제나 그리운 고향소식을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이민생활의 각종 정보와 함께 교민 여러분께 제공해 드립니다.
한국일보는 잠시도 휴식없이 활동을 계속하고 있읍니다
한국일보 토론토사 (416) 533—2361
구독료 : 월9달러, 6개월 50달러, 년99달러

구독 신청서
한국일보
NAME ....
ADDRESS .... APT ....
CITY .... PROVINCE ....
POSTAL CODE ☐☐☐ ☐☐☐ PHONE ....

캐나다 · 미국 어디서든
한국일보는 교포곁에 있읍니다

南北美14개
지사·지국망을 연결,
아메리카대륙의
24시간을 지키는
바르고 빠른
한국일보——.
한국일보는
50만 北美교포의
친근한 벗입니다
구독신청, 광고문의 : 533—2361~4
1025 DUPONT ST. TORONTO ONT. M6H 1Z7



河刑事에 3년求刑

預金證書절취사건

서울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피살사건을 수사중 尹씨의 예금증서를 훔친혐의로 구속기소된 전서울龍山경찰서 河英雄형사(45)에 대한 업무상횡령사건결심공판이 11일상오10시 서울형사지법 閔世泓판사심리로열려 河형사에게 징역3년이 구형됐다。

이날 간여 金會瑄검사는 논고를 통해 「수사담당형사로서 범인검거및 증거수집에 노력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유무죄판단의 증거가 될수도있는예금증서3장을 착복한것은 박봉에 시달리면서 맡은바 직무를 수행하고있는 전경찰의 명예를 짓밟는짓」이라고 밝혔다。 선고공판은 오는21일 상오10시。

法醫學者증언들어 尹老婆 살해公判

서울龍山區 元曉路 尹景花씨등 일가족 피살사건의 高淑鍾피고인(47)에대한 제7회 공판이 11일 상오 10시 서울형사지법 대법정에서 합의14부 (재판장金憲武부장판사) 심리로 열려 증인심문을 계속했다。

前 基督教방송社長 吳在暻씨 집 全燒

10일하오10시15분께 서울鍾路區東化洞27의76 전 기독교방송사장 吳在暻씨(63)집 1층방에서 불이나 2층목조건물 70평을 모두 태운뒤 2천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내고 50분만에 꺼졌다。

이날 불은 吳씨의 아들 정열씨(26)의 빈방에서 일어났는데 경찰은 전기누전에의한 화재로보고 정확한 화인을 조사중이다。

한편 吳씨는 불을 끄려다 얼굴에 가벼운 화상을 입고 고려대부속병원에 입원치료중이다。

中共교포 또 歸國

8旬 할아버지 37년만에 家族再會

【龍仁=聯】37년간 中共에 살아온 8旬의 교포 金鳳石씨(81·中共 遼寧省 鐵嶺市 鐵西街 7委1 19組17호)와 金씨의차남 公壽씨(43)가 대한적십자사의 주선으로귀국, 그리던 혈육과 재회했다。

지난8일 하오4시40분 홍콩을거쳐 KAL편으로 金浦에 도착한 이들 부자는 마중나온 장남 仲壽씨(48·경기도龍仁郡水枝面豊德川里)와 막내딸 香花씨(38·경북浦項市斗湖洞84의3)등 가족들과 만났다。

경북迎日郡淸河面月浦面가 고향인 金鳳石씨는 37년전고향을 떠나 만주를 거쳐 遼寧省開原현에서 살다 해방을맞았다。金씨는 어머니와 부인·장남 仲壽씨등 3남매를고향으로 먼저 보낸뒤 자신은 가산을 정리, 차남 公壽씨, 큰딸 香香씨(56)를 데리고 뒤따라 오려다 38선이 가로막는 바람에 할수없이 中共땅에 머물러 살아온것。

그러던중 아들 公壽씨는中共이 美國과 국교를 맺고개방정책을 펴기시작하자 79년7월15일 고향인 경북영일에 사는 사촌형 金慶壽씨(46)에게 편지를 쓰게됐고 이로부터 한달후인 8월15일 公壽씨의 편지를 받은 사촌형 慶壽씨는 경기도龍仁에 사는 公壽씨의 친형인 仲壽씨에게 이사실을 알려 생사를 확인하고 계속 서신왕래를 해오다 지난해5월 대한적십자사를통해 이들을초청하게됐다。

波赤十字 救護돕게 韓赤서 3千弗송금

대한적십자사는 11일 폴란드적십자사의 긴급구호계획을 돕기위해 미화3천달러를 제네바국제적십자연맹을 통해 송금했다。

夫人과 싸운家長 세딸과함께 自殺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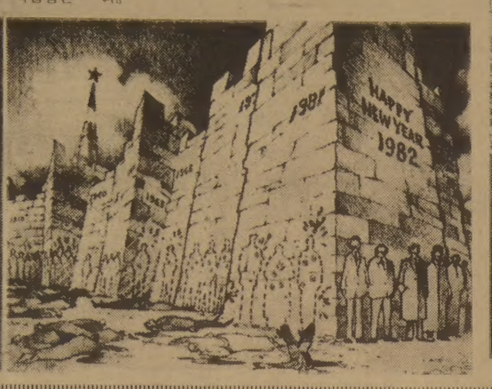
【瑞山=聯】11일상오8시께 충남瑞山郡大山面大路里198 김영환씨(45)가 집안방에서 연탄화덕에 불을피워놓고 딸 명숙양(12) 미숙양(9) 운숙양(8)등 딸3명과 같이숨져있는것을 장남 기독군(13)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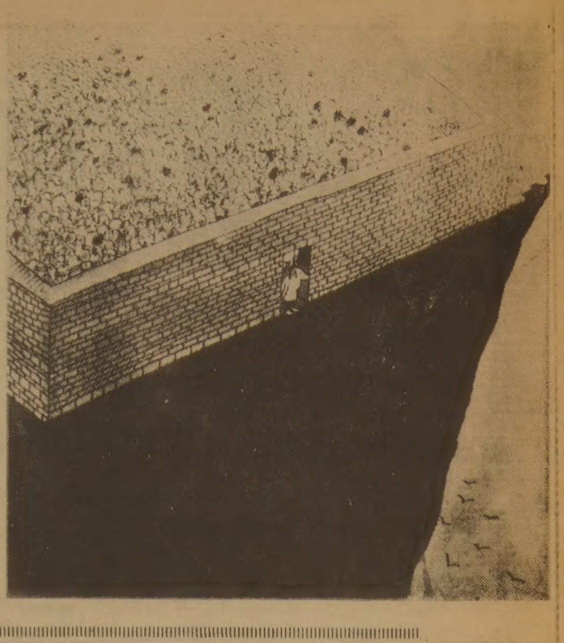
세계의 社会面 — 世界의 사회면

不信·絶望으로 80年代 풍자

日 요미우리신문 「國際 漫畵大賞展」의 異色소재

◇한국일보 특약지인 일본의 요미우리(讀賣)신문 공모 「제3회讀賣국제만화대상전」의 수상작들。모두가 暗을 주제로 하고있다。㊤는 그랑프리수상작(루마니아 미하이·스타네스크作)으로 인간이소유할 공간이란 벽과 절벽뿐임을 풍자한다。㊥은 볼리비아의 후안·카를로스·카르데르作으로 작품명은 「과거,현재,미래」。정치변혁의 희생물로 사람들이 해마다죽어가는 중남미의 사회상을 표현했다。1982년에처형될 사람들이 기다리고있다。㊦는 「벽에귀가있고 입에벽이있다」는 제명의 폴란드 보제나·안코브스키作。폴란드의 不信에찬 사회상을 말해주고 있다。





教皇저격 共犯있다

伊수사당국 구체적 증거主張

작년5월 로마의 성베드로광장에서 발생했던 교황요한·바오로2세의 암살미수사건에 공범이 있다는 주장이 다시 대두, 세상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있다。

공범설의 수장자는 다름아닌 지난7개월간 늑장수사를 벌여온 이탈리아수사당국。암살미수범 아흐자를 수사한 이탈리아경찰은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심증만 굳힌채 장기간 단서를 풀지못하다가 최근『아흐자에게 공범이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를 갖고있다』고 최종발표를 했다。

그러나 이탈리아수사당국의 발표는 7개월전 교황피격사건을 목격한 미국인사진사 로웰·뉴튼이 찍은 사진에 근거한 것이라서 새삼스러운감이 없지않다。

뉴튼의 사진은 사건직후 이탈리아경찰에 제시된바 있었으나 교황피격사건 수사기관에서 계속 묵묵부답인채였다。그러던중 이탈리아측은 지난12월 갑자기 뉴튼을 로마에 소환했으며 뉴튼은 최근 이탈리아로 가 목격당시를 증언했다。

뉴튼의 회상에 따르면 수발의 교황저격총성이 울린후 오른손에 총을든 한 사나이가 그가 있는 방향으로 도망쳐왔으며 장발의 도주자는 햇빛에 그을은 검은 피부의 지중해지방사람 같았다。

사나이는 뉴튼앞을 불과 4피트정도 스쳐 성베드로광장의 원주형 아치밑 통로로 사라졌다는 것이다。

뉴튼은 도주자가 바로 미정부에의해 리비아의 레이건대통령암살단원으로 지목된 알리·차피이라고 결론을 내렸다。도주자와 차피의 몽타지가 닮았다는 것이다。

이탈리아당국은 도주자와 차피이 동일 인이라는 뉴튼의 생각에 논평을 하지않고 있지만 뉴튼의 증언에 감명한 나머지 그의사진증거가수사에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기에 이르렀다。

소련에 貴族病院

모스크바 一般人 얼씬못해

모스크바의 심장부 칼리닌거리 한모퉁이에는 울창한수목으로 둘러싸인 단아한 병원이 있다。공식적으로는 보건성소속제4국부속병원으로 불려지지만 실상은 「귀족병원」으로 통한다。

건물주위는 무장경호원들이 삼엄하게 경비하여 일반인의 출입은 엄격히 통제되고 있다。

가끔 유명배우나 음악인들에게 이곳에서 치료를 받는 혜택이 주어지기는하지만 대부분은 공산당의 고위간부、각급기관의 長등 특권층만의 전용병원이다。브레즈네프도 오랜투병생활을 이곳에서 했다。병원내부사정은 비밀에 싸여있는데 시설은 세계제1의 초현대적인것으로 알려져 있다。

병원의사들도 의학적 기술이나 지식보다는 당에대한충성심으로 선발된다。

소련정부는 이병원의 존재를 비밀로하고 있으나 소련시민들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어 환자에대해 이러쿵저러쿵 입방아를 찧는 것을 즐긴다。【外紙】

中共서 돈받고出嫁

어린이들도 돈에팔려勞動

北京에서 약3백20㎞ 떨어진 濟南市에서는 요즘 여자가 돈에팔려 시집을 가는가하면 아이들 역시 돈을받고 노예같은 노동생활을 하고있다고 이곳 라디오방송들이 개탄했다。

山東省수도인 濟南市당국은 인신매매결혼과 돈을벌기위해 아이들을 유괴하는 행위를 금지시켰다고 이방송은 덧붙였다。

이방송은 특히 인신매매현상은『해악한 봉건제도의 잔재、자본주의 이념의 영향、그리고 구태의연한관습이 주요원인이 되고있다』고 주장했다。중국의 전통적관습은 여자가 시집갈때 지참금을 함께 보내는 것으로 여자가 오히려 돈을받고 팔려가는것은 희귀한일이다。【北京=UPI】

81년의베스트·셀러 「루빅큐브」해결법

81년의 베스트·셀러를 쓴 사람은「노블·하우스」의제임즈·클라벨, 「쿠조」의스티븐·킹과같은 저명한 작가가 아니다。뜻밖에도 스탠퍼드대학 화학교수인 제임스·G·우르즈다。

그가 쓴 「루빅·큐브의 손쉬운 해결법」이 6백68만부나 팔려 판매부수 1위를 기록한 것이다。【스탠퍼드(캘리포니아)=UPI】

美에 電子우편

값싸고 時間 대폭단축

【뉴욕=金泰雄특파원】컴퓨터에 의한 전자우편 시대가 왔다。미국우정공사는 지난4일부터 「E컴」이란 전자우편업무를 시작, 전보와 우편의 기능을 겸한 속달서비스를 하고있다。

E컴은 전자 컴퓨터우편의 머리글자를 딴것。

회사컴퓨터에서 발신된 편지는 우체국 컴퓨터로 직송、수신우체국에서 그편지를·원본대로 인쇄하고 봉함한뒤 통상1종우편과 같이 우체부에 의해 수취인에게 배달되는 것이다。

E컴은 우선 다량우편을 필요로 하는 상업적인 대기업체를 대상으로하고 있는데 발신부터 수취까지 소요시간은 48시간 이내、우편료는 1페이지에 26센트, 2페이지에 31센트로 돼있다。

통상국내1종우편료가 20센트이니까 값은 대단히 저렴한 셈。

더우기 E컴은 우표, 편지지、봉투에다 가봉하는수고까지 대신해주기 때문에 대기업들은 많은 예산을 절감하게 됐다。

단하나 흠이 있다면 각회사 전용편지같이 독특한 글씨체의 회사명, 주소등을 수록하지 못한다는 것。

우정공사는 E컴 서비스가 82년에는 2천만건, 83년엔 3천만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演藝界 소식

比국제映畵祭 18일에

폭파위협속 초호화규모로

제1회마닐라국제영화제가 영화제개최반대주장자들의 폭파위협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오는18일부터 열릴 예정이다。

칸국제영화제에 필적하는 영화제를 목표로 계획된 마닐라국제영화제의 총책임자는 마르코스대통령의 부인이자 文化相인 이멜다여사로 필리핀이 同映畵祭준비에 투자한 금액만도 2천3백만달러(1백60억원상당)나 된다。

마닐라灣 흰모래사장옆에 호화로운 필름파레스 신축에만 2천2백만달러를 투입했고 대회조직과 운영비로 85만달러를 이미 사용했을정도다。

이멜다 여사에 의해 大會집행위원장으로 선임된 조·U·리턴은『영화제진흥에 아무런 차질은없다』고 말하고『초청자와 참가자들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있다』고 밝혔다。

영화제를 반대하는 在外필리핀교포 단체들은 마닐라국제영화제를 보이코트 해줄것을 호소하는 진정서를 발송하고『만약 영화제에 참석한뒤 폭탄세례를 받아도 책임은 본인이져야 할것』이라고 위협했다。【AP=聯】

—교회의 분단과 새로운 한인교회의 탄생에 즈음하여—

12성상 희로애락을 나누며 주님을 섬겨온 토론토 한인교회가 대다수의 교인들에게 실망을 안겨준채 문을 닫고야 말았읍니다.

먼저, 교회의 폐쇄를 전후하여 교민사회에 물의를 일으키고 교민 여러분에게 누를 끼쳐 드린점에 대하여 토론토한인교회에 속해있던 교인들로서 교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카나다 이민역사와 함께 자라오면서 교민사회에 규범이되어 덕을 끼치며 선구자적인 역할을 감당했어야 마땅했던 저희교인들이 그 본분을 다하지못한채 오히려 교민역사에 오점을 남기고 말았으니 하늘에 죄스럽고 땅에 부끄러울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교우들은 좌절하지않고 다시 일어나 지난 과오를 거울삼아 깊이 자성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에 의지하여 참된 크리스천이되고져 다시금 옛교우들이 모여서 제단을 쌓게 되었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선의의 채찍과 격려하심이 항상 저희 한인교회에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애하는 한인교회 교우 여러분!

이제 우리는 우리교인들이 원하지 않았던 교회의 폐쇄라는 수치스럽고도 비극적인 노회의 결정을 받은 이마당에 다시금 서로가 지난과오를 들추어 논하고 그 책임을 누구에게 전가하려하지 마십시다.

합리와 분석으로 날카로와진 오늘의 교인들은 남의 단점이나 헛점을 곧잘 들추어 내는것 같읍니다. 과연, 일의 헛점을 발견하여 부단히 개선해 나가는 것은 발전의 기호이며 건전한 행위일 것입니다. 그러나, 남의 단점이나 찾으려하고 그것을 지적하는 것만으로 능사를 삼다가는 오히려 부덕한 결과를 낳고 아무일도 이루지 못하게 됨을 압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자기은폐와 자기자신만의 합리화는 금물입니다. 어떤 면에서 우리 크리스천들은 가혹스런만큼의 자기반성(회개)이 필요한줄 압니다.

또, 우리는 흔히기도중에 "우리인간의 뜻대로 마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으로 아집과 독선을 가지고 「내구미에 맞는 교회」, 「내가 주장하는 방식대로 되어지기를 원하는 교회」, 「내가 봉사하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대접과 존경을 받기를 원하는 교회」,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으며 교인들의 원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묻기전에 내뜻대로 되는 교회」등…, 이런 부조리한 사고방식들이 우리들 모두에게 뿌리깊이 있기 때문에 크리스챤의 본분을 망각한채 종당에는 교인상호간에 분당, 분열하여 화평하지 못하고 이같은 불행을 자초하는가 봅니다.

교인 여러분!

다시금 우리가 굳게 믿는 것은 이 비극의 책임은 우리 무지한 인간들에게 있으되 되어지는 모든것은 하나님의 섭리하심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를 폐쇄하고 둘로 갈라지라고 한 노회의 결정을 그저 묵묵히 받아드리기에는 너무도 가슴아픈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진노하시는 중에 다시는 이같은 죄악을 범하지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믿음위에 굳게서서 이웃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라는 준엄한 명령으로 알고 이 결정을 조용히 받아들여야 할 때인것 같읍니다.

우리 모두가 정들었던 교회당에 애착이 없는 것도 아니며 교회의 명칭에 미련이 없을 수도 없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공간적인 장소에 의미를 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도 신령과 진정으로 여호와 우리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이제 두 교회가 탄생되었읍니다. 택하심은 여러분의 양심의 자유에 있음을 압니다. 어느 교회를 택하셔서 가시던지 주님의 나라와 그의의를 위하여 죽도록 힘쓰는 우리모두가 되십시다. 그리고, 이앞으로는 피차에 저주하고 비난하는 대신 측은한 마음으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며 두 교회가 다 건전하게 부흥발전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십시다. 우리를 인도하셨던 유재신 목사님의 전도에도 하나님의 가호와 축복이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 하나님! 길잃은 저희 양 교회의 교인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밝은 내일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

※임시 예배장소로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읍니다.

KINGSTON ROAD UNITED CHURCH
975 KINGSTON RD. SCARBO. ONT.
(ONE BLOCK WEST OF VICTORIA PARK AVE.)

예 배 시 간 : 매주 오후 1시30분
새교회명칭 : **한 인 교 회**(Han-In United Church)

1982년 1월 일

한인교회 임시운영 위원회 삼가

아세아 한약방
특수한약처방및 침술.
물리치료, 부인병
신경통 각종보약.
678 BLOOR ST. W.
☎ : 530－0522(B)
531－4165(R)

최고의 발행부수와 최대의 광고효과를 자랑하는

한국안내광고

THE KOREA TIMES

스피디 인쇄소 SPEEDY PRINTING
각종 인쇄물, 책자,
청첩장, 봉투, 편지
지, 명함, 주보, 광고
팜플렛
619 Bloor St. W.
☎ : 535－3520, 630－8491

구 인

• 토요학교버스(VAN)운전하실분 구함
토론토서부지역, PAY : 1회 $30
씨알한국인학교☎ : 441－2986, 960－0074

• 입주하셔서 2월 한달간 2개월된 아기
돌보아 주실분
☎ : 446－1346

✲ Cook Wanted ✲
KOREAN VILLAGE RESTAURANT
628 BLOOR ST. ☎ : 536－0290

유경험자 캐쉬어 구함
(다벤포드×오크우드지역)
☎ : R)960－0761, B)656－3020

일주일에 두번(월. 금)집안청소 해주실 약간의 영어
를 필요로 하고 성실하고 믿을수 있는분을 원함.
☎ : 445－7745(Mrs. SHOWN 외국인)

스토아 안에있는 POST OFFICE에서
일하실분 구합니다.
☎ : 923－1206

캐나다의 유명한 도난방지기 회사에서
딜러쉽 이나 세일즈에 관심있는분 연락
요망. (영어, 한국말 가능한자)
☎ : 661－3722(Mrs. LEE)

초저녁 청소하실분 구함.
☎ : 962－0019

매매및 양도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잘꾸며진 미용실, 아파트(2베드룸)
(DUPONT × SPADINA)
☎ : 921－5947

매 매
• 토론토, 해밀튼, 오샤와등 외각지역의 가게들
• 매니저 또는 후랜차이스 매니저 구함.
☎ 624－5817

그로서리 스토아 매매
주매장 $3,000, 머신 $800, 렌트 $550
☎ : 1－387－3983

하드웨어 스토아 매매
높은이익 보장합니다.
928 DENFORTH. ☎ : 466－3423

COURTESY COIN LAUNDRY
1357 DAVENPORT RD.
☎ : 745－5849(R) 오후5시~7시 연락바람

광 고 접 수
533－2361

아 십 니 까? 아십니까?
안내광고란의 위력을….

LISBON AUTO COLLISION INC.
LISBON Auto Collision Inc. LA
● 토잉써비스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RUST PROOFING
B)533－8507 533－8508
R)439－6548
이영두, 이전학

매매 부동산

복덕방 ROYAL TRUST CO., (로얄 트러스트)
주택전문 ☎ : (B) 752－3111, (R) 298－2546
곽 석 용

미 용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스 타 미 용 실 미세스 김
남녀 커트, 파마전문, 9AM~8PM ※일 : 월요일 휴업
2437 FINCH AVE. W. (B) 741－4410, (R) 742－0827

킴스 미용실
B)532－7094 R)248－2437(코리어하우스 뒤)

보 석

다이아몬드 · 스타
공장가격으로 특별우대, 주문에 의해서 보증서 책임
신용본위 ☎ : 537－0432(B), 534－3346(R) MR. LEE

사 진

무지개 칼라 — 36 Neapolitan dr. 438-4435
·commercial ·art photos ·weddings ·VIDEO 촬영

KIM'S CAMERA ● 여권사진 즉석 촬영
○각종카메라 · 전자제품 판매및 수리 ○각종 · 증명사진
619 Bloor St. W. Tor. ☎ : 534－1085 김 춘 탁

새한칼라 현상소
● 결혼 ● 돌사진 ● 각종 증명사진 ● 회갑 ● 출장환영
● 현상 인화 확대, 비데오 촬영
☎ : 535－7772 630 BLOOR ST. W. TOR

60 MINUTE PHOTO LAB
• 1시간에 모든 현상이 가능
• 교포께 특별히 10% 할인해 드립니다.
• 프린트 싸이즈(4×6)품질보장
• KNOB HILL FARM DIXIE MALL ☎ : 274－4323
50 BLOOR ST. W. ☎ : 967－7121

시설및 수리

집수리 · 신건축
건축 목공 각종 가게시설및 진열장 카운터 제작
페인팅 타일 ☎ : 669－5784 미스타 심

TV 출장 수리
☎ : 431－0102 미스타 박

KIM ELECTRIC LTD.,
MET. LIC. E1018 전기시설 · 보수 · 경보장치 설치
FIRE ALARM ☎ : 438－3795 김 영 호

KIMBO ELECTRIC CO. : MET. LICENSE E-725
전기시설, 보수, 가게신설, 용량증설, 전기일 일절 집, 가게, 공장
☎ : (B) 245－5544(PAGING)2790, (R) 255－2161

PLUMBING(상, 하수도 수리, 시설)
☎ : 465－2584, 531－6246(Mr. Lee)

목공소 FineWoodwork 879 Westport Cr. Unit 3, Mississauga, Ont. 676•1173 769•9468
상점시설및 주택개조 싸우나 설치, 진열 찬장등 가구제작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 (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악 기 점

SOO PIANO SERVICE
조율 수리 SIMPSON'S, Mr. Music의 Representative
☎ : 222－4682 김 수 룡

피아노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
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178 EGLINTON AVE. W. 이 상 철

인벤토리

INVENTORY
① STORE 인수, 인계 INVENTORY
② STORE 월기조사 INVENTORY
③ STORE 납세대비 INVENTORY
※주야 INVENTORY
TORONTO RETAILERS INVENTORY CO.
(B)259－5822, 255－8301 (R)252－2963 MR. 오

INVENTORY —인벤토리—
·주야불문(공휴일 무관)
☎ : 532－7741(B), 536－6250(R) 호 세 환

양 장 점

온가족이 애용하는 고급내의
쌍방울 메리야스
602 BLOOR ST. W.
☎ : 532－5394(B), 742－0737(R)

샐 터 의 상 실
숙녀복, 파티드레스, 웨딩드레스, 단체주문환영
☎ : 535－4441 606 BLOOR ST. W. 디자이너 MR. 김

이삿짐및 운송

각종 운반및 이사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나 라 운 수

에어콘·히팅·냉장고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 · 판매 · 수리
● 정확한 진단 ◆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환 영

Palmer's 시설 · 판매 · 수리
에어콘, 전기, 개스히팅, 워킹쿨러, 아이스크림후리저
NEW OPEN STORE SPECIAL SERVICE
☎ : (B) 746－3840~1, (R) 493－9945 김 봉 균

KIM'S 냉장고, 에어콘
시설, 수리일체
☎ : 749－3178 김 진 환

＊주소를 이전하실때 3일전에
꼭 변경통보를 해주십시요.

자동차수리

MASTER AUTO BODY
완전한 차체수리, 페인팅, 토잉써비스
95 PORTLAND ST. ETOBICOKE.
☎ : 255－2111(B), 828－5001(R)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L & K AUTO COLLISION
주소 : 346 MUNSTER AVE. (BLOOR & 키플링)
☎ : B) 231－6951, R) 742－5408 오 세 호

ROGERS GARAGE 변 달 원
자동차 수리 일체).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라지에타(개스탱크, 히터, 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EDIATOR CO.
☎ : B)245－1978 R)248－6032 김용환

카펫 · 카텐

카펫 크리닝 : 카펫 · 소파 · 체어 · 자동차시트
☎ : 439－6277 박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싸다고 소문난 가나안 카텐·카펫·브라인드
2390 LAKESHORE BLVD. W.
☎ : (B)252－4857 (R)252－6602 유원덕

럭키 DRAPERY
4141 DIXIE RD. (딕시×버남돌프)
☎ : 625－0698 최 원 보

꽃 집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TORONTO, ONT. M4B 2E9
☎ 751－5851 이 동 환

제인·파크 꽃집(JANE PARK PLAZA 안)
• 각종파티, 생일, 결혼, 장례꽃주문, 배달함.
875 JANE ST. TOR. ☎ : B)769－0609 R)242－5194(여정웅)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꽃 집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 · 김

한 방 원

침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뜸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안 강 용 한 약 건 재 상
중국한의사 4명으로 정확한
진찰, 신속한 효과
● 진품웅담 ● 녹용 ● 우황청심환 ● 사향 ● 경명주사
● 특수한약 처방및 침술에 의한 한방치료
● 보제첩약및 각종병에 대한 처방약
6일영업 아침10시~저녁8시 (수요일 휴업).
챠이나타운내(465 DUNDAS W.)
☎ : 363－3883, 363－2088 최 호 권

하르빈 한약상사
• 20년간 한의사 경험(중국의사 자격증 소유)
• 20년간 하르빈한의 대학교수
• 정확한 진단과 처방
• 한약으로 암을 완치
• 중국 본토에서 한약 직수입
(사향, 경명, 주사, 우황, 진주, 웅담, 인삼, 녹용등)
643A BLOOR ST. W (신용조합옆)
서 춘 봉
☎ : (B)536－6854 (R)743－0752

회계사무소

공인회계사 이 명 세
사무실 : 1445 DUNDAS ST. E. SUITE 110
☎ : 273－7300 MISSISS.

김인규회계사무소 ACCOUNTING & TAX
501 YONGE ST. #207, TOR.
☎ : 960－5736(B), 844－0178(R)

태 권 도

박종수 태권도장 사범 : 박종수
719 YONGE ST. ☎ : 961－7100

손명수 태권, 합기도장 사범 : 손명수
2186 BLOOR ST. W. (AT RUNNYMEDE 써브웨이)
☎ : 763－1155 763－1155

임송학 태권도장
교포들에게 반액으로 봉사
1963 WESTON RD. (1층)
☎ : 247－7577 (웨스톤×로렌스) 로브로 앞

광고문의
☎ : 533-2361

광고료 · 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VISA master charge

기 타

O'Kim Embroidery
각종 꽃수, 명찰, 마크, 아동복, 부인복
Covering등. ☎ : 633－9341

PICTURE FRAME WAREHOUSE(각종액자)
82A REXDALE BLVD. REXDALE
☎ : 746－2120 조혜숙

ZAP SUREKILLER 368－9015
바퀴벌레 개미등 각종벌래 100% 효과
한국식품점 또는 온타리오 전역 공급, 주문배수.

통닭. 오뎅 한국인의 빈대떡, 통닭전문
각종 샌드위치 주문환영함.
☎ : 537－0432(미스타, 리)

중 앙
AUTO SERVICE
● TUNE UP
● SAFTY INSPECTION CERTIFY
● PROFESSIONAL BRAKE SERVICE
481 DUPONT ST. TOR.
☎ : 532－3946 길창세

낭비없는 광고효과는 한국일보에서!!

尹英乃선수 日排球界 진출
도요보 코치겸 선수로초빙

한국여자배구대표팀의 대들보였던 세터 尹英乃양(29·前美都波)이 日本실업배구랭킹2위인 도요보팀의 코치겸선수로 초빙돼 12일상오 KAL편 日本으로 떠났다.

우리나라 여자배구선수로는 처음으로 日本실업팀에진출하는 尹양은 德成女高를거쳐 지난71년부터 대표선수로 활약,'몬트리올올림픽'때는 구기사상 처음으로 銅메달을획득하는데 수훈을 세우기도했다.

尹양은 도요보팀으로부터 월40만원정도의 보수외에 특별한 혜택을 받을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본인은 떠나기에앞서 『돈을 벌기위해 가는것이 아니고 은퇴를한 처지에서 한국과 日本배구의 차이점을 객관적으로 공부하고 싶어 결심했다』며 정착할계약조건은밝히려 하지않았다.

그해 겨울은 따뜻했네 <7>

朴婉緖 作
金光培 畵

한 옛날에 ⑦

오목이만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착한 아이 노릇 지친 수지는 문득 이렇게 생각했다. 그런 방정맞은 생각은 한번 떠오르기가 잘못이었다.

뒷간에가면 졸졸 따라다니며 온갖 시중을 다 시키고, 얻어맞고는 엿성 들어 달라고 보채고, 빼앗기고는 빼앗아 달라고 들들 볶아 먹고도 부족해 언니의 먹을거란 먹을 것은 당연한 권리처럼 약탈해가는 동생으로부터 해방된다는 것은 상상만으로도 날아갈듯한 기쁨을 느꼈다. 수지는 그 기쁨속에서 본능적으로 어둡고 두려운 것, 죄의 냄새 같은 걸 맡았기 때문에 그 기쁨을 자제하려 들었다. 그러나 일곱살 먹은 계집애가 스스로 억제하기엔 벅찰만큼 격렬하고 매혹적인게 그 기쁨속엔 있었다.

수지는 자주자주 그 기쁨을 맛 보았다. 아니 기쁨에 휘몰렸다.

아무리 좋은 소리 아름다운 노래도 거듭 해서 들으면 싫어진다고 한다. 아무리 기발한 상상도 되풀이하는 사이에 시들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오목이만 없었으면 하는 공상에 따르는 기쁨은 거듭될수록 새로와졌다. 그속에 감추어진 죄의 냄새가 기쁨을 억제하기는 커녕 날로 참신하게했다. 마치 음식에 섞인 알맞은 향신료가 입맛을 새롭게 하듯이.

남 보기에 수지는 변함 없이 오목이의 착하고 어른스러운 언니였다. 제 몫까지 오목이에게 먹이고 오목이를 업어 들고, 오목이의 온갖 생떼와 응석을 받아주었다. 어른들은 이런 수지를 칭찬하고 부추기는것만 갖고는 미안했던지 오목이를 미워하기 시작했다. 착한 것을 괴롭히는 것을 미워하는 것으로 착한 것에 대한 거룩한 의리를 지킨 것처럼 자위하려는 것 같았다. 어른들은 오목이를 징그러운 짐승 보듯이 노골적으로 싫어하는 시선으로 바라보았고 으슥한 곳에서 오목이를 주먹질 하거나 모질게 알밤을 먹이기도 했다.

그러다가 만일 수지한테 들키면 일대 소동이 벌어졌고 어른은 크게 망신을 당해야만 했다. 오목이한테 순하고 착한 언니일뿐 오목이를 괴롭히거나 해치려는 어떤 힘에도 수지는 가차없이 용감했다.

오목이를 눈 흘긴 어른의 눈을 더욱 불타는 눈으로 노려보았고 오목이를 주먹질한 어른의 손을 앙칼지게 할퀴거나 물어뜯기도 했다. 그럴수록 오목이는 나쁜 아이가 되고 수지는 착한 아이가 되었다.

아무도 수지가 그런 방법으로 오목이만 없었으면, 하는 자신의 마음과 싸우고 있다는걸 알지못했다. 수지의 싸움은 여의치않았다. 어린 마음에 결코 그런 계산까지 한게 아니었건만 결과적으로 자신의 나쁜 마음을 교묘하게 은폐하고 오히려 남들의 동의(同意)를 얻어내고 있었다. 수지는 남들도 다 오목이를 미워하고 오목이가 없기를 바라고있다는 걸 알아내고 싶었던 것이다.

엄마의 무관심과 여러 사람의 미움속에서 오목이는 더욱 먹어도 먹어도 허기가 지는 아귀가 돼갔다. 외할머니까지도 오목이의 땡깡이처럼 부른 배를 마치 자귀가 난 짐승의 배 보듯이 징그럽게 바라보며 진저리를 치는게 고작이었다.

작전상 서울까지 내놓았다는 소식과 함께 마을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수지네 외가에 머물고있던 사람들은 더 남쪽으로 내려가기위해 보따리를 싸고, 마지막으로 서울을 뜬 피난민들이 대량으로 마을을 통과했다. 날씨는 표독할이만치 추운데 어느새 해가 바뀌어 수지는 일곱살 오목이도 다섯살이 돼 있었다.